

2023년
가족서비스
우수수기
사례집



발간사

반갑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직무대행 전주원입니다.

먼저 2023년 가족서비스 우수수기로 선정된 작품의 사례집을 발간하며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가족서비스 우수수기 공모전』은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서비스를 운영하는 종사자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우수한 사례를 모아 한편의 책으로 엮게 되었습니다.

2023년 공모전은 다양해지고 있는 가족의 변화를 반영하여 청년, 중장년, 고령층 등 대상을 확대한 1인가구 지원서비스, 어느 누구하나 소외받지 않고 안정적 삶을 유지할수 있도록 제공하는 취약·위기가족 지원서비스, 공동육아 나눔터와 돌봄공동체 활동을 제공하는 가족돌봄, 가족상담, 다문화 가족지원 서비스 5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특히 종사자 우수프로그램 부문에서는 처음으로 특정 가족에 대한 편견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가족다양성 인식개선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지면 부족으로 공모전에 제출된 수많은 작품들을 다 신지 못하고, 전문가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28개의 작품만을 신게 된 점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작품들 속에서 진솔하고 애뜻한 가족센터의 노력과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의 희노애락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고, 가족센터를 이용하며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지역 내 가족들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 등 다양한 가족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품들을 통해 가족서비스 사업은 밝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원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센터와 협력하여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늘 공감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직무대행 전주원

Contents

1

이용자 우수수기

- 01 사랑이, 돈·독한, 남·해, 맘·들의 친목 모임 김혜정 남해군가족센터 08
- 02 할매마음충전소 손복연 광양시가족센터 12
- 03 함께하는 즐거움 이주희 서대문구가족센터 16
- 04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미라 제주시가족센터 20
- 05 위급 상황에서 생명의 천사가 되어준 멘토 짜응옥연 서대문구가족센터 24
- 06 희망이 있으면 행복해진다 홍나희 화성시가족센터 28
- 07 어둠에서 빛으로 이천수 익산시가족센터 32
- 08 나 가치(같이) 산다 : 혼자 사는 시간에 찾은 소중한 경험
최승혁 서산시가족센터 34
- 09 변화는 작은 신뢰로부터 이윤진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38
- 10 희망으로 피어난 사랑하는 나의 가족! 뜨리꼬엠따 대구남구가족센터 42
- 11 돌봄공동체 활동으로 내 아이에게는 마을언니,
마을동생이 생기고 나에게도 길잡이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박지현 대전광역시가족센터 46
- 12 우리 가족 해방 일지 모희 용산구가족센터 50
- 13 우리 가족의 튼튼한 뿌리가 된 '24시간' 노민 성동구가족센터 56
- 14 여유 속에서 함께 걷자 유영 도봉구가족센터 60
- 15 내 마음의 병원 권현미 수성구가족센터 64
- 16 나의 행운, 한국에서의 삶 김폴리나 사천시가족센터 68
- 17 나의 새로운 가족은 정읍시 공동육아 나눔터 사토 나나에 정읍시가족센터 72
- 18 살림, 나를 살림! 이민선 동대문구가족센터 76
- 19 당당한 엄마로 살고 싶습니다 전보경 달서구가족센터 80

2

종사자 우수프로그램

01	세종시 다양한 가족과 함께하는 정답고 다채로운 감성 라디오 “온 가족 수다방 다정다감” 한유리 세종시가족센터	86
02	부모의 자녀 돌봄 역량 강화 및 돌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배우고,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부모” 허숙경 인천중구가족센터	96
03	맞벌이 가정 결혼이민자 직장맘 일·가정 양립 지원 ‘온라인으로 워라인 해요’ 유혜진 서울중구가족센터	104
04	화성가족!! 지화자~~!! “지구를 위한 화성시공동육아나눔터의 자발적 실천” 권민혜 화성시가족센터	112
05	생애 주기별 아버지 역할 지원 [오즘 아버지] 시리즈 손경여 사천시가족센터	120
06	결혼이민자 강점 개발 프로젝트 “다문화알(면)쓸(모있는)잡(JOB)대학” 정다운 달서구가족센터	126
07	1인 가구 환경특강 및 에코 챌린지 “동일이의 초록생활” 오이슬 동대문구가족센터	132
08	결혼이민자 동아리 지원 사업 “난타 동아리 덩~딱 덩 딱!” 강은진 통영시가족센터	142
09	소통하는 소중함 가족 “소소가족” 정희정 계양구가족센터	148





2023년 가족서비스 우수수기 사례집

1



**이용자 우수수기
수상작**

우수수기
대상



사랑이, 돈-독한, 남-해, 맘-들의 친목 모임

김혜정 남해군가족센터

2013년 결혼을 시작으로 남해에 정착한 지 벌써 11년 차가 되어가네요.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고향이자 남편이 생활하고 있는 자그마한 동네인 남해로 이사를 왔습니다. 바로 임신한 후 연고가 없는 낯선 곳에서 힘들게 생활하며 우울증까지 찾아와 많이 힘들고 지쳤던 당시에 남편의 도움으로 '보물섬 공동육아나눔터'란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과 나눔터를 오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병원에 갈 필요가 없을 만큼 좋아지게 되었죠.

6개월 된 딸을 데리고 나눔터를 다니면서 선생님, 다른 어머님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했어요. 낯설던 공동육아나눔터는 점점 저의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선 또래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엄마들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셨고, 육아로 힘들고 지칠 시기에 알게 되어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첫아이가 6개월 때부터 모든 걸 함께해온 '사돈남맘 (사랑이 돈독한 남해 맘들의 친목 모임)'입니다. 이들도 함께 고민해서 지었죠. 다섯 가정으로 이루어진 저희 모임은 첫 만남부터 마음이 통하여 곧 공동육아로 이어졌습니다. 이유식 나눔을 시작으로 반찬 나눔, 옷가지 나눔까지. 11년이란 세월을





끈끈하게 서로를 믿고 의지해 왔습니다. 단순한 이웃이 아닌 어느덧 가족으로 함께하는 사돈 남맘입니다. 남해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다들 사돈남맘을 아실 겁니다. 서로를 알게 된 게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아주 행복하게 이 특별한 인연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에 대해 더욱 많은 홍보와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현재 사돈남맘의 다섯 가정 중 세 가정은 세 명씩의 아이들이, 두 가정은 두 명씩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정이 한 번에 움직이려면 단체 모임만큼 인원수가 많죠. 다른 지역에 사는 제 친구들이 말했어요. 육아가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세 명이나 낳아서 키울 수 있냐고. 저는 사돈남맘과의 공동육아를 통해 친정어머니의 도움 없이도 셋째까지 낳고 키울 수 있었죠. 서로를 진심으로 돕다 보니 힘든 일도 반으로 줄어 사돈남맘 아이들이 이렇게나 많나 봅니다. 모든 걸 항상 함께하는 사돈남맘이 새삼 고맙고 감사하네요.

또한 사돈남맘은 열정도 넘쳐서 나눔터를 열심히 방문하고 친목을 쌓아 왔습니다. 그 덕에 ‘보물섬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위원을 몇 년째 맡으며, 사돈남맘 공동육아에서 느낀 점 등을 토대로 선생님, 엄마들과 소통하여 자그마한 보탬이라도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해 지역의 특성상 병원 시설이 부족하여 사천이나 진주, 광양 등 먼 거리에 위치한 병원을 갈 때에도 한 차로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 혜택을 받기 힘든 남해 어린이들을 위한 민간단체를 만들어 남해군에서 내려오는 보조 사업을 3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업도 진행하고, 마음껏 뛰놀기도 하며 남해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보물섬 공동육아나눔터’를 알면서 만나게 된 ‘사돈남맘’은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는 많은 생각과 고민들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점점 더 강한 엄마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담 선생님과 사돈남맘이 아이들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며 ‘남해군 보물섬 공동육아나눔터’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이곳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에 저 또한 사돈남맘과 함께 베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를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소중한 인연인 사돈남맘도 없었겠지요. 요즘같이 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에 셋을? 아마도 첫 아이가 마지막 아이이지 않았을까란 생각을 합니다. 쓰러질 것 같은 이 힘든 육아는 사돈남맘이 곁에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극한 직업임에도 사돈남맘과 함께 공동육아로 끈끈한 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돈남맘은 서로 “내가 업어 키웠어~ 내가 네 엄마다~”라며 농담을 주고 받으며 지난날을 돌이켜 봅니다.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이들을 바라보며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다시금 전하곤 합니다. 공동육아나눔터의 전담 선생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 사돈남맘이 11년째 인연을 이어올 수 있었어요. 평생 함께하기로 한 다섯 가정의 영원한 행복을 꿈꾸며, 남해군의 어린이들과도 함께 자라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육아로 힘들고 지친 일상이던 엄마, 아빠는 ‘보물섬 공동육아나눔터’의 도움으로 소중하고 존귀한 아이들을 밝은 미소와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사돈남맘의 소중한 인연도 이어준 곳이라서 남해는 저의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먼 친척 보다 가까운 이웃이 낯대라는 옛말을 서로가 절실하게 느낀 사돈남맘. ‘공동육아나눔터’로 인해 단절되었던 사돈남맘의 경력들은 이제 남해군 아이들을 위한 보조 사업으로 봉사하는 단체



(사돈남맘)가 되었고, 나아가서는 바라지 않고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내 아이만을 위한 것이 아닌 공존하고 함께 살아가는 밝은 마음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의 이용으로 인해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여유까지 생겨났습니다. 또한, 남해 맘들과 더 많은 공유와 정보를 얻기 위해 ‘사돈남맘’이란 네이버 카페까지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 중이며, 올해 8월 12일 남해군의 보조 사업으로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작은 마음을 보태고 있습니다. 항상 이곳을 이용하며 자라온 사돈남맘 아이들은 받은 것을 나누기 위해 꾸준히 나눔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의 가르침으로 세상에 감사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고 있는 사돈남맘 아이들~♡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할 수 있다는 용기까지 심어준 곳이 바로 ‘공동육아나눔터’입니다. 더욱 살기 좋은 남해로 만들기 위해 올 한 해도 더 열심히 ‘보물섬 공동육아나눔터’의 이용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사돈남맘 또한 제 일상에서 이들이 없다면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소중한 인연으로 자리매김하였고, 가족이란 이름으로 평생을 함께할 것입니다. 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많은 변화를 가져다준 사돈남맘에게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더불어 공동육아의 품앗이로 엄마들의 행복이 더 많이 커져 나가길 바라봅니다.





할매마음충전소

손복연
광양시가족센터

우리알처럼 반짝이는 뜨거운 햇살을 등 뒤로 밀쳐본다. 뽀얀 주먹만큼 사파이어 보석 색색이 물들어 수놓은 수국을 말없이 바라본다. 어느덧 지나쳐버린 나의 60년, 지난 세월을 헛웃음 속에서 회상해 본다.

14년 전, 제철소 직장을 둔 남편은 주말에 집에 올 때면 항상 자신은 돈만 버는 돈벌레고, 뒷방 늙은이라며 신세타령을 하였다. 고등학생 딸, 중학생 아들의 사춘기가 심해 이사를 할 수가 없었는데도 남편의 하소연을 이기지 못하고 버티고 버티다 아이들의 원망을 안은 채 광양행을 하게 되었다. 광양에서의 생활은 가슴앓이의 시초였고 불행의 시작이었다. 낯선 도시에서 사춘기를 심하게 겪은 딸은 스무 살이 되면서 가출을 하였고, 그 뒤로 연락이 끊겼다. 남들이 흔히 말하는 행복과 사랑은 나에게서 사치였고, 내 존재는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 보다 못했다.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딸은 임신 사실을 알렸고, 21살 딸은 출산을 하였다. 딸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못했고, 결국 끝이 났다. 그리고 갓난 아기인 손자만 남았다.

딸의 가출도, 출산도 모두가 어머니 내 탓이라면서 남편은 폭언과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시간 날 때마다 술로 세월을 낚더니 허구한 날 손자보는 앞에서 폭언과 폭행이 더 심해졌다. 남편과 몸싸움할 때마다 경찰관들이 집에 왔고, 그것을 세면 손가락 열 개도 부족하다. 나는 그럴 때마다 실이 끊어진 풍선처럼 하늘 높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날고 싶었다. 그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다.



너무나 작아져 버린 할머니의 초라한 모습을 손자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손자 앞에서 사라져 버리고 싶었다. 아파트 생활도 창피했다. 얼굴을 들어 이웃을 볼 수가 없었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힘들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라도 지었을까? 나는 건디다 못해 남편과 이혼을 했다. 손자에게만은 예쁜 모습, 당당한 모습, 멋진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서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을 선택했다.

6년째 손자를 키웠는데 기특하게 한 번도 엄마, 아빠를 찾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유치원 생활을 건강하게 잘해주었다. 햇살이 따스한 봄날, 손자가 초등학교 입학식을 하였다. 입학식 날 현관문 앞에서 손자는 할머니에게 신신당부를 했다. 혼자 학교에 갈 테니 할머니는 집에 있으라고, 학교에 오지 말라고 하더니 손자는 홀로 학교로 향했다. 손자의 다그침에 대답은 했지만 그래도 걱정 반, 근심 반, 불안한 마음에 몰래 뒤따라갔다. 다른 아이들에게 휩쓸려 건넌 삼색 신호등 뒤로 머리만 겨우 보이며 학교 정문 앞까지 마스크도 벗지 않고 가는 것이 보였다. 나는 무거운 돌덩이를 발등에 올려두고 걷는 걸음으로 간신히 공원까지 걸어가서 소나기 같은 눈물을 가슴에서 토해 냈었다.

아빠 없는 아이, 엄마도 도망가 버렸다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애지중지 키웠는데 어느 날부터 할머니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슬쩍슬쩍 눈치를 보던 손자. 아마도 그때가 손자의 우울증 초기였던 것 같다. 내가 그때 좀 더 빨리 알아차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해본다. 손자가 우울증, 충동적, 무기력 증상으로, 우울증 약을 복용한 지 1년 하고 한 달 정도 지났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동현이는 자주 몸싸움이 있었고, 심할 때는 1주일에 다섯 번 학교에 불려갔다. 손자는 흥분하면 감정 조절이 안 되었고 그럴 때 할머니가 가서 보듬어 주면 진정이 되기도 했다. 담임 선생님과 함께 많이도 울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좌절감이 심했을 때 손자와 둘이서 해서는 안 되는 선택지도 생각을 했다.

광양시가족센터 노명선 팀장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의 삶은 정말 팍팍했다. 우연찮게 광양시가족센터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희망, 꿈, 미래 이런 말은 나와는 먼 이야기였는데 광양시가족센터를 만나며 동현이와 나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찾아왔다. 광양시가족센터와의 만남은 로또보다 더 운이 좋았다고 나는 인정한다.

작년 8월에 일을 하다가, 손목뼈가 부러져서 쇠를 박는 수술을 했다. 6개를 박는 대수술이어서 수술비가 부족했는데 광양시가족센터에서 수술비도 지원해 주었다. 그리고 손자에게 멋진 옷을 사주고 싶었지만 생활비가 빠듯한 형편이라 사주지 못해 마음이 아팠었다. 그런데 꼬까옷을 부탁해에서 눈치도 빠르게 옷도 구입해 주셨다. 친척도 못해주는 것을 세심하고 다정하게 보살펴 주는 이 사랑에 눈물이 난다.

그리고 가족마음충전소로 보물섬 글램핑을 가게 되었고, 광양시가족센터 덕분에 제대로 힐링을 했다. 남해는 낭만이 저절로 넘치는 곳이었고 다음에 또 가고 싶은 곳 1위이다. 2022년 12월 연말 송년회 때는 가족 모두를 초청하여 맛난 음식도 먹고, 재밌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겨울 방학 때는 늦잠만 자고 게임만 하고 핸드폰만 보는 손자가 가족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컵 난타, 숟가락 난타 등을 배워서 공연할 수 있게 되었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광양시가족센터 배움지도사 선생님이 1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손자의 눈높이에 맞게 놀이수업을 진행해 준다. 손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놀이수업을 하는데 손자가 많이 좋아지는 것이 느껴진다.

광양시가족센터 사무실이 새로 멋지게 지어 개관을 하였다. 6월 14일, 새 건물에서 ‘할매마음충전소’ 집단 상담을 했는데 너무 좋았다. 그 시간은 항상 기다려진다. 오랜만에 얼굴도 볼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그동안의 안부를 서로 묻는다. 그 시간만큼은 누구 하나 눈치 보지 않고 울고 웃고 다 같이 공감하고 경청하고, 우리들의 멋진 우상 용선생님 수업도 받는데 함께 하는 것 그 자체가 힐링이다.

광양시가족센터는 나와 손자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생명의 은인과도 같다. 지금 나는 너무 행복하다. 함께 사례관리를 받는 조손가족 중에 막내여서 언니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 광양시가족센터 ‘할매마음충전소’에서 나는 막내로서 받은 사랑을 가지고, 집에 오면 손자의 할매로서 집안의 제일 큰 어른으로 받은 사랑을 나눈다. 광양시가족센터는 정말 나의 또 다른 가족이다. ‘할매마음충전소’는 내 마음의 충전소이자 삶의 원동력이다. 충전된 할머니로서 손자와 함께 앞으로 더욱 멋진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함께하는 즐거움

이주희

서대문구가족센터

‘○○구 가족센터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자 채용 공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사회복지학과 졸업을 앞두고 있는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입사 지원서를 작성했다. 혹시나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나 자신에게 도전해 보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다. 내가 사회복지사가
 되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2018년 가족센터와의 인연에서 시작된다.

희망 속에서 꽃피운 나의 꿈

나는 2007년 입국하여 현재는 세 아이의 엄마가 된 결혼 이민자이다. 10년
 넘게 전업주부였던 내가 이런 큰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의 언어발달
 수업을 시작으로 가족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부터이다. 센터를
 통해 다문화 가족을 위한 여러 정책과 서비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사회
 복지사라는 직업에 관심이 생겨서 공부도 시작하게 됐다.

2021년부터는 서대문구가족센터의 결혼 이민자 멘토로 활동하면서 한국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초기 입국자의 자립을 돕고 있다. 한번은 멘티의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실에 이송되는 일이 있었다.

한국어가 서툰 멘티를 대신해 보호자를 자처하여 12시간 동안 멘티 부부의
 곁을 지키고, 사례관리사 선생님과 병원 업무를 도왔다. 하지만 이러한 주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의식불명으로 누워 계시다가 결국 돌아가셨다.
 친인척 하나 없이 배우자와 단둘이 의지하며 살던 멘티의 착잡하고 막막한
 마음을 잘 보듬어주고 도와줬다. 사망 신고까지 마친 후 멘티의 감격 어린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내심 뿌듯함을 느꼈고, 내가 헛된 꿈을 꾸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깨달았다.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 꿈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
깊은 바닷속은 너무 외로워 / 좁고 어둡고 차갑고 때로는 무섭기도 해 /
그래서 나는 매일 꿈을 꾴”

막내아들이 즐겨 부르는 ‘문어의 꿈’ 노래가 떠오른다. 타향 생활이 좁고 무섭고 때로는 외롭지만, 환경에 적응하며 꿈을 꾸는 문어처럼 우리 모두도 오색찬란한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 내가 꾸는 꿈, 바람, 소망은 누군가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22년에는 ‘서울시 결혼 이민자 취업디딤돌사업’에 선정되어 서대문구 가족센터에서 통·번역, 프로그램 운영 보조로 8개월 동안 인턴 생활을 하며 사회복지 기관에서의 첫 경험을 쌓았다. 언젠가는 가족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여 결혼 이민자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가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게 바로 나의 희망이 만들어낸 꿈이다!

학교 밖 배움과 성장의 요람

내가 도전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가족센터에서 자녀 양육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 주었기 때문이다. 재작년 8월, 막내아들은 심각한 언어 문제로 장애 통합반에 합류했다. 다문화 자녀라는 낙인에 장애 통합반까지….

할머니의 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어린 자녀의 문제 앞에서 부모의 자존심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다행히 가족센터에서 주 2회, 1년 반의 언어발달 수업을 거쳐 아들의 어휘량은 눈에 띄게 늘었고, 발음도 정확해져서 올해는 일반반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내년에 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은 다배움 수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두 딸이 이미 초등학생이지만, 한국의 교육 과정이나 시스템을 모르는 이민자 엄마는 세 번째 입학이 여전히 걱정이다. 넉넉지 않은 형편이라 태권도 학원 보내는 것만으로도 벅찼는데, 가족센터에서 이렇게 언어 발달부터 기초 학습까지 챙겨주니 감사한 마음뿐이다. 요즘 아들은 길거리 간판에서 낯익은 글자를 발견하면 흥분해서 소리 지른다. “엄마, 나 저 글자 알아! 가~ 족~”

이렇게 가족센터는 학교와 가정을 뛰어넘어 아이들에게 제2의 꿈터와 놀이터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세 아이의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이 센터를 통해 쌓은 행복한 기억들을 평생 떠올리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무지갯빛 우리 가족

우리 가족은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 대가족 등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다. 그 외 4년 전 둘째 딸이 된 조카 유*이는 우리 가족에게 ‘위탁 가정’이라는 새로운 이름도 선물했다. 지금은 한 가족이 되었지만, 유*이가 처음 우리 집으로 온 날 엄마, 아빠를 찾으며 밤새 울다 잠든 안쓰러운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낯선 환경에서 유*이가 마음의 안정을 찾고 우리 가정에 잘 녹아들 수 있었던 것에는 가족의 노력도 있지만, 센터의 도움이 더 컸다. 가정의 달 꽃꽂이, 추석 송편 만들기, 가족 나들이 등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얘기하고 웃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유*이는 최근 <2023 위탁 가정 스토리 공모전>에서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 참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밝게 웃으며 “나는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유*이의 모습을 보며 나는 울컥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온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했다. 모두의 정성으로 나는 또 하나의 딸을 얻었기 때문이다.

오늘도 나는 가족센터로 향한다. 초기정착지원사업의 멘토로서, 막내 아들의 '다배움' 수업 참여자로 발도장을 찍는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하는 즐거움의 바이러스가 씨앗이 되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가정에서 예쁜 꽃을 피우길 바란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미라
제주시가족센터

저 큰아들은 발달 장애(자폐 스펙트럼,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러하듯이, 아들은 또래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만의 세계를 더 추구합니다.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저희 가족은 비슷한 환경의 가족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점차 많아졌고, 비장애 가족(저희는 일반적인 가족을 이렇게 부릅니다.)과의 만남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장애아정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와 저희 아들은 그랬습니다.

아들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아들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던 중, 2023년 2월의 어느 날에 한 대학 동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주시가족센터에서 지원하는 ‘돌봄공동체’ 사업이 있는데 함께 팀을 꾸려서 신청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육아에 필요한 강연을 들을 수 있고, 지원금을 받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고는 망설여졌습니다. 비록 동기간이지만, 특별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가족들과 함께 일주일에 두세 번씩이나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능할까? 아들의 행동을 보며 어른이든 아이든 불편을 느끼게 될 테고,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나와 아들이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고민이 되었지만 저는 세 명의 동기들과 함께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가족이라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며 신나게 뛰어 놀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었고, 농장을 운영하던 가족도 있어 아이들이 생태학습을 할 수 있게 체험을 계획해 주었습니다. 체육을 전공해 아이들의 놀이체육을 이끌어줄 가족도 있었고, 의사로서 아이들의 안전을 맡아줄 수



있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었기에 체계적인 돌봄공동체 활동을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기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저희 가족이 비장애가족과 어울리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갖도록 동기들이 배려해 주었음을 알기에 고마운 마음을 갖고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어른 8명과 아이 8명의 저희 <아낌없이 주는 나무> 팀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2023년 4월부터 평일과 주말에 틈틈이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노란색 어린이집 버스를 타고 현장 체험 학습을 가듯 함께 전시를 보러 가기도 했고, 방과 후에 만나 저녁을 먹은 후 동네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구를 했으며, 넓은 광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비눗방울 놀이를 하며 뛰어놀았습니다. 농장을 방문한 날에는 유의점을 주의 깊게 들으며 옥수수 수확도 해보았습니다. 초당 옥수수의 달콤한 향에 이끌려 생옥수수를 바로 입으로 가져가는 아이들도 있었고, 채 여물지 않은 옥수수를 따다 옥수수가 부러져 안타까워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아직 손끝이 아무지지 않은



유치원생들은 옥수수 껍질을 벗기는 것이 어려워 징징대기도 했고, 옥수수 수염만 따로 벗겨 내어 흰머리 새치라며 머리카락 사이에 넣어보기도 하고 가발이라며 정수리 위에 옥수수수염을 한데 모아서 올려놓는 아이들을 보며 신나게 웃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활동에 제 큰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서툴기는 하지만 비장애 아이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도움과 배려로 활동을 해내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희 집에 모여 함께 밥을 먹고 동네에서 놀기도 했습니다. 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 팀을 초대했다고 이야기했더니 아들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들과 같은 발달장애가 있는 친구들만 집에 초대했었는데, 비장애 친구들을 초대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아이도 내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책과 장난감을 고르기 시작했고, 그날의 놀이 스케줄을 짰습니다. 대청소를 해야 한다며 학교에서 하듯이 동생과 저에게 청소 역할을 배정해 주었고, 당일 아침에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청소를 재촉했습니다. 돌봄공동체 팀을 구성하고 이러한 기회를 갖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아들이 생각하는 '친해진' 비장애 친구가 생기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들이 이런 준비를 할 줄 안다는 사실을 계속 몰랐을 것입니다. 제가 평생 고민하며 숙제로 안고 있어야 할 아들의 사회성이 공동육아로 인해 점차 발달되고 있음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아낌없이 주는 나무> 팀은 더 많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매실을 따서 매실 효소를 만들 것이고, 함께 요리를 하며 캠핑 활동을 해볼 예정입니다. 여전히 방과 후에 만나 아이들을 핸드폰과 게임으로부터 떼어놓고 밖에서 뛰어놀게 할 것이고, 저는 또 가족들을 집으로 초대해 그 준비를 아들에게 시켜볼 생각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함께할 배려심 깊은 저의 동기들과 그 아이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는 평범하지만 저희 가족은 자주 누리볼 수 없었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제주시 가족센터가 저와 제 아들에게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



위급 상황에서 생명의 천사가 되어준 멘토

짜응옥엔 서대문구가족센터

입국 초기 힘들었던 결혼 생활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되었고 이제 갓 태어난 1개월이 된 아들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같은 동네에 살았던 언니가 한국 남편과 결혼해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언니를 통해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한국 생활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한국어를 몰라 남편과의 대화, 시댁과 대화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님과 아가씨와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어 임신 후 한국 문화와 음식의 차이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서대문구가족센터를 알게 된 후 달라진 나의 생활

베트남 아는 언니를 통해 서대문구가족센터를 알게 되어 센터에서 진행 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정착지원사업-언니한테 물어봐'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베트남 통·번역사와 멘토 정** 멘토를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결혼 이민자가 멘토로 활동하며 초기입국한 이민자의 생활을 도와 주는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게 될 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언니한테 물어봐' 프로그램을 통해 두 멘토는 저에게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 한국 요리, 한국 문화를 알려주고, 한국의 공공기관이나 병원을 이용할 때도 통역을 도와주고 이용하는 방법들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지역 탐방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잘 알게 되어 친구들과 베트남 친척들에게 아름다운 서대문구에 있는 안산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체험 활동으로 사과농장을 다녀왔는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린 것을 처음 눈으로 보니 너무



신기했고 사과를 직접 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내가 살았던 고향 베트남 지역에서 사과는 보기 힘든 과일입니다.

한국어를 몰라서 외부 활동이 어려웠는데 멘토를 통해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었고, 프로그램 신청 방법, 후원 물품 수령 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의 정** 멘토와 센터는 힘들 때나 고민이 있을 때 찾아가서 편하게 이야기하고 살갑게 챙겨 주시는 덕분에 한국 생활에 외롭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새 생명의 천사 멘토 언니~ ^^

저는 임신 후 입덧이 너무 심해서 한국어교육과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멘토 언니가 저를 늘 생각해 주고 문자와 전화로 자주 챙겨주셨고,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과 관련한 정보를 안내해 주셨고 신생아 용품까지 챙겨주셨습니다.

2023년 4월 6일 오후 4시!! 저에게 큰일이 생겼습니다. 임신 39주 4일이 된 그날, 양수가 터지고 진통이 왔는데 남편은 버스 운전 중이라 연락이 되지 않았고, 시댁 식구들도 당장 병원에 같이 갈 상황이 안 되어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 멘토 언니가 달려와 주었고, 저와 함께 병원에 가서 저를 입원시켜 주고, 제가 진통과 출산 증상이 있을 때마다 의사 선생님에게 통역해 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병원에서 제 옆을 지켜주며 고통을 함께해 주고 외롭지 않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날 진통은 오후 4시부터 새벽 12시 30분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제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기다려 주었고, 드디어 기다리던 아기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아기의 땀줄을 멘토 언니가 직접 잘라 주었습니다.

그날은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납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난 후 남편은 새벽 1시에 퇴근해 그 이후에 병원에 도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아기가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은 센터의 두 멘토 언니들 덕분입니다. 친정가족이 없고 의사소통도 안 되는 이곳에서 언니들이 없었으면 나 홀로 출산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제가 퇴원 후에도 멘토 언니는 집에 와서 아이를 목욕시키는 방법과 신생아 관련 정보를 알려주었고, 제가 첫 출산이라 경험이 없어 많이 불안했는데 언니의 도움으로 육아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요즘 출산 후 산후 스트레스로 인해 시댁 식구와 갈등이 점점 생기기도 합니다. 제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멘토 언니가 늘 찾아와 주고 친정 언니 같은 진심 어린 조언으로 제 남편과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제 마음을 이해해 주고 엄마의 마음으로 보호해 주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서대문구가족센터의 ‘언니한테 물어봐’ 프로그램을 만나지 못한 채 지금까지의 과정을 혼자 해결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신 사랑과 관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서대문구가족센터는 저의 새 가족입니다.

저도 앞으로 많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언니처럼 멘토가 되어 신규 입국 결혼 이민자를 돕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는 그 도움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둘째 자녀 계획도 있고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센터는 우리 다문화 가정에게 없으면 안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단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이 있으면

행복해진다

홍나희 화성시가족센터

안녕하세요. 지적 장애 10살 딸아이 붐이를 키우고 있는 홍나희입니다. 제 나이 20살까지 저는 돈 많은 부모님 밑에서 부족한 것 없이 자라며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꾸던 서울 내 중상위권의 대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정치에 대한 꿈과 계속된 낙선으로 인해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준비 중이던 사법 고시를 접고 휴학한 후 캐디, 식당 서빙, 콜센터 등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25살이 되었고, 저는 남들보다 좀 더 억척스러운 청년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환경을 벗어나고자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서둘러 했으나 2년이 채 되지 않아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댁으로 들어와 아이를 키우게 되었죠. 아이는 문제없이 잘 자라는 듯했어요.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투잡, 쓰리잡을 하며 학교를 복학한 뒤 수업을 듣고 실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어릴 때 부터 핸드폰 영상을 보게 한 탓이었을까요? 아이는 3살이 되어서도 말이 안 트였었어요. 불안했지만 돈을 벌어야 했기에, '내년엔 관찮아지겠지, 좀 크면 관찮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저는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러다 지나치게 과로해서 였는지 스트레스 때문이었던지 아이가 6살이 되었을 무렵 뇌출혈이 왔습니다. 한 달 정도 입원 했고 죽을 뻔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이와 살아남기 위해 항상 '돈, 돈' 거리며 전전공공 조바심 내며 살아왔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아이의 말은 아직도 트이지 않았고, 생활이 더 나아진 것 같지도 않았습다.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이랑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굶어 죽진 않을 테니 좀 빠듯해도 아이랑 많이 놀러 다니고 더 놀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늦은 것 같았어요. 아이의 말은 여전히 트이지 않았고, 그동안 주위에서 가보라 했던 병원에 그제야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진단받은 '지적 장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은 더 좋은 머리를 가졌다고 자만했던 저와 전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의 지적장애가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픈 아이는 그 아픔을 받아줄 만한 부모에게 찾아온다고 하기에는 엄마로서 쉽사리 어떤 결정을 내릴 수도, 의욕이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이런 거구나. 참 부질없다. 불공평하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양읍 아동심리 센터에서 놀이 치료, 언어 치료는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썩 내키진 않았습니다. 역시나 늦은 감이 있었는지 아이가 쉽게 좋아지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더 빨리 오셨어야 했어요."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죄책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힘을 내서 집에서는 한글도 가르치고, 의욕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매일 한 시간씩 햇볕을 쬐며 산책하고 재즈나

뉴에이지 같은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제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공부를 가르칠 때나 봄이가 말을 안 들을 때는 너무나 답답해서 다 관두고 싶다는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한글은 빨리 읽을 수 있도록 배웠고, 점점 놀이 치료와 언어 치료 등에서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점점 희망이 생겼습니다. 선생님들이 “봄이가 아주 똑똑한 것 같아요. 다른 자폐 아이들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라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기뻛고, 더 열심히 봄이와 여기저기 여행 다니며 세상을 구경시켜 주었어요. 죄책감과 우울감은 여전했지만 타고난 긍정적인 성격과 강한 의지, 그리고 아이의 귀여운 애교로 점점 활력을 찾아갔습니다.

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하루에 번갈아가며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착석이 어렵고 돌발행동도 있었지만, 점점 착석도 되고 봄이의 학교생활은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공부도 다른 아이들보다 느리긴 해도 조금씩 따라갔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주면 봄이가 더욱 좋아질 텐데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를 고민하던 저는 산책하며 보았던 ‘화성시가족센터’ 현수막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고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센터에서는 아이에게 사랑의 시선을 가진 훌륭한 키움보듬이 선생님을 보냈고, 일주일여 한 번 2시간씩 봄이와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낯을 가렸던 봄이는 점점 선생님과 시간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봄이는 키움보듬이 선생님과 그림 놀이, 장난감 놀이, 한글 공부, 수학 공부 외에도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선생님의 따뜻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인지 점점 마음이 열리고 말이 늘었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오면 내가 가르쳐 주지 않은 단어나 문장을 봄이가 말할 때마다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또한 작년 가을에는 가족센터에서 주관하여 30명이 넘는 몇 쌍의 가족들이 다 같이 서울 롯데타워의 아쿠아리움 체험을 했고, 호텔에서 1박을 하며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강연도 들었습니다. 비슷한 환경의 가족들을 만나니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며 빨리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봄이에게도, 저에게도 오래도록 못 잊을 행복했던 추억입니다.

아이를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을까요? 가족 외에 접하고 있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훌륭한 어른들 덕분에 봄이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봄이가 계속 말도 못하고 저 상태이면 어쩌나, 내가 가고 나면 봄이는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걱정이었습니다. 장애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가 하는 걱정일 겁니다. 지금도 고민이 해결된 건 아니죠. 하지만 요즘은 자꾸 희망이 생깁니다. 분명히 헛된 희망이 아닙니다. ‘저게 되겠어? 안 될 거야’ 했던 과제들이 점점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혼자서 단추를 끼운다든지, 혼자 목욕을 한다든지, 리본을 맨다든지, 덧셈 뺄셈을 세 자릿수까지 한다든지, 두 자릿수 곱셈을 한다든지, 자기의 마음을 울지 않고 알아듣게 또박또박 표현한다든지, 외출 시 찾길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않고 규칙을 지킨다든지, 가게에서 카드로 물건을 계산한다든지 등….

분명 1년 전, 2년 전만 해도 안 될 것 같았던 것들이 화성시가족센터에서 연계해 주신 선생님과 계속된 교육과 훈련 속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성인이 되어 자기 밥벌이를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어엿한 어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지금까지 했던 걱정과 자책과 마음의 짐을 던지고 진정 환하게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희망이 점점 강해지기에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은 더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화성시가족센터를 알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천수

익산시가족센터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익산시에서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3년 차 한부모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10년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건강하고 정직하게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저는 홀벌이로 회사-집을 오가며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았고, 아이 엄마는 10년 동안 변화가 없는 늘 같은 일상과 육아에 지쳐 부족한 남편과 아이들을 떠났습니다. 당시 양육을 도와줄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아이들이 9살, 7살, 4살로 너무 어린 나이였기에 힘들다고 떠나 버린 아이 엄마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제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살아야 했고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역할을 해야 했기에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밤낮없이 일과 육아를 했습니다. 아이들 엄마에게서 양육비 지원이 전혀 없었기에 제가 직장에서 버는 돈으로만 생활해야 했고 매일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생활한 지 반년쯤이 지나고 학교 교육복지실에서 익산시가족센터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힘든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라고 들었지만, 온전히 우리 가족만 뚝뚝 뭉쳐 살아가던 공간에 다른 사람이, 그것도 이성이 오는 것에 처음에는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례관리가 진행되자 저와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동하게 되었고, 저와 아이들도 점차 마음을 열게 되면서 사례관리사 선생님과 만나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가족센터에서 진행되는 부모 교육, 요리 수업, 여행에도 참여할 수 있었고 개인 회생, 아이들 심리 치료, 가사·간병 서비스, 희망기움 적금, 양육비 소송 등 많은 정보와 서비스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은 직접 찾아와

때로는 친구, 누나, 동생처럼 세세히 신청하는 방법까지 설명해 주셨고 저희 가정의 어려움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학교생활도 잘하고 있으며, 게이트볼 대회에 나가 수상하는 좋은 결과도 보였습니다. 과거에는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해 왔다면 지금은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외부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를 통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와 아이들은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었고 서비스가 종료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와 아이들의 안부를 물어봐 주시는 익산시가족지원센터 하주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실이란 폭풍을 온몸으로 맞았던 그때의 저와 상실에서 벗어난 지금의 저는 똑같은 저이지만, 가족센터를 만난 후의 삶의 태도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이들이 아내와 엄마의 부재를 안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기대와 소망을 다른 방법으로 풀어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토록 저희 가정을 괴롭혔던 상황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었으며,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적 같은 일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례관리가 끝나고 저는 이제 아이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남아 있는 시간을 새롭고 재미있는 일들로 어떻게 꾸며 나갈지 매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저와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도 타인에게 베풀며 아이들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다면 가족센터를 통해 꼭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가치(같이) 산다:

혼자 사는 시간에 찾은 소중한 경험

최승혁 서산시가족센터

저는 직장 때문에 서산에 온 지 만 3년이 되었고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어느새 반복되는 일상 속에 무료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운 좋게 네이버 우리 동네 페이지에서 서산시가족센터의 '나 가치(같이) 산다'라는 홍보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중 5월에 열리는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에 가장 관심이 갔습니다.

평소에 요리를 즐기는 편이었지만 더 이상 새로운 시도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건강에 신경을 쓰는 편이라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좋은 식단에 관해서는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막연히 야채를 조금씩이라도 챙겨 먹자고 생각했지만 그조차도 자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산에 온 지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직장 동료들 말고는 지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이 저에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상대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서산시가족센터에 갔을 때 장난감 도서관, 강의실, 북 카페 등 여러 시설들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수업이 없는 날에도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요리실로 올라갔습니다. 요리실에 들어가니 선생님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서산에서 키토제닉 식당을 직접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요리를 하기에 앞서 선생님께서 키토제닉 식단이 무엇인지와 정제 탄수화물, 당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키토제닉은 처음 들어본 단어였는데 저탄고지와 유사한 의미였습니다.

당시 제가 여드름 치료를 위해 약을 바르던 중이었기에 정제 탄수화물과 당이 몸에서 염증을 일으킨다는 설명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정말 자주 먹고 있었는데, 설명을 들으니 식단에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을 마친 후 선생님은 직접 요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시간에 배운 요리는 두부 면을 이용한 볼로네제 파스타였습니다. 한식을 주로 먹는 저로서는 낯선 이름의 요리였고 두부 면도 이날 처음 접해봤습니다. 야채와 고기, 무설탕 소스들, 올리브유 등 건강한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조리 방법이 어렵지 않아서 따라하기도 수월했습니다. 조리를 끝내고 맛을 봤는데 두부 면의 식감도 새롭고 소스도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버터와 치즈의 향이 진해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평소 면 요리를 좋아하는데 정제 탄수화물을 줄일 생각에 아쉬웠다가 두부 면이 생각보다 맛있어서 집에서 꼭 만들어 봐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버거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햄버거여서 기대가 됐는데 빵이 없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대신 코코넛 가루, 차전자피 가루 등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는 코코넛 랩으로 대체했습니다. 두부 면과 마찬가지로 랩도 처음 봤는데 토르티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뭉쳐서 패티도 만들고, 코코넛 랩 위에 야채와 고기, 치즈, 소스를 올려서 버거를 완성했습니다. 햄버거보다는 샌드위치 같은 느낌이었고 약간 심심하지만 재료의 맛이 하나하나 다 느껴져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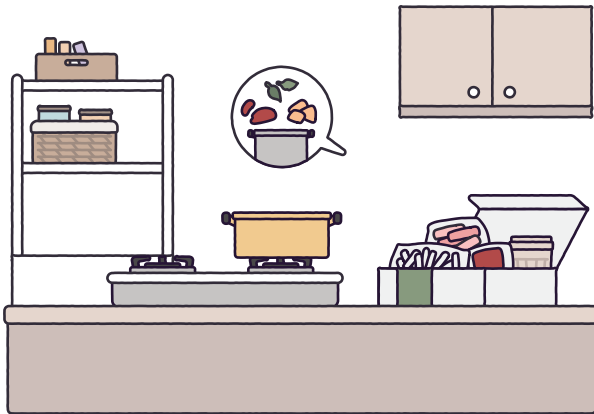
세 번째 시간에는 칵테일 만들기과 포틀럭 파티 시간이었습니다. 이전 수업들이 실습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강의 느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칵테일의 종류와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종류별로 만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체험해 보고 싶은 사람만 앞에 나가서 만들어 봤습니다. 각자 만들어 보는 게 아니라서 조금 아쉬웠지만, 칵테일에 문외한인 저에게는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과자, 과일, 치킨 등 각자 가져온 음식을 나눠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직업 군인으로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저에게는 다른 회사원들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사회에 여러 직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양한 삶의 형태가 있다는 것이 어쩐지 반가웠습니다. 직장 동료들의 비슷한 생활 패턴을 보며 미묘한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곁들인 새로운 사람들과의 즐거운 대화로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 했습니다.

세 번이라는 적은 횟수의 수업이었지만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새로운 지식도 얻었고 혼자라면 시도하기 어려웠을 요리들도 해보았습니다. 그저 끼니를 때우기 위해 음식을 먹는 1인 가구 중 하나였는데 이번 활동이 건강한 식단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첫 수업에서 정제 탄수화물의 부작용에 대해 알게 된 후 라면, 과자 등을 절제했더니 한 달이 조금 지난 지금 여드름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도 좋았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과 생각을 들으니 인생을 보는 시야가 조금은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고 기억에 남을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늘어나는 1인 가구를 위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지에서 혼자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니 안타깝게도 가족센터라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홍보가 더 활발해져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지인들과 함께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변화는 작은 신뢰로부터

이윤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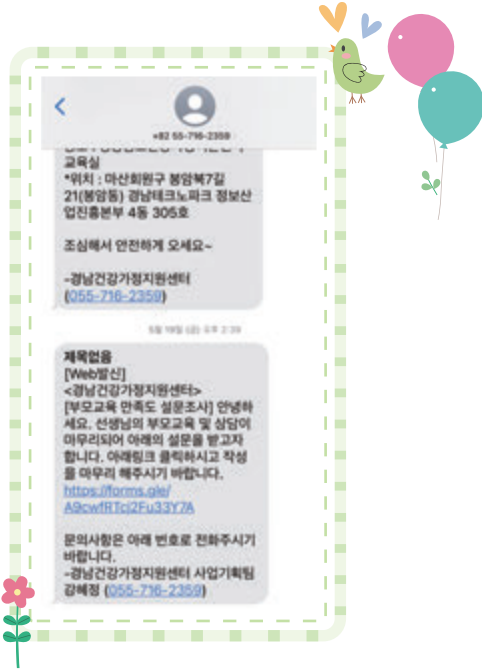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우리는 올해 결혼 5년 차로, 남들이 보기엔 화목한 가정이었다. 온순한 성품의 가정적인 신랑과 연년생 아들, 딸을 둔 지극히 평범하고 단란한 그런 가족. 하지만 신랑과 대화를 하면 늘 마음이 공허했다.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했지만, 심리적으로 힘들고 신랑의 위로와 공감, 지지가 필요할 때는 마치 벽을 보고 얘기하는 느낌이었다. 항상 채워질 수 없었던 나의 감정과 그 간의 연년생 육아로 지쳤던 몸과 마음이 결국 지난 3월, 신랑과의 큰 다툼으로 이어졌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워놓고 거실에서 빨래를 개며 신랑과 사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간 이것저것 힘든 일이 겹쳐 신랑에게 위로와 공감을 구했다. 하지만 신랑은 이야기를 듣는 동안 마는 듯 하며, 손으로는 빨래를 개며, 눈은 TV에 고정된 채, “그래, 힘들었겠네.,”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며 건성으로 대답하였다. 그 순간 나는 머릿속 퓨즈가 끊어진 것처럼 이성을 잃고 화를 내고 말았다. 신랑도 거기에 대거리를 하며 언성을 높이고 서로 욕설이 오갔고, 그 소리에 놀라 잠이 깬 둘째가 안방에서 울었다. 그래서 얼른 달려가 아이를 안고 달랬는데, 이불이 축축해서 보니 이미 배변 훈련을 다 끝낸 둘째가 부모의 다툼이 불안했던 것인지 이부자리에 배변 실수를 한 것이었다.

그날 다툼은 둘째를 달래고 다시 재우며 흐지부지 끝이 났지만, 부부 싸움은 나와 신랑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너무나 부정적인 영향과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신랑과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신랑에게 함께 부부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했다.



게다가 신랑과 다툰 후에는 점점 신랑의 손길이 닿는 것도 불쾌 했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싫어 졌는데, 그러다 정말 신랑과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순간이 올 것만 같았다.

신랑도 둘째 아이의 배변 실수에 놀라 부부 상담을 받는 것에 동의했다. 그 뒤로 나는 '경남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부부 상담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신청했고, 담당 선생님이 배정되면서 상담이 시작되었다. 상담은 3월 17일부터 5월 11일까지 8회에 걸쳐 진행되었고, 상담 선생님께 양해를 구한 후 점심시간에 상담을 진행하여 신랑도 회사와 동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참여할 수 있었다.

상담 과정에서 신랑의 몰랐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다. 나는 늘 신랑에게 공감을 받지 못해 외롭고 결핍이 있었던 내 마음만 볼 줄 알았지, 신랑의 마음을 보려 하지 않았다.

신랑도 자라면서 제대로 된 공감을 받아본 경험이 없고, 공감하는 법을 배워본 적도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상담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을 때, 처음으로 신랑도 나처럼 많이 외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울었다. 그리고 신랑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신랑도 내게 공감이 삶의 이유라는 것을 몰랐다면,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고, 우리는 상담 선생님 앞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공감의 대화를 시뮬레이션하고 연습하면서 점점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쌓아갔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러한 연습들을 이어 나갔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상담 몇 번으로 부부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거나 갑자기 신랑이 딴 사람으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서로에 대해 신뢰가 생기니 이상하게 신랑에게 섭섭하거나 화가 나는 일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부부 싸움을 할 때는 늘 각자의 이야기만 한다. 나도 신랑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는커녕 이야기도 들어보려 하지 않고, 상처 입은 내 마음만 알아달라고 했었다. 상담 선생님께서 신랑의 진솔한 속마음을 끌어내 주셨고, 그 이야기를 들어봄으로써 비로소 신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부부 상담의 효과인지 상담이 종료되고 한 달이 지나도록 다행히 신랑과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다. 부부 사이가 좋아지니 아이들도 한층 안정되고 밝아졌다. 이 평화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신랑과의 다툼이 그리 두렵지는 않다.

우리가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말이다. 순조롭고 매끄럽게 까지는 아니지만, 서툴고 어설프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 우리에게엔 이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 말이다.





희망으로 피어난

사랑하는 나의 가족!

뜨리고엠마 대구남구가족센터

저는 13년 전 캄보디아에서 시집온 다문화 여성입니다. 저는 언니 세 명과 오빠 두 명이 있는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제 가정은 몹시 가난하여 점심은 굶거나 물로 배를 채우곤 하였습니다. 당시 한국 지원 단체가 저희 마을에 와서 의료 지원과 취학을 포기한 아이들의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나중에 마을에는 한국 교회가 생겨났고 일요일마다 맛있는 점심도 제공해 주어서, 저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갔습니다. 점차 제 마음에는 한국에 대한 동경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20살 때 저는 지인의 소개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그토록 동경하던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주버님과 함께 축산업을 하였으며 저는 한국에 입국한 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축산업을 하는 남편의 수입은 꽤 쓸쓸한 듯 저에게 예쁜 옷이며 맛있는 음식이며 부족함 없이 주었습니다. 만이를 출산하고 이듬해 바로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귀여운 갓난 아들과 사랑을 아낌없이 주시는 시부모님, 성실한 남편, 뱃속에서 꿈틀 거리는 둘째 아이까지 너무 너무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주버님이 야반 도주했다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하룻밤에 모든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눌려앉게 되었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시부모님은 충격을 받아 연이어 돌아가셨으며, 그 당시엔 어떤 영문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우울한 분위기와 시부모님의 사망으로 제 생애 가장 슬픈 일이 일어난 건 사실입니다. 저와 남편은 남겨진 빛을 떠안고 대구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네 식구는 대구 생활을 원룸에서 시작하였으며, 새벽이면 남편은 일찍이 일터로 나갔고 저녁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저는 갓난아이 두 명과 함께 좁은 원룸에서 24시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집안 가구와 모든 전자 제품은 남들이 낡아서 버린 제품을 주워서 사용하였고, 힘들게 일을 하는 남편을 위해 최대한 아껴 쓰려 노력하며, 힘든 가운데 저는 집안 살림을 남편은 경제적 역할을 하면서 우리 가족은 오순도순 잘 이겨나갔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셋째와 넷째의 출산으로 저희는 여섯 식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어깨 부상으로 한동안 일을 못 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양육의 부담감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저는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잠을 이루지 못해 밤이 되면 혼자 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겠다는 심정으로 가끔 방문했던 남구가족센터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선생님께서 우리 집에 방문하여 어려운 상황을 보시고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첫째, 둘째의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보내 주셨고, 깨끗한 빌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자녀들의 새 옷을 지원해 주어서 아이들에게는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가족에게는 마음이 가장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센터 선생님은 종종 전화를 주시면서 무엇이든 친절히 설명해 주고 센터에도 놀러 오라고 합니다. 덕분에 저희 애들은 놀이공원, 수족관과 같은 여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었고, 매번 체험하고 나면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재미있고 신기하고 흥미로웠던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만이는 피아노 전국 경연 대회에서 두 차례나 대상을 받을 정도로 재능이 있는데 피아노 학원비가 없어서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센터 선생님의 추천으로 만이의 피아노 재능을 주제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많은 분의 지원으로 현재 피아노를 계속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하니 저 또한 웃음이 저절로 나오면서 덩달아 행복합니다.

센터 선생님을 통하여 같은 나라 언니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는데 오랜만에 캄보디아어로 마음을 나누다 보니 그간 답답했던 마음의 창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어려운 친구도 있다는 사실이 위로와 공감이 되면서 울고 웃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가족센터를 자주 방문하게 되었고, 같은 나라 친구들과 캄보디아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센터 프로그램도 함께 참여하면서 보다 즐거운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미용에 관심이 있었는데 센터 선생님이 알고 나서 저에게 미용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과정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현재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무료로 미용 기술을 배우고 있으며, 미용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미용사 일을 해서 그간 가족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일했던 남편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나아가 보려 합니다. 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남구 가족센터에서 따뜻하고 친절하게 다가와 주시고 칭찬과 응원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한국에 대한 동경심이 지금은 사랑으로 가득 찼으며 희망의 작은 씨앗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희망의 씨앗이 사랑으로 잘 자라 저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날이 다가오기를 기대하며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돌봄공동체’ 활동으로 내 아이에게는 마을언니, 마을동생이 생기고 나에게도 길잡이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박지현 대전광역시가족센터

‘상상마을학교’는 마을에서 아이를 건강하게 함께 키워보자는 뜻에 동의하는 부모들이 품앗이로 돌봄 활동을 해오다가 2018년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창립하게 되었다. 상상하면 이루어지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아이들이 이름을 지었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통합으로 운영되며 방과 후에 매일 만난다. 이곳을 찾는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와 자녀이지만 방과 후에 학원으로만 뱅뱅이 돌기 싫어하는 아이, 학교에서 개구쟁이로 이름난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상상마을학교’에 찾아온다.

2023년 3월, 부모들과 아이들이 ‘상상마을학교’, 그리고 ‘돌봄공동체’라는 낯선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곳에 찾아왔고 아이도 처음, 부모도 처음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동네에서 상상마을학교는 학원이나 공부방은 아니지만 방과 후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곳으로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곳, 엄마와 아빠의 참여가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학교 선생님이 상상마을학교를 추천해 주시기도 한다.

아이들은 마을학교생활 첫날이면 즐거워하고 이곳에 금방 반하지만 부모인 우리는 이웃과 관계를 맺고 함께 도우며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익숙하지 못하기에 처음에는 무척 어색하고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학교에서 봉사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과 친해지고 내 아이도 여러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서 내 아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도 생기게 된다. 그리고 마을학교 수업에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면서 보람도 느끼며 함께 키우는 돌봄공동체 활동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는 어느새 동네일까지도 솔선수범하며 거드는 활동가가 되어 있었다.



상상마을학교의 일상을 잠시 엿보자면, 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활동은 어린이들 스스로 진행하는 어린이 회의라 할 수 있다. 이 시간만큼은 모든 아이들이 진지하게 참여하며 빠지면 절대 안 되는 중요한 활동으로 여긴다. 아이들이 앉고 싶은 자리를 정하는 문제부터 지켜야 할 생활 규칙이며 프로그램까지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한 번씩은 차례가 되도록 순서를 정해 공정하게 진행한다. 고학년들은 잘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에 연습을 해오기도 하고, 저학년들은 언니, 오빠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이 쑥스럽지만 언니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며 자신의 생각으로 진행을 한다. 못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언니, 오빠들이 있어서 무사히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하고 싶은 활동도 제안하고 회의의 진행부터 정리까지 아이들 스스로 하고 협동하면서 아이들은 어느새 배움에 주인이 될 수 있다.

매일 만나는 아이들은 가족만큼 오랜 시간을 함께한다. 서로의 생일을 챙겨주고 때론 동생들을 위해 간식도 만들어주면서 아이들끼리 그렇게 서로 돌보며 초등학교 6년을 함께한다. 그렇기에 집에서 외동인 아이들이 마을언니, 마을동생이 생기게 된다. 아이들끼리의 공동체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상상마을학교’에서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저녁에 부모들이 직장을 마치고, 집안일을 바쁘게 마무리하고 모인다. 이 시간에는 아이들 이야기며 마을 학교 운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부모로서 힘든 이야기를 나누고 수다 꽃을 피우면서 상처도 치유가 되고 어려운 문제의 해답을 이웃이 주기도 한다. 어디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어 상상마을학교 부모 모임은 밤이 늦어도 끝나질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육아 문제 전문가를 모시고 싶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는데 올해는 대전광역시가족센터에서 상상마을에서 필요한 정보를 정성스럽게 안내해 주시고 가족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에 상상마을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또, 돌봄 주체로서 대전 지역의 다양한 돌봄공동체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어 사회적 활동의 영역도 넓어지며 사회적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올해는 네 명의 엄마들이 품을 내어 길잡이 교사로 활동을 하는데 엄마 선생님을 만나는 아이들이 참 좋아한다. 그러나 새내기 선생님임 엄마들은 하루하루가 땀이 흐른다. 작년에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따고 텃밭 수업을 하는 길잡이 교사는 현재는 아이들과 옥상에 텃밭을 만들고 매일매일 물 주고 가꾸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지만, 첫 수업 때는 아이들 앞에서 얼마나 진땀 흘리며 떨어던지 준비해 오신 활동을 다 못하고 끝나 버렸다. 끝나고 다시는 못하겠다는 엄마를 나머지 엄마들이 돕겠다고 설득한 끝에 다시 아이들 앞에 설 수 있었다.

지금은 나날이 상자 텃밭이 늘어나고 있다. 상추며 쑥갓이며 매일매일 작물이 자라는 즐거움과 수확하는 기쁨을 아이들뿐만 아니라 공동체 식구들 모두에게 선물하고 있으며 선생님을 따라하고 싶다는 동아리 활동까지 이어져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어느 날 길잡이 교사 회의에서 텃밭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였다. “경쟁에서 이기려고만 하는 사람들, 이득이 되지 않으면 만나지도 않는 사람들 틈에서 맘 터놓고 이야기할 곳도 없었어요. 그런데 상상마을에서 함께하면서 매일 오고 싶고, 저는 아이가 하나여서 몰랐는데

아이들이 여럿이 함께하는 것이 기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꾸 하고 싶은 것들이 늘어서 즐거워요. 물론 몸은 힘들지만요. 우리 아이에게도 동네 언니가 생기고 동네 동생도 생기는 선물 같은 일상입니다. 저에게도 아이 엄마가 아닌 제 이름을 찾을 수 있고 길잡이 선생님이요 이름이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아이도 성장하고 부모도 성장하는 돌봄공동체 활동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유지되기 위한 중요한 활동이라 확신한다. 그렇기께 보다 많은 부모들이 겁먹지 말고 시도해 보길 권한다. 이러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전광역시가족센터, 돌봄 유관기관, 지자체의 관심과 도움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앞으로도 대전광역시가족센터의 맞춤형 돌봄 지원을 통해 공동체에 오는 다양한 돌봄의 욕구도 해결하고 활동하는 부모와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돌봄 친화적인 문화가 되길 바란다.





우리 가족 해방 일지

모희

용산구가족센터

‘한부모’라는 단어가 익숙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을 굳건히 세우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딸아이 3살 때 도박 중독이라는 병을 함께 이겨내기엔 더 이상의 신뢰가 남아 있지 않아 홀로서기를 결심하고 한부모로서의 엄마 역할이 시작되었다. 시간을 견디어오는 동안 아이와 나는 전쟁터에서 살았다. 그 전쟁을 이겨 나감에 주체가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도박 중독인 전 남편의 빛에 허덕이기만 했다. 혼자 아이를 키우려면 돈을 벌어야 했기에 가족의 따스함을 느끼는 시간보다 짜증과 화가 어우러진 시간만을 보냈다. 그렇게 9년의 시간이 흘러 아이는 어느새 12살의 사춘기가 되었고, 아이는 케어 받지 못한 마음을 핸드폰이라는 도구에 투영하고 있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 돈보다 마음에 치중하려고 노력하던 차에 작은 포스터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 가족 해방 일지’. 부랴부랴 신청을 했다. 핸드폰만 바라보는 아이에게 마냥 화만 냈던 미안한 마음과 엄마의 화를 고스란히 받아먹고 자란 힘든 딸과 나에게 진짜 ‘해방’을 외치고 싶었다. 해방하기 전에 내가 있는 지금의 위치에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드림스타트의 지원으로 심리 치료를 받으며 상처 난 마음을 들여다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실천하지 않아 그대로 방치하는 바람에 아물지 못한 상처들이 더욱 또렷하게 보였다. 나와 같은 상처를 안고 사는 한부모 엄마들을 만난다고 하니 다소 움츠러들기도 했지만 용기를 내었다. 진심으로 우리 가족의 해방을 외치고 싶었다.

집 안에 있기를 유독 좋아하는 딸아이를 겨우 달래서 첫 번째 프로그램인 아쿠아리움 견학에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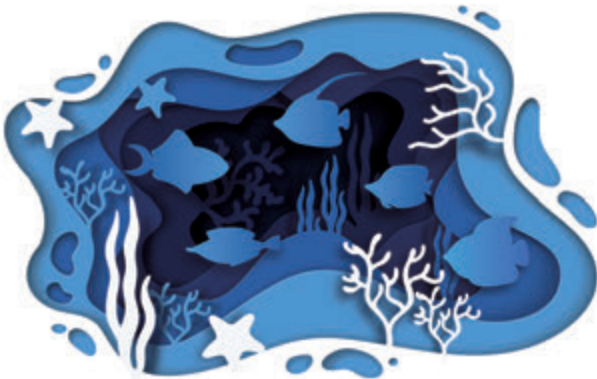
“유나는 바다 깊은 곳에 있으면 어떤 느낌일 거 같아?”

“엄마, 나는 엄마랑 같이 있으면 어디라도 좋아.

벨루가가 예전엔 두 마리였는데, 지금은 한 마리라 외로워 보인다.”

아이는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받아줄 만큼 내 마음에 여유가 있지 않았다. 해방이라는 단어 앞에 가장 먼저 줄을 선 건 ‘외로움’이었다. 어긋난 결혼 생활에서 많이 느꼈던 ‘외로움’이란 단어를 아이의 입을 통해 듣자 나도 모르게 입술에 힘을 주고 어금니를 굳게 물었다.

아쿠아리움의 크고 작은 여러 수족관 속의 물고기들은 함께 혹은 따로 유유히 헤엄을 쳤다. 무리를 지어 다니는 작은 물고기들과 혼자 다니는 커다란 물고기들이 심상에 들어왔다. ‘한부모인 엄마들은 큰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작은 물고기처럼 작은 마음으로 큰 세상을 헤엄을 쳐야 하니 힘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마음이 전달되었는지 잠실 아쿠아리움에서 가장 큰 수족관에 있는 벨루가는 내 가슴 바로 앞에 와서는 눈을 깜박거리며 잠시 머물더니 빠르게 왔다 갔다 했다. “나도 혼자지만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너에겐 너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딸이 있잖아!” 하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용산구가족센터의 선생님께서는 작은 것 하나까지 아주 섬세하게 배려해 주셨다. “먹고 싶은 것을 골라보세요!” 하고 준비해 주신 점심 속에는 존중이 들어 있었다. 작은 선택의 존중. “뭐가 먹고 싶어요?”라는 말이 무척이나 낯설어서 고르는 데 한참 걸렸다. 스스로에게 뭐가 먹고 싶은지 물어본 적도, 나에게 뭐가 먹고 싶은지 묻는 사람도 오랫동안 없었구나! 그래서 그 말이 낯설었구나! 하는 마음에 진짜 먹고 싶은 ‘냉면’을 주문하고 기다렸다. 먹고 싶은 것보다 먹는 행동에만 그래서 배만 채웠던 우리 모녀는 작지만 소소한 행복을 마음껏 누렸다.

한 주가 지나고, 두 번째 프로그램을 참여하러 갈 준비를 했다. 딸은 또 멀리까지 가야 하는 것이냐며 투덜거렸다. 하지만 나는 낯선 곳을 찾아가야 한다는 부담감에 네이버 지도를 살펴보느라 바빴다.

‘양쪽 날개를 가진 아이들과 한쪽 날개를 가진 아이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란 질문을 두고 생각에 잠겼다. 엄마의 마음에 없는 것이 아빠의 마음에 있다면 그것을 둘 다 받는 아이와, 한쪽 마음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한부모를 둔 아이들의 외쪽 마음이 느껴졌다.

지도를 보며 열심히 찾아갔지만 낯선 곳에서의 발걸음 때문에 지각이었다. 아이들은 샌드위치를 만드는 방으로 가고, 부모들을 부모 교육을 받는 곳으로 안내받았다. 이미 그곳에 모인 엄마들끼리 자신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끝나, 내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했다. 각자의 상처를 마음에 안고 살아가는 엄마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내 사전에 ‘이혼’이라는 단어보다 ‘사별’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싶었던 마음도 여러 번 있었는데, 막상 사별로 남편을 잃은 분들을 마주하니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더 큰 슬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 자리를 이겨내야 하는 아이들의 마음도 고스란히 다가왔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나의 아픔을 알기에 그들의 아픔이 더 이해되었다.

다음은 자신의 인생 곡선을 그려보라고 했다. 나는 마흔일곱이 되기까지 인생 곡선을 두 번 그려보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는 인생 곡선에서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언제나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작되는 미래의 인생 곡선은 위로 향하는 상승 곡선이었고, 첫 번째 그렸을 때보다 점점 눈물을 줄어드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마루 관계 연구소 소장님은 그 눈물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얻는 방법을 코칭해 주셨다. 소장님이 직접 겪은 부모의 이혼을 통해 내가 겪어보지 못한 딸아이의 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부모의 이혼’에 대해 유나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소장님은 아이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갖길 소망하셨다. 아이에게도 부모에게 말하지 못한 그 마음을 알아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다. 대화는 언제나 어렵지만 ‘나’ 중심이 아닌 마음을 알아주고 격려해 주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은 아이들이 가장 먼저 알아차릴 것이라는 것도 알려주셨다.

유쾌한 에너지를 가득 받아 돌아온 아이의 얼굴에서는 편안함과 미소가 조금 더 느껴졌다. 엄마를 위해 만들었다는 샌드위치를 건네받았다. 코칭 받은 대로 “고마워!”라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해방을 위해 필요하다며 줄을 선 단어는 ‘감사’였다. 아침에 일찍 서둘러 오느라 다투었던 어색한 마음이 조금 풀렸다.

“엄마, 바다는 언제 가?”
세 번째 참여는 딸아이가 먼저 재촉했다. 또 집에 있고 싶다고 하면 어찌나 하고 걱정하던 내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아니면 두 번의 경험이 좋았는지 엄마랑 바다에 가고 싶다며 딸은 토요일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나 어김없이 청량리로 향하는 아침부터 다툼이 시작되었다.
“엄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내가 우산을 찾으려면 같이 좀 찾아주면 안 돼?”
애써 지난주 배운 감정 읽기를 시도해 보지만, 쉽지 않다.

“엄마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다려 준 건데, 섭섭했구나?”

어색함은 기차를 타고도 이어졌지만, 창문 밖으로 바다가 보이니 둘의 마음은 어느새 녹아 버렸다. “우와!”를 함께 외치며 빨리 내리고 싶은 마음을 발견하곤 서로 눈을 마주하고 웃었다. 기차에서 내리면 바로 바다인 것이 너무 신기했다. 그리고 정동진 맛집에서 점심을 먹고 계획된 레일바이크를 탔다.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해!”

“아니야, 엄마! 뒤에서 빨리 따라오잖아. 속도를 맞춰야지. 그리고 신나게 가야지!”

40분의 함께한 레일바이크에서 겁과 용기의 대결이 벌어졌다. 아이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자랐고, 용감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늦게 가는 이유를 알아채고는 함께 깔깔거리고 웃었다.

“저 앞에 할머니, 할아버지 힘드시겠다. 계속 발로 페달을 밟아야 하니까. 여기 버튼을 누르면 썩~ 하고 갈 수 있는데.”

“엄마도 유나 많이 힘들게 했지? 그동안 엄마 마음 챙긴답시고 네 마음은 안 알아주고, 좋아하는 인형 놀이도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

“응, 나 많이 힘들었어. 그래도 엄마가 있어서 좋아!” 하며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엄마도 유나랑 함께여서 좋아. 유나가 아니었으면 겁이 많아서 버튼은 못 누른 채 페달만 밟느라 힘들었을 텐데. 유나 덕분에 용기 내서 쉽고 빠르게 갈 수 있잖아.”

시간박물관은 오래된 긴 기차를 개조해서 만들어졌다. 긴 기차에 탑승해서 내리기까지 여러 가지 모양의 시계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진 역사가 담긴 시계와 그 시계 안에 담긴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금 이 시간이 오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멈추지 않고 달려온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하루를 살 것인지, 아니면 딸아이가 레일바이크에서 보여준 대담함으로 현재를 살 것인지. 바다를 보며 느껴지는 것이 많았다.

돌아오는 길에 촉촉한 비가 내렸다.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은 가족을 위해 선뜻 내 우산을 내어주고, 딸과 더욱 가까이 붙어서 하나의 우산을 썼다.

마음과 마음을 마주하며 든든한 엄마 우산이 되고 싶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겠지만 ‘서로를 이해하고자 노력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잘 살아볼 용기를 준 선물 같은 여행이었다.

해방을 외치려면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하니 ‘용기’라는 단어가 입에 자석처럼 달라붙었다. ‘외로움’, ‘감사’, 그리고 ‘용기’. 해방을 위해 우리에게 다가온 세 가지 단어를 주머니에 꼭꼭 담아왔다. 한쪽 날개를 잃은 채 지내온 사춘기 딸아이를 위해 담아온 마음이다.

‘우리 가족의 해방’이 날개가 되어, 없어진 한쪽 날개를 새로 붙여준 느낌이다. 용산구가족센터에서 붙여준 작은 날개가 조금씩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니 흐르던 눈물이 멈추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우리 가족의 특정한

뿌리가 된 '24시간'

노민 성동구가족센터

요즘, 우리 집은 밥상에서 다들 신나게 웃거나 심하게 다투어도 한 사람만 반응이 없습니다. 언제부터일까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12살 큰딸, 4학년 11살 큰아들, 1학년 8살 작은아들, 100일 된 막내딸, 한국어를 잘 못하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몽골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를 배우기도 했고 한국에서 오래 살며 학교를 다녀 한국어와 몽골어를 모두 잘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 결혼한 후 30대에 한국에 살게 되어 아직도 한국어가 많이 서툰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요즘 밥상에서 다들 신나게 웃고 떠들어도 한 사람만 반응이 없습니다. 아빠가 아이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 언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 말을 걸어도 아이들이 “뭐라고? 무슨 말이야?” 라며 대화에서 멀어지니 아이들은 말도, 마음도 공감해 주지 못하는 아빠와 점점 사이가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는 답답하니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게는 몽골어를 사용할 것을 강요하고, 아빠에게는 한국어를 사용할 것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렇게 대화도, 마음도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커갈수록 두려운 마음도 함께 커졌습니다. 한국어와 몽골어가 아빠와 아이들의 사이를 멀어지게하고 우리 가족을 점점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 답답하고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는 스스로에게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갈등과 속상함이 깊어지고 있을 때 ‘성동구가족센터의 부모-자녀 이중 언어 상호작용 프로그램’의 홍보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내 글과 안내지를 살펴보니 아이들이 단순히 부모의 모국어를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이 겪는 가족 간의 언어 갈등, 이로 인해 오는 부모와 자녀들의 상호작용 문제까지 함께 배우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상황과 갈등이 잘 전달될까?’, ‘내가 원하는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이중 언어 코치 선생님, 센터의 주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제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특히 100일 된 아기까지 네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에 참여해야 하는 저의 상황이 좋은 프로그램의 참여를 포기하게 만들까 조심스러웠습니다.

선생님들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세 명의 아이들을 첫째는 혼자, 둘째와 셋째는 함께하도록 두 그룹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 동안 100일 된 아기의 돌봄까지 걱정 없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편히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조율부터 부모 상담, 세 명의 아이들과 번갈아 참여하는 상호작용

프로그램, 그 사이 자녀들의 이동과 돌봄, 100일 된 아이의 돌봄까지. 참여 과정 하나부터 열까지 같이 고민해 주시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주신 센터 선생님들의 깊은 도움에 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다문화 가족들이 직장, 학원 때문에 센터 선생님들의 퇴근 시간 이후, 주말에 참여했어야 했음에도 센터의 선생님들은 참여하는 가족들을 가장 먼저 생각해 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3시간씩 8번, 24시간 동안 상호작용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가족이 한국어, 몽골어로 의사소통하는 모습,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코칭해 주었습니다. 저도 몰랐던 우리 가족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객관적으로 들었고, 어떤 것을 잘하고 있는지, 주의해야 하는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 집에서 같은 부모에게 자란 세 명의 아이들이지만 각자 부모와의 관계, 언어와 의사소통에서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 사춘기의 변화와 문제, 자녀가 많은 가정에서 아이들끼리의 잦은 다툼, 소외감과 행복함을 느끼는 부분이 모두 다 다르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가족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이해하고 공감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성동구가족센터는 한양대학교 아동심리학과 박사 과정 선생님과 함께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심리 검사, 양육태도 검사를 함께해 주고 전문 지식, 교육 등을 함께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한 ‘24시간’과 ‘성동구가족센터 선생님들의 따뜻하고 진실한 마음’은 어떤 비용을 지불해도 아깝지 않다고 느낄 만큼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중 언어 상호 작용’ 프로그램의 경험과 이중 언어 코치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가족의 대화, 상호작용에 대해 자주 모여 이야기하며 부모와 아이들이 느꼈을 스트레스와 서운함을 나누고 서로에게 한 걸음 더 다가 갑니다. 또 우리 가족만의 규칙과 속도로 한국어, 몽골어로 소통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네 명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각자 아이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공간을 분리하여 규칙을 만들어 아이들 간의 잦은 다툼도 줄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매주 월요일을 가장 기다렸습니다. 끝나고 가족이 함께 집에 가는 길이 어찌나 행복하던지요.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들에 따라 엄마와 아빠는 말과 행동을 조금씩 바꾸기 위한 노력의 시작은 엄마인 바로 나여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동구가족센터에서 만난 이중 언어 상호작용 프로그램은 우리 가족의 '언어의 벽'에서 시작한 '관계의 벽'을 허물어 주었습니다. 2023년 4월, 5월 많은 분의 도움으로 함께한 '24시간'은 우리 가족의 튼튼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여유 속에서 함께 걷자

유영
도봉구가족센터

저는 혼자 산 지 6년이 된 청년 1인 가구입니다. 올해가 시작될 무렵, 혼자라는 사실이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허전함을 느끼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 뉴스에서 1인 가구 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는 정보를 접하였습니다. 반갑고도 궁금한 마음에 정보를 찾아보니, 제 눈길을 끈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꽃 필 때 걷자’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꽃 필 때 걷자’는 1인 가구 청년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이 함께 모여 산책하며 도봉구의 봄을 느끼고, 동네 친구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저는 동네에 아는 사람 한 명 없이 혼자 사는 1인 가구였기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동네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용기 내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낮을 가리는 성격이다 보니,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까 걱정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두려움 반, 설렘 반의 마음을 안고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무색하게도 저는 금세 프로그램에 빠져 들었습니다. 진행을 담당하신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는 처음 뵙는 분들임에도 다들 어색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산책을 하며 대화를 하다 보니 평소보다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들 청년이자 1인 가구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서로에게 공감하며 대화의 물꼬를 터 나갈 수 있었습니다.



모두의 배려 덕분에 앞으로 진행될 회기에도 꾸준히 참여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2회차에는 함께 모여 도봉구 내에 위치한 역사문화길과 한옥도서관을 다녀왔습니다. 근처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이웃이 없다 보니 동네를 탐방할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는데, '내가 사는 지역에도 이렇게 멋진 시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옥도서관에서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도서관에서 과거의 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본래 저는 책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 지쳐 어느 순간부터 책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옥도서관의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책을 고르다 보니, 책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던 어린 내가 떠올랐습니다. 그간의 세월이 아쉽기도 하고, 내게도 위로가 되는 존재가 있었구나 하는 마음에 벅찬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책을 읽으며 행복해하던 과거의 나를 만나고, 내게 힘이 되는 존재를 다시 찾을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처럼 프로그램이 인상 깊다고 느낀 분들이 많으셨는지, 3회차에는 더욱 많은 인원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새로운 분들과도 인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들은 다 함께 모여 LP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LP 도서관이 위치한 창동역 근처를 자주 왔다 갔다 했지만 먼발치에서 바라만 보았을 뿐 한 번도 공간을 이용해 볼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로 난생처음 LP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LP 특유의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들으니 기분이 나른해졌습니다. 동시에, 그간 쉴 틈 없이 직장과 집만을 오갔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나 자신을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는 자연스럽게 참여자들과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다들 서로의 취향에 맞는 음악을 들으며 한숨 돌리는 시간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했고, 모두가 비슷한 감정을 공유했다는 사실이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4회차에는 우이천에 저녁 산책을 나갔습니다. 벌써 네 번째 참석이어서 처음 산책할 때보다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꽃은 많이 떨어졌지만, 꽃이 진 자리에 녹음이 가득 채워지고 있어 선선한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새 많이 친해진 동네 친구들과 함께 이 계절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동적이던지, 우이천의 풍경과 감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프로그램이 종료되기까지 벌써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아쉬움도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회차에는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볼 수 있는 포토북 만들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센터 측에서 사진과 각종 꾸밀 수 있는 도구들을 많이 준비해 주셔서, 오랜만에 미술 활동도 하는 소소한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포토북을 만들며 지난 활동들을 돌아볼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포토북을 통해 앞으로도 이 추억을 회상할 수 있다는 사실에 꼭 값진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꽃 필 때 걷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너무나도 소중한 생각과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옥도서관에서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나기도 했고, LP를 들으며 온전히 여유를 즐기는 시간을 나에게 선사하고 싶다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1인 가구 청년층과 '함께' 모든 일을 했다는 점이 제게는 가장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따로 또 함께'라는 말처럼, 서로 다르면서도 동시에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도 배우고, 함께하는 데서 오는 행복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낮가림으로 남들과 함께 어울려야 하는 프로그램은 잘 참여하지 않는 저로서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른 관계를 맺어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신 도봉구 1인 가구 지원센터와 '꽃 필 때 건자' 참여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병원

권현미
수성구가족센터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들어서도 알고 주변에서 많이 봐서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직접 겪어보니 그것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다.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사람 되게 키워낸다는 것이 너무나 험난한 길임을 알게 되었다. 먹고 자고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도 제대로 나의 의지대로 할 수 없을 지경으로 아이들은 엄마라는 나를 가만두지 않았다.

나는 네 아이의 엄마이다. 처음부터 네 명의 엄마가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다. 세 아이를 키우면서 가정에만 몰두하고 살다 보니 내가 없어진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하던 차에 셋째가 4살이 되었다. 셋째가 처음으로 어린이집을 가려던 3월에 나도 예전에 하던 일을 하게 되어 아이와 나, 그리고 가족이 서로의 새로운 시작에 한껏 부풀어 있었다.

두어 달이 지나는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적응해 가고 있던 어느 날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넷째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다.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을 다시 시작했는데 또다시 한동안 일할 수 없음에 매일같이 눈물이 났다. 내가 일하는 동안에 어린 아기를 도맡아서 봐줄 다른 보호자가 없었기에, 운전대만 잡으면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났고 힘들었지만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중에도 마음속에는 늘 다시 일이 하고 싶었다. 사실은 일이 하고 싶은 건지, 네 명의 아이를 양육하며 보낸 시간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 아니면 예전처럼 누군가에게 일을 통해 인정을 받고 싶었던건지도



모른다. 아이를 너무나 좋아 해서 육아를 하는 것은 내 성향과 맞았으나, 아이가 커 갈수록 내 이름이 서서히 지워 지고 네 명의 아이들이 나를 “엄마, 엄마, 엄마~” 하며 여기 저기서 부르다 보니 나조차 내 이름을 소개하는 일이 없어 지게 되는 건 슬펐다.

막내가 4세가 될 무렵, 다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다. 일이라는 것은 참 보람이 있었지만, 네 명의 아이가 번갈아 가며 아프고 사건사고도 많이 생기는 바람에 출퇴근을 하면서 아이들을 감당한다는 건 불가능이었다.

결국 소속된 곳에서 나와서 프리랜서로 시간을 조율하며 일을 하게 되었다. 마음과 머리에서 시키는 지시가 달랐다.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리와 아이를 적극적으로 감당해 나가며 ‘양육해야 된다.’는 머리의 지시가 달라서 혼란스러웠다.

아이를 차에 태우고 가던 길에 사거리에서 빨간 신호에 걸려 멈춰섰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우연히 대구수성구가족센터에서 실시한 '심화 부모 교육 - 감정코칭' 프로그램의 현수막을 보게 되었다. 대상자와 교육 내용을 보니 나를 부르는 듯했다. 프로그램의 시간이 저녁이라서 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엄마가 강의를 듣는 동안 보육을 해주신다고 하여서 마음 편히 시작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수업은 예전부터 종종 읽었던 '감정코칭' 책을 기반으로 강사님이 다른 학습자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감정코칭을 배워서 아이에게 적용하는 것! 하지만 정작 나의 감정은 누가 코칭해 주어야 하는지, 늘 궁금하고 답을 찾던 차에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되었다.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연습을 통해 감정을 다독이는 감정코칭을 '스스로'에게 해보라고 하셨다.

가족을 위해서만 내 몸을 움직이고 생각하며 살던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나의 마음에 집중하게 된 수업 시간은 매주 감동이었다. 내가 나를 잘 돌아보는 방법을 배우니, 내가 무엇을 좋아했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나에게 대해 알게 되었다. 또한 예전 같으면 표현하지 않고 지냈겠지만 내가 뭘 좋아 하는지 무엇을 하면 행복한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나가게 되며 주변에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에게 당당해져 가는 나의 모습에 기분이 좋아졌다.

강사님이 해주신 강의 내용 중에 가장 좋았던 것은 '가족 구성원 각자의 장점 50가지 적기' 활동이었다. 장점 쓰기를 과제로 제시하자 여기저기에서 개수가 너무 많다고 아우성이었다. 어떤 이는 아이가 둘이라서 100개를 써야 한다고 했고, 어떤 이는 150개를 써야 한다고 했다. 나는 200개를 써야 했다. 하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각 아이마다 50가지의 장점을 찾으려 노력했고 그 숙제를 발표하게 되었다. 장점을 쓰면서 느낀 점은 억지로나도 장점을 만들어 내다 보니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아이의 '우유부단한 성격도' 깊게 있게 생각한다.'라는 관점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번 활동 덕분에 아이와의 관계가 한층 가까워졌고, 남편에게도 50개의 장점을 써서 건네니 기분이 좋았다. 남편 또한 자신의 장점 50가지를 하나하나 읽으며 뿌듯해했고 웃는 얼굴로 출근 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대구수성구가족센터에서 진행해 주신 ‘심화부모교육 - 감정코칭’ 수업은 내 인생에서 ‘내 마음의 병원’이라 할 수 있다. 예전에는 내 마음의 폭이 웅달샘 정도였더라면, 수업을 듣고 감정을 코칭하는 법을 안 후에는 강물처럼 흘러흘러 갈 만큼 많이 넓어졌다. 무엇보다 가족도 나로 인해 행복이 전염되었기에 이보다 좋을 수 있을까 생각한다.

내 마음의 병원을 종종 찾아가서 예방 교육을 듣고 싶다. 그리고 이런 귀한 사람 살리는 사업을 준비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해 드리고 싶다.





나의 행운,

한국에서의 삶

김폴리나 사천시가족센터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김폴리나라고 합니다. 저는 고려인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강제 이주를 당한 대한민국의 교포입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24살이 되던 2018년에 가정을 꾸리러 남편의 고향인 대한민국 사천으로 함께 왔습니다.

처음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떠날 때 평생을 엄마와 함께 살다가 갑자기 엄마가 없는 곳에서, 심지어 외국에서 살 생각을 하니 우울하고 무서웠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제가 살던 곳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을 만난 것 같습니다. 예쁜 건물들과 아름다운 자연과 친절한 사람들이 있어서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 제 주변은 모두 남편의 지인과 친지들밖에 없었고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공장 일이나 아르바이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저는 제 고향에서 쌓았던 정규 학교 교사로서의 경력이 너무나 아깝게 느껴지며 이곳에서 나의 일을 찾아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며 자신감마저 떨어졌습니다.

우울해하는 저를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은 자기가 도와주겠다며 함께 한국어 공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어 실력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지만 꿈이나 목표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다니며 일을 열심히 했지만 저는 집에서 주부 역할만 하고 있어서 사회적 활동이 단절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던 중 사천시가족센터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곳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이주민들과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다 보니 저도 사회의 일원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 모여 한국어를 공부하며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함께하다 보니 집에서 혼자 한국어를 공부할 때보다 훨씬 힘이 났습니다.

사천시가족센터에서 총 두 번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나니 자신감과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로 인해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향에서처럼 전문직은 아니었지만, 한국에서 첫 경제 활동을 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보통의 현대인들처럼 저와 제 남편도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겁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교육의 문제 등 아직 겪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쉽사리 아이를 가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함께 산 지 4년쯤 됐을 2022년 1월에 저희는 더 이상 두려워하기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임신을 했습니다.

남편은 고향에 계신 제 엄마와 제가 걱정된다며 저희 엄마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오시게 되었습니다. 친지 방문 목적의 비자인 f-1-5를 발급받고 엄마가 한국에 오셨을 때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엄마와 저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번역해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때 사천시가족센터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서류를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엄마가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매번 외국인으로서, 이주민으로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미 준비된 듯이 저를 도와주시는 가족센터는 이제 제 마음 한 편에 위로와 응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시는 가족센터의 관심과 노력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작년 12월에 한국인 아빠와 카자흐스탄인 엄마 사이에서 저희 딸이 태어났습니다. 두 나라의 언어를 모두 배우고 다문화 가정의 아이로서 대한민국에서 자연스럽게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족센터의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관심조차 못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저에게 큰 행운이고 행복입니다.

앞으로 더욱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른 이주민분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 생각과 표현 방법들로부터 생겨나는 많은 갈등을 일일이 들어주고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해 주시는 가족센터의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새로운 가족은

정읍시 공동육아 나눔터

사토 나나에 정읍시가족센터

저는 일본에서 온 결혼 이주 여성입니다. 남편은 한국 사람입니다. 자녀를 셋 낳고 가족 다섯 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시집와서 아이를 낳고 육아하는 데 누군가에게 의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려 해도 시댁은 너무 먼 거리에 있습니다. 남편은 일 때문에 거의 집을 비우기 때문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급한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가 “다른 한국 엄마들은 알아서 하는데 너도 알아서 해!!”라는 소리를 듣고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자녀의 일인데 왜 내가 혼자서 다 해야 하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외국인이라서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혼자 대처하면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혼자서 해결합니다. 그렇게 저를 한국에서 강한 엄마로서 살게 도와준 것이 정읍시 가족센터 안에 있는 작은 방 ‘공동육아나눔터’입니다.

제가 사는 전라북도는 아직도 남성은 일만 하면 되고, 여성은 가사와 육아, 농사, 일 등 할 것이 많아서 매우 바쁩니다. 전라북도의 모든 가정이 그렇지 않은 것만 제가 아는 결혼 이주 여성의 가정은 꽤 많습니다.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살았던 20세기의 일본은 현재 한국의 환경과 매우 비슷합니다. 저는 2005년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7살 연상인 남편과 결혼 18년 차이지만 지금도 물 하나 직접 떠서 마시지 않습니다. 남편은 ‘남자라는 점’, ‘일해서 돈을 번다는 점’으로 명령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생각은 시급이 발생하는지 안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고, 집안일은 여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아내는 바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온종일 아이들을 돌봐도 노는 사람이고, 아이들이 집 안을 어지르면 제가 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업을 갖겠다고 하면 “아이의 정서를 위해서 만 3살까지는 엄마가 봐야 한다.”라며 밖으로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성별과 관계없이 자기 일과 집안 일을 함께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18년이 됐지만, 남편의 생각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어느 한쪽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부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부부는 서로 존경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면 됩니다. 하지만 제 주변 가정은 아직도 여성들의 희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여성이 직장을 다니는 것도 당연합니다. 한국에서는 여성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슈퍼우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힘듭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인 내가 슈퍼우먼을 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언어, 요리, 환경, 한국의 습관, 문화 등 외국인이 모르는 것들뿐입니다. 육아에 대해서도 병원, 교육, 지원, 학교, 운동 등 정보가 부족합니다. 남편에게 “한국 엄마들은 알아서 잘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나의 모든 것이 부정당한 느낌이 들어서 슬픕니다. 제가 변하려고 해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등을 토닥토닥해주는 곳이 ‘정읍시 공동육아나눔터’였습니다.

폼앗이 팀을 신청해서 ‘공육(공동육아나눔터)’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 엄마들은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기 위해서는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또래인 아이들의 일본 엄마들에게 “폼앗이 육아를 같이하자.”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외 두 가정이 함께 신청했습니다.

폼앗이 육아는 이 지역에 사는 다문화 가정과 비다문화 가정 모두가 대상이었습니다. 폼앗이는 한국 엄마들 위주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거나 서류가 다 한국어라서 어려웠기에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육 선생님이 폼앗이 설명을 친절히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폼앗이는 육아를 모두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엄마가 혼자서는 어려운 육아를 서로 협력하며 지탱해 나가기 위한 모임이 폼앗이입니다.”라고 했는데, 저도 같은 마음으로 일본 엄마들에게 폼앗이 육아를 권유했었습니다. 매년 김장할 때 시댁에 많은 마을 어르신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참 멋진 광경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폼앗이는 한국의 아주 훌륭한 문화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온 외국인은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폼앗이 활동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폼앗이를 통해 서로의 아이들을 함께 놀게 하면서 한국의 폼앗이 문화를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폼앗이 활동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활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쿠라> 팀은 한 달에 한 번 모여 아이들을 놀게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일본인이라 느끼는 한국의 문화차이와 육아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일상 이야기나 육아 정보를 교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힘든 점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이해하며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만나기 때문에 서로의 사정을 알고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연락하고 도울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큰애가 작은애를 봐주는 형제자매 관계가 되었습니다.

2021년~2023년 동안 함께해 이제는 품앗이 아이들이 내 아이와 같습니다. 지역 내에서 행사가 있어 다른 일본 엄마들과 함께했을 때, <사쿠라> 팀이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함께 있으며 아이들을 서로 돌보고 있다 “좋아요.” “부러워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쿠라> 팀은 진짜 서로 웃으며 함께할 수 있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공육 선생님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받은 상처는 완전히 아물었습니다. 공육 선생님이 품앗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의지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살기 어렵다고 자신감을 잃었던 저에게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가르쳐 준 사람은 공육 선생님과 품앗이의 엄마들입니다. 그리고 항상 등을 토닥토닥해 주고 괜찮다고 응원해 주었던 분도 공육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품앗이를 할 수 있었고 저 자신이 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꿈을 키웁니다. 대학에 입학해서 일본학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중언어 강사와 일본어 강사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육 선생님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 공부는 어렵지만, 사회복지사는 정말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공동육아나눔터는 가족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친정이 멀어서 외로운 한국에서 친정 같은 가족을 만들어 주신 정읍시 공동육아나눔터와 강해린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살림, 나를 살림!

이민선

동대문구가족센터

저는 평소에 동대문구청 블로그를 구독해 우리 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자주 살펴봅니다. 동대문구청 블로그에는 딱딱하지 않은 글씨로 청년들을 위한 구청 사업이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홈페이지보다는 블로그를 보는 편입니다. ‘동일이네 살림백서’ 프로그램도 어느 때와 다름없이 구청 블로그를 둘러보던 중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스물아홉, 이제 서른을 향해 나아가면서 30대 라이프를 준비하는 길목에 섰습니다. 연초, 서른 이후 나의 삶의 로드맵을 짜기 위해서는 먼저 그간 나의 20대를 돌아보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대학 생활로 인해 시작된 서울살이, 이제는 제법 돈벌이도 하면서 사는 어른이 되었습니다만 21살부터 시작한 자취 생활은 별로 순탄히 흘러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동일이네 살림백서’ 교육 장에는 한 분의 중년 남성 분과 20~30대로 보이는 여성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마지막 회차에 참여한 사람이라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사님께서서는 모두에게 지난 주 근황과 청소와 살림에 대해 물으시고, 저에게도 친근하게 안부를 건네시며 살림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자취 생활을 하면서도 살림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잠시 머뭇거렸다가 “물건 찾지요.”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강사님은 오늘은 잡동사니 정리법을 배운다고 하시고 잘왔다 싶었습니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내가 좀 더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면 해결되는 것 아닐까? 정리 방법을 안다고 해서 실천할 수 있을까? 얼마나 대단한 방법이려고? 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강사님께서서는 PPT로 사진과 텍스트를 활용해 강의하셨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왜 편리한지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들을 제시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살림’이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었다니, 그동안 제가 살림을 낮잡아보면서 멀리하고 미워했다는 생각에 부끄러웠습니다. 전선을 보관하는 방법을 실습해 보고, 전단지 같은 종이를 받아서 크기와 상관없이 물건을 수납하는 데 정리 칸을 나눌 수 있는 작은 상자를 만드는 종이접기를 배웠습니다.

종이 한 장을 들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훑듯 훑듯 보면서 따라 하기도 하고, 서로 입도 트여서 수업에 점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배운 ‘물건은 대, 중, 소로 분류한다’, ‘되도록 세워서 보관하고, 키가 큰 물건은 뒤 오른쪽에 배치한다’ 같은 몇 가지 공식은 여전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시간의 수업 프로그램은 굉장히 알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베이킹 소다를 비누 틀에 굳힌 후 전자레인지에 구워서 탈취제를 만드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친숙해진 마스크 한 장과 환경오염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베이킹 소다를 활용하여 천연 탈취제를 만드는 일은 유치원생으로 돌아간 것처럼 천진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옷장 안쪽 칸에 탈취제를 넣어두면서, 어쩌면 살림이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냄새를 빨아들이는 일 같은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베이킹 소다와 과탄산수소를 활용하여 운동화를 닦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또한 천연 세제로 종이컵 1/3 분량의 가루와 약간의 따뜻한 물로 운동화 두 짝을 충분히 깨끗하게 닦을 수 있으니 환경에도 훨씬 보탬이 되고 물세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운동화는 빨아본 적이 없고, 운동화를 1년 정도 신다가 더러워지면 버리고 새 운동화를 샀습니다. 운동화는 어떻게 빨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방식이 너무 고되고 어렵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날의 운동화는 일주일 전에 산 새 운동화라 닦을 곳이 많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 친구를 닦아줄 날이 많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일을 하는 시간이 많은 프리랜서입니다. 그래서 사무용품과 생활용품이 한데 섞여 있는 데다 집이 12평 남짓이라 충분한 수납공간이 없어서 집 안에서 물건을 찾을 때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때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해 물건을 왕창 꺼내서 가져다 버렸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뿐 언젠가 필요해져서 다시 사들여야 했고 집 상태는 금방 그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대학 시절에 동양 철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은 “정리 정돈을 잘 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나 정리와 정돈은 다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란 무엇을 없애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며, 정돈은 가지런히 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풀이에 따르면 저는 정리의 방법으로 집 안을 깨끗하게 하려 했는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동일이네 살림백서’에서는 늘어나는 짐을 어떻게 깔끔하게 정돈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3회의 프로그램 중 마지막 프로그램에만 참여했음에도 자잘한 잡동사니 정돈의 법칙과 청소의 순서, 그리고 정돈 과정의 효율보다 그것을 다시 찾는 순간의 효용성으로 그 의미에 대해 생각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0대 초반에 대학에서 배운 한문과 철학적 메시지가 생활로 풀이되는 경험을 할 수 있어 신선하고 뜻깊었습니다.

두 달이 지난 지금, 다시 느끼는 점은 정돈할 수 있어야 비로소 정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 중, 소분류를 나누고 물건을 정돈하면서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도 자연스럽게 생기고 버려야 할 것도 찾아졌습니다. 지금도 청소며 빨래 영 서툰 살림이지만 ‘동일이네 생활백서’ 프로그램을 만나 업무와 생활용품을 나누어 잃어버리고 헤매는 일은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에 살림 수업이 있다면 또 참여하고 싶고, 회차를 성실히 나가 참여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도 더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한 엄마로

살고 싶습니다

전보경 달서구가족센터

안녕하십니까? 베트남에서 한국에 온 지 14년째인 전보경입니다. 저희 가족은 네 명입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올해 13살이 된 첫째 아들과 6살이 된 둘째 딸입니다. 2009년 3월, 한국에 들어올 당시만 해도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현재 다문화 가족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6개월 동안 한국어를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센터에 가서 배우지 않고 한국어 가정방문 교육을 3개월 동안 받았으나, 첫째가 태어나면서 육아로 인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2017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문화 가족센터에 다시 다니며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었지만 둘째가 태어나면서 육아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작년 2022년 4월, 둘째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여유가 생기자 달서구가족센터에서 진행하는 '알쓸잡대학' 아동학과에 입학하여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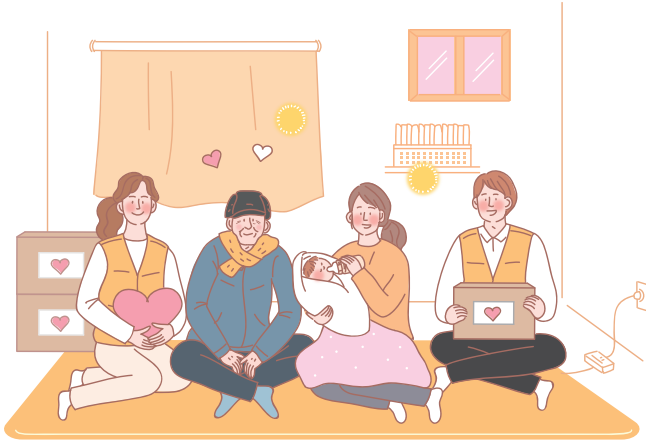
알쓸잡대학에서는 2022년 4월부터 2022년 11월 까지 7개월 동안 아동 놀이 지도사와 방과 후 돌봄 지도사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실습을 마치면 두 가지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외국인인 취업하기 어렵다는 주변의 말들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포기해야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우연히 달서구가족센터에서 결혼 이주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알쓸잡대학 입학생 모집 공고'를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외국인인 만큼 더욱 노력하고 역량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서구가족센터 알쓸잡대학에 다니면서 제게 목표가 생겼고, 그 목표를 꼭 달성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알쓸잡대학에서 취득한 방과후 돌봄 지도사와 아동놀이 지도사 자격증으로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집, 방과 후 아동돌봄, 생활지원사 분야에 취업할 때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내성적이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거나 다가가 말을 거는 것조차 쉽지 않은 성격이었습니다. 현재 가족센터에 진행되는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에 포함된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 덕분입니다. 13년이 넘도록 주부로 생활했기에 외부에서 사람을 만날 때면 왠지 꺼려지고 주눅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 있는 동안 가족센터에서 필요한 교육 자격증을 신청하고 배우는 게 어떠냐고 했습니다. 센터에 다니다 보면 친구도 사귀고, 유용한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성적인 성격도 개선되고 내가 가고싶은 방향이나 목표가 생길 거라고 조언해 주었죠. 저는 남편의 조언대로 가족센터에 다녀야겠다는 마음 먹었습니다.

알쓸잡대학 교육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아동놀이 지도사 교육을 받으면서 선생님께 격려를 많이 받고,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 앞에서 실제 놀이수업을 진행해 본 덕분에 내성적인 성격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툰 한국어 발음이 개선되었고, 자신감을 얻게 되었으며, 이주 여성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없애고 나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항상 자존감이 낮고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지만, 알쓸잡대학 아동교육학과 교육을 통해 이러한 생각들이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사회를 보는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으로서의 미래와 삶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항상 있었는데, 작년부터 달서구 가족센터 알쓸잡대학 아동교육학과 덕분에 자신감이 생기고 인생의 목표가 뚜렷해졌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달서구가족센터 덕분에 즐겁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달서구가족센터와 달서구청의 공동 사업인 ‘노다지돌봄 공동체’ 프로그램은 ‘노’는 노인, ‘다’는 다문화, ‘지’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인 파트너와 함께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을 찾아가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이 되어주며,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등의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 활동을 통해 보람도 느끼고, 나중에 생활지원사로 취업할 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구달서구가족센터 패밀리기자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활동은 한글을 읽고 쓰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5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 딸을 위해서 달서구가족센터에서 주최한 ‘달서 다문화 엄마학교 프로그램’ 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 엄마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고, 다문화 엄마들이 초등학교 1학년 교육 과정을 직접 배워봄으로써 자녀들에게 학교생활을 경험해 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엄마로 거듭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알쓸잡대학 아동학과 1기에 이어 올해에는 알쓸잡대학 통번역학과 2기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통번역학과는 결혼 이주 여성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결혼 이주 여성의 강점인 이중 언어를 살려서 취업 기회를 확대해 주는 고마운 프로그램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가족서비스
우수수기 사례집



세종시 다양한 가족과 함께하는 정답고 다채로운 감성 라디오 “온 가족 수다방 다정다감”

한유리 세종시가족센터

사업기간

2022년 1월 1일 ~ 2023년 5월 31일 (113회 진행)

필요성

다양한 가족과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 채널 확장

- ◆ 코로나19로 세종시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어 미디어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
- ◆ 중도일보 다문화기자단을 통해 세종시민들과 소통을 진행하고 있던 본 센터는 더욱 활발한 양방향 소통을 위해 2020년 개소한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와 협업하여 2021년 10월 ~ 12월 유튜브를 통해 보이는 라디오를 총 3회 진행함
- ◆ 2022년 세종FM(98.9mhz) 공동체 라디오 개국한다는 지역 소식을 듣고 협약 체결, FM 채널을 통해 매주 금요일 1회 라디오방송을 송출함으로 안정적인 미디어 채널을 얻게 됨

라디오 매체 활용으로 다양한 가족과 지역 주민 간 사회적 소통 확대

- ◆ 다정다감 초대석으로 지역사회 전문가, 경찰청, 글로벌 시 낭송회 등 다양한 인사를 초대, 세종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라디오로 매김 하였음
- ◆ 2022년 12월 15일 '온 가족사랑의 날' 공개방송을 통해 세종시민을 방청객으로 초대, 가족의 다양한 삶과 고민을 나누며 상호 간 공감대를 형성함으로 사회적 소통을 시작하는 계기가 됨
- ◆ 따라서 온 가족 수다방 다정다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세종시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이 상호 간 사회적 관계망 형성하도록 확대해나가는 것이 절실함

필요성

I 다문화 수용성 확대 필요

- ◆ 결혼이주여성이 이끄는 라디오 공개방송에 방청객이 청취자 게시판을 통해 “라디오에 사연 보내본 게 중학교 때 이후로 처음이라 오랜만에 가족 사연을 모든 분과 함께 공개방송에서 들으니 눈물도 나고, 감동도 받았습니니다. 타지에 와서 한 가정을 이루고 멋지게 살아가는 엄마들을 보며 정말 멋지다고 느꼈어요.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나이 국적 출신이 무엇이 그리 중요할까요? 라디오 청취 하겠습니다. 온 가족 수다방 다정다감 방송 관계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연말 되세요”라는 글을 남김. 1회 방송 참여만으로도 다문화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에 좋은 영향력을 끼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 다문화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자질로 차이와 다름에 대한 인정, 이해, 존중과 같은 ‘공존’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도록 라디오를 활용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더욱 요구됨

사업목적 및 목표

사업목적

결혼이민자가 직접 제작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지역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인다.

사업목표

성과목표	산출목표	성과(변화표적)	평가도구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를 위한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	- 미디어교육 10회 이상	- 미디어 활용능력	- 만족도 - 출석부 - 과정 기록지
다양한 가족과 지역주민 간 사회적 소통 확장	- 라디오 방송 52회 - 라디오 회의 10회 이상	- 소통 능력 - 정보 공유 및 상호작용 - 문화	- 중간·최종 사업평가지 - 프로그램 월별 점검 모니터링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 수용성 증진	- 라디오방송 52회 중 문화 다양성을 주제로 한 방송 10회 이상	- 다문화 수용성 - 문화 개방성 - 다문화사회 간접경험	- 자체 평가지 - 성과분석 보고서

기대효과

- ◆ 타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 증가
- ◆ 라디오를 통해 지역사회에 유용한 정책과 세종시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세종시민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 기여
- ◆ 결혼이민자 및 다양한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삶을 공유하며 스토리텔링을 통해 소통 확대

사업 내용

사업대상

- ◆ 3년 이상 한국생활 정착이 이루어진 결혼이민자
- ◆ 한국어 4단계 이상 수료 또는 TOPIK 3급 이상인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주민
- ◆ 위 조건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며,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및 진행에 관심 있는 자

사업내용

- ◆ 결혼이민자가 보는 시선으로 세종시민의 다양한 삶의 경험을 공유하며 문화적 특색이 담긴 라디오를 제작
- ◆ 월별로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세종시민과 감성적 소통 진행

	구분	일정	진행 내용	준비사항
준 비	사업 계획	1월 ~ 2월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 계획서
	사업 명료화	1월 ~ 2월	- 사업내용 논의 - 사업 방향 명료화	- 세종FM 협업 기획 논의 - 시청자미디어센터 교육 연계
	대상자 모집 및 선정	1월	- 일정표와 프로그램 홍보 - 신청자 접수 - 문자메시지 발송	- 문자 - 홍보문
	프로그램 홍보	1월 ~ 12월	- SNS 및 센터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한 온 가족 수다방 사연 모집	- 사연모집 홍보지
	강사 섭외 교육일정 확정	1월 ~ 12월	- 전문강사 확보 - 녹음일정 및 라디오 녹음실 확보	- 시청자미디어센터 연계 전문 인력 활용 - 세종FM 녹음실 대관

구분	일정	진행 내용	준비사항	
진행	미디어역량 강화 교육	1월 ~ 12월	- 미디어교육 (1~10회기) • 참여자 역할별 심화 멘토링 교육	- 시청자미디어센터 연계 진행
	라디오 녹음	1월 ~ 12월 매주(목)	- 월별 라디오 기획회의 - 라디오 리허설 및 사전녹음 진행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11시 방송 (세종FM 98.9MHz) • 월 1회 다정다감 초대석 • 매주 다양한 주제로 만나는 사연 - 세종시민과 함께하는 공개방송 - 위기대응 매뉴얼 준수하여 프로그램 진행	- 출석부 - 과정 기록지 - 사진 - 만족도
	라디오 컨설팅	10월	- 라디오 현장 전문가 초빙 - 라디오 모니터링 점검 및 자문	
종결	평가 및 결과 보고	12월 15일	- 사업에 대한 평가회의 - 결과 보고서	- 종결 보고서 - 평가서

라디오 진행 내용

년도	방송 회차	방송일	방송 내용
2022년	1회	4월 22일	주제 : 우리의 처음, 첫 시작 1탄
	2회	4월 29일	주제 : 우리의 처음, 첫 시작 2탄
	3회	5월 6일	주제 : 내게 힘이 되었던 말 한마디 1탄
	4회	5월 13일	주제 : 내게 힘이 되었던 말 한마디 2탄
	5회	5월 20일	다정다감 초대석 : 세종특별자치시가족센터 하이용 센터장
	6회	5월 27일	다정다감 초대석 : 다문화가족 신혼부부 1쌍 초대
	7회	6월 3일	주제 : 나의 가족에게 전하는 말 1탄
	8회	6월 10일	주제 : 나의 가족에게 전하는 말 2탄
	9회	6월 17일	다정다감 초대석 : 세종특별자치시가족센터 가족상담사
	10회	6월 24일	다정다감 초대석 : 세종특별자치시가족센터 이중언어 코치
	11회	7월 1일	주제 : 나의 여름이야기 1탄
	12회	7월 8일	주제 : 나의 여름이야기 2탄

년도	방송 회차	방송일	방송 내용	
2022년	13회	7월 15일	주제 : 나라별 무서운 이야기	
	14회	7월 22일	다정다감 초대석 : 세종특별자치시 경찰청 외사계 1탄	
	15회	7월 29일	다정다감 초대석 : 세종특별자치시 경찰청 외사계 2탄	
	16회	8월 5일	주제 : 여름휴가지에서 만난 인연 1탄	
	17회	8월 12일	주제 : 여름휴가지에서 만난 인연 2탄	
	18회	8월 19일	다정다감 초대석 : 세종특별자치시가족센터 통번역사 1탄	
	19회	8월 26일	다정다감 초대석 : 세종특별자치시가족센터 통번역사 2탄	
	20회	9월 2일	주제 : 선택 - 인생극장 그레 결심했어! 1탄	
	21회	9월 9일	주제 : 선택 - 인생극장 그레 결심했어! 2탄	
	22회	9월 16일	주제 : 나라별 추석 명절 이야기	
	23회	9월 23일	주제 : 천고마비의 계절 - 노래 차트	
	24회	9월 30일	다정다감 초대석 : 세종시 시민 가수 김카렌	
	25회	10월 7일	주제 : 관용어로 생긴 에피소드, 나라별 관용어 알아보기	
	26회	10월 14일	다정다감 초대석 : 한글날 특집 백일장 수상자 초대	
	27회	10월 21일	다정다감 초대석 : 세종시 활동가 글로벌 시 낭송회 초대	
	28회	10월 28일	주제 : 마음의 양식 ; 도서, 영화 추천 1탄	
	29회	11월 4일	주제 : 마음의 양식 ; 도서, 영화 추천 2탄	
	30회	11월 11일	주제 : 나라별 수능시험 제도	
	31회	11월 18일	주제 : 수험생을 응원합니다.	
	32회	11월 25일	다정다감 초대석 : 세종시 아버지들의 자녀 양육 이야기	
	33회	12월 2일	주제 :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며 청취자 특집	
	34회	12월 9일	주제 :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며 작가 특집	
	35회	12월 16일	주제 :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며 MC 특집	
	36회	12월 23일	주제 :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	
	37회	12월 30일	공개방송 - 온 가족 사랑의 날 주제 : 우리 가족, 올해도 수고했어	
	2023년	38회	1월 6일	주제 : 2023년 새해 소망, 목표, 계획 다짐
		39회	1월 13일	주제 : IF만약에 - 세종시에 눈이 많이 내린다면?

년도	방송 회차	방송일	방송 내용
2023년	40회	1월 20일	주제 : 나라별 설 명절 이야기
	41회	1월 27일	주제 : 나의 최애 겨울 음식
	42회	2월 3일	주제 : 겨울 축제 이야기
	43회	2월 10일	주제 : 밸런타인데이, 나만의 러브스토리
	44회	2월 17일	주제 : 즐거운 세종 생활
	45회	2월 24일	다정다감 초대석 : 다문화자녀사회포용안전망-다배움
	46회	3월 3일	주제 : 봄봄봄... 내 인생의 봄날, 봄날을 기다리며
	47회	3월 10일	주제 : 새 학기 새로운시작
	48회	3월 17일	주제 : 가족 몰래 한 나만의 최고 일탈
	49회	3월 24일	전국의 벚꽃축제
	50회	3월 31일	봄맞이 대청소 특집
	51회	4월 7일	주제 : 만우절 특집
	52회	4월 14일	주제 : 인생에서 딱 한 번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53회	4월 21일	주제 : 아름답게 나이 드는법
	54회	4월 28일	다정다감 초대석 : 세종시가족센터 자녀돌봄 품앗이
	55회	5월 5일	주제 : 나의 부모님에게, 아이에게 쓰는 편지
	56회	5월 12일	가장 기억에 남는, 내 인생의 지표가 되어준 선생님에게
	57회	5월 19일	주제 : 남녀노소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 장소
	58회	5월 26일	주제 : 남들은 쉬울지 몰라도 내겐 너무 어려운 일 남들은 어려울지 몰라도, 내겐 너무 쉬운 일
	59회	6월 2일	다정다감 초대석 : 세종시환경교육센터 이채연 센터장
60회	6월 9일	주제 : 나의 소울푸드	
61회	6월 16일	주제 : 옥포성지중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다같이 수학여행” • 결혼이주여성들의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 온 가족 수다방 '다정다감' 공개방송(세미TV 송출) 게스트·방청객 참여(5월 17일) 14:00~15:00 • 5월 27일 2차 녹음 방송 진행(세종FM 음원만 송출)	
62회	6월 23일	주제 : 나의 습관	
63회	6월 30일	주제 : 가장 쉬웠던, 가장 어려웠던 알바	

평가 및 결과

사업 평가 및 환류

| 2022년 ~ 2023년 5월 사업 누적 실적

사업명 (세부 사업명)		계획			실행		
		회기	실인원	연인원	회기	실인원	연인원
2022년 온가족 수다방 다정다감	교육	10	9	90	22	9	117
	회의	10	9	90	16	9	87
	방송 제작	37	9	333	40	9	329
	총계	57	9	513	78	9	533
2023년 온가족 수다방 다정다감	교육	20	9	180	3	8	20
	회의	10	9	90	4	8	20
	방송	52	9	468	28	8	152
	총계	82	9	738	35	8	192

| 2022년 사업성과

- ◆ 세종FM 공동체 라디오 98.9mhz 채널 편성 및 온가족수다방 다정다감 방송 진행 호보를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 세종시민들에게 라디오 주파수를 각인시킴
- ◆ 결혼이민자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라디오를 목표로 두고 진행하였는데 라디오 제작 초기에서 지난 1년간 참여했던 참여자의 경우, 작가 역할과 DJ 역할 하는 분들이 점진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찾아 의견을 내고 라디오를 기획하는 등 주도적인 참여 범위가 늘어나고 있음
- ◆ 지역사회 전문가, 경찰청, 글로벌 시 낭송회 등 다양한 영역의 지역 인사를 연계하여 다정다감 초대석 진행. 다문화가족을 비롯 세종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 전달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도움을 줌
- ◆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주제를 기획하여 문화다양성 방송을 10회 진행하였음

| 2022년 전문가 컨설팅 의견

- ◆ 라디오 참여 구성원이 역할을 나누어 진행하고 있지만 방송 전문가의 힘을 보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민자의 역할분담에 따른 개별 역량 강화가 필요함

- ◆ 청취자와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라디오 방송을 원한다면 사연과 신청곡만 받는 것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설문 조사, 방송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포맷으로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

2022년 사업성과 및 전문가 컨설팅 의견을 반영한 2023년 환류

- ◆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및 세종FM과 연계하여 세종시민들과 함께하는 방송을 분(반)기 별로 진행
- ◆ 세종FM 청취자 게시판 활용하여 사연 모집, 방송 피드백 등을 받도록 운영
- ◆ 다양한 분야의 지역 인사 초대로 세종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 전달 방송 지속 운영
- ◆ 사연 읽기와 MC 멘트 톤을 다르게 읽기, 서로의 반응을 살피기, 대본대로 읽지 않기, MC 성량 조절 편집기술, 사연에 맞는 BGM 넣기, 상황에 맞는 오프닝-클로징 멘트 쓰기, 사연 배치 방법 등 각 참여자들에게 요구되는 교육을 세분화하여 심층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지원

2023년 주요 성과

사업 성과

- ◆ 활발한 사업 연계를 위한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업무협약 체결(3월 28일)
- ◆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사업 공모로 참여자 역량 강화 교육 심화 과정 개설
- ◆ 공개방송 진행을 위한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세종FM 관계자와 업무협약의 진행 (2023.04.24. 기획회의 진행)
- ◆ 섬마을 다문화·특수 통합학교 학생들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 진행(5월 17일), 실시간 351명의 세종시민들이 참여
- ◆ 온가족수다방 유튜브 업로드(5월 31일 기준 38회 ~ 58회) 조회 수 820회, 구독자 수 1,410명
- ◆ 다양한 나라 문화 소개를 주제로 5회 라디오 진행(나라별 설 명절 이야기, 나라별 겨울 축제 이야기, 벨런타인데이, 만우절, 나의 소울 푸드)

참여자 의견 및 실무자의 피드백, 환류

- ◆ 라디오 회의를 하며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라디오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심화된 멘토링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교육 담당자와 논의 하여 라디오 참여자 대상 전체 교육과 개별 심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달하였음

참여자 의견 및 실무자의 피드백, 환류

- ◆ 참여자 회의 시 라디오 구성 방식이 사연에 의존하여 진행하고 있어 다양한 방송을 시도하기에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음
- ◆ 라디오 구성을 다양하게 기획하고 싶다는 의견에 따라 5분~10분 내외로 세종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코너를 기획, 작가로 활동하는 참여자가 직접 맡아 전달하기로 함
- ◆ 작년 공개방송 1회 진행으로 라디오 청취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너무 좋아 분(반)기별로 공개방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으면 좋겠다는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공개방송을 추진. 섬마을 다문화·특수 통합학교 학생들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였음

홍보 및 지역사회 연계

23년 5월 홍보 및 지역사회 연계 누적 실적

사업명	계획		실행		
온가족 수다방 다정다감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 및 센터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한 온가족 수다방 사연모집 • 라디오 진행 과정 센터 홈페이지, SNS 게시 • 언론 보도 및 뉴스 • 사업 보고 책자 	60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카오톡 메신저, 센터 홈페이지, 세종FM 청취자 게시판을 활용 사연 모집 • 유튜브를 활용하여 청취자 이벤트 진행 등 온가족수다방 다정다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홍보 • 세종시 시정소식지 5월 월간 책자에 온가족수다방 다정다감 라디오 프로그램 소개 	23회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기관 및 프로그램 소개를 위한 라디오 연계 • 세종시 의회, 시청 등 주요 인사 초대하여 다정다감 초대석 진행 •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세종FM 공동체 라디오와 지속적인 협업 진행 	138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와 업무 논의를 통한 공개방송 연계 진행 • 세종FM 공동체 라디오 장소 대관 및 방송 모니터링 진행 •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센터 기관장 초대하여 환경보호와 실천방법에 대한 정보를 세종시민에게 전달 	37회

홍보 및 지역사회 연계성과

- ◆ 센터 홈페이지, 세종FM 게시판을 활용 라디오 사연 모집 홍보 21회 진행
- ◆ 센터 홈페이지 라디오 참여 및 청취 방법 안내문 1회 게시
- ◆ 세종 시정소식지 5월 호 온가족수다방 다정다감 프로그램 홍보 글 게시
- ◆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교육 및 공개방송 논의 3회
- ◆ 세종FM 공동체 라디오를 통한 방송출력 21회

홍보 및 지역사회 연계 개선사항

- ◆ SNS 활용하여 라디오 청취 및 사연 신청 방법 안내 지속적으로 필요
- ◆ 라디오 청취율 높이기 위해 청취자 이벤트 진행 예정





부모의 자녀 돌봄 역량 강화 및 돌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배우고,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부모”

허숙경 인천중구가족센터

사업기간

2022년 1월 1일 ~ 2023년 5월 31일

필요성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점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일상에 무수한 변화를 가져왔다. 2021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코로나19 이후 가족생활 실태 및 가족서비스 수요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5%가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원격수업 등 교육 환경의 변화로 자녀의 언어발달 또는 사회성 발달 지연 문제가 발생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고 답한 경우는 52.1%, 아이 때문에 자기개발, 자아실현 기회를 포기할 때가 있다고 답한 경우는 4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례 없는 시기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직면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에 부모에게 필요한 양육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자신감을 향상시켜, 자녀 발달과 교육에 더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차례로 회복력 있는 가족을 육성하고, 긍정적인 아동 발달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적 특성

인천시 중구는 10개 군·구 중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 중 하나이다. 2022년 기준 중구의 원도심(8개 행정구역) 인구는 45,364명으로 전체의 29.3%로 2021년 대비 약 1% 감소했으며, 영종·용유지역(4개 행정구역)은 109,108명으로 70.7%를 차지하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타 지역에 비해 영·유아 및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비율이 높아 양육 관련 수요 및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제5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종·용유지역의 아동 돌봄 영역에서 양육지원시설·서비스와 양육 관련 정보 및 양육기술에 대해 어려움과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Ⅰ 경험적 근거

본 센터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부모가 자녀 양육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녀에게 최상의 양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2019년 부터 매년 ‘배워서 아이 주자’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들이 ‘보드게임 지도사’, ‘그림책 지도사’, ‘하브루타 자녀교육’, ‘코딩 교육’ 등의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격증 취득 교육은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기술과 정보를 배우는 관문 역할을 하는 동시에 부모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또한 자격증 취득에서 끝나지 않고 “부모 커뮤니티”로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부모역량을 강화하여 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의 강사 활동 기회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전문적인 프로그램 강사로 성장해 나가는 발판이 되고 있다.

Ⅰ 필요성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돌봄 활동의 질적 향상, 부모들의 자발적 참여와 주체적 운영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돌봄으로의 사업 방향을 추구한다. 본 사업은 부모의 돌봄 역량 강화와 더불어 정기적인 모임과 활동을 통해 부모들 간 유대관계 형성에 도움을 제공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이 되어 부모들의 공동체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목적 및 목표

사업목적

- ◆ 부모 성장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자녀를 효과적으로 양육하고 발달에 필요한 지식, 기술,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육아부담을 완화한다.
- ◆ 양육에 대한 지식과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부모들의 공동체 성과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한다.

목표 및 평가 방법

		성과목표	산출목표	
2022년	부모의 자녀 돌봄 역량 강화	배워서 아이 주자	보드게임 지도사 자격증 교육 10회 실시 cos 지도사 자격증 교육 10회 실시 칼림바 지도사 교육 10회 실시 한국사 지도사 교육 10회 실시	
	돌봄 네트워크 활성화	부모 커뮤니티	부모 커뮤니티 10개 그룹 운영	
2023년	부모의 자녀 돌봄 역량 강화	배워서 아이 주자	보드게임 지도사 자격증 교육 10회 실시 그레비트렉스	
	돌봄 네트워크 활성화	부모 커뮤니티	부모 커뮤니티 12개 그룹 운영	
		성과목표	성과지표	평가도구 및 방법
2022년	부모의 자녀 돌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자 중 양육 효능감 점수가 상승한 사람의 비율	양육 효능감 설문지 사전/사후 비교	
	돌봄 네트워크 활성화	부모 커뮤니티 그룹 및 모임 횟수	활동일지, 활동사진	
2023년	부모의 자녀 돌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자 중 양육 효능감 점수가 상승한 사람의 비율	양육 효능감 설문지 사전/사후 비교	
	돌봄 네트워크 활성화	부모 커뮤니티 그룹 및 모임 횟수	활동일지, 활동사진	

기대효과

- ◆ 부모의 양육 효능감 향상을 통해 부모-자녀 긍정적 상호작용 및 자녀 발달을 돕고,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켜 부모로서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 ◆ 부모들의 돌봄 역량 강화로 봉사활동 및 재능기부 활동을 촉진하고,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극복 및 부모의 자존감 향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 ◆ 부모들이 자녀 양육과 관련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돌봄 공동체 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

2022년(1~12월) 부모 성장 프로그램_부모 커뮤니티

순번	그룹명	활동내용	시행시기	커뮤니티구성원 (실인원)	참여인원 (연인원)	횟수
1	그림책 산책	그림책 읽고 나누기	1~12월	38명	261명	46회
2	그림책 친구	그림책 수업 연구	5~11월	22명	111명	26회
3	기린이들	비폭력대화 실천	1~12월	6명	104명	29회
4	보드락	보드게임 연구	2~11월	26명	90명	14회
5	엄마품애	인형극 모임	10~12월	7명	56명	9회
6	맘스윙	초급 영어 회원 모임	10~12월	11명	56명	9회
7	잉맘	중급 영어회원 모임	10~12월	12명	71명	10회
8	마망살롱	동화책 연구모임	1~12월	4명	58명	15회
9	라떼파파	육아관련 독서나눔	1~12월	5명	77명	18회
10	마미핑거	칼림바 수업 연구	12월	6명	8명	2회
11	누리더마마	일본가정의 자녀교육	1월	8명	8명	1회
12	숨은영종도찾기	하브루타 자녀교육	1~11월	4명	56명	11회
13	엄마의 꿈	그림책 만들기	3~4월	3명	11명	4회
14	테라코야	일본 가정의 자녀교육	6~12월	11명	243명	22회
계				163명	1,210명	216회

2023년(1~5월) 부모 성장 프로그램_배워서 아이 주자

순번	프로그램명	활동내용	시행시기	참여인원	횟수/시간
1	모두의 보드	보드게임 지도사 2급 자격 취득 교육	3~5월	120명	10회/20시간
2	그레비트렉스	그레비트렉스 2급 자격 취득 교육	5월	30명	4회/8시간
계				150명	14회/22시간

2023년(1~5월) 부모성장 프로그램_부모커뮤니티

순번	그룹명	활동내용	시행시기	커뮤니티구성원 (실인원)	참여인원 (연인원)	횟수
1	그림책 산책	그림책 읽고 나누기	1~5월	8명	88명	17회
2	마미핑거	칼림바 연주	1~5월	5명	26명	7회
3	기린이들	비폭력 대화 실천하기	1~5월	4명	21명	6회
4	왕초보탈출	영어회화	1~5월	7명	90명	18회
5	잉맘	영어회화	1~5월	7명	106명	18회
6	빛깔	토탈공예 모임	2~5월	5명	14명	4회
7	라떼파파	아빠 육아 실천 모임	2~5월	5명	45명	9회

순번	그룹명	활동내용	시행시기	커뮤니티구성원 (실인원)	참여인원 (연인원)	횟수
8	마망살롱	자녀 교육	2~5월	4명	16명	3회
9	별빛소리	우쿨렐레 연주	3~5월	4명	23명	6회
10	우리동네자연관찰자	지역 생태 답사 및 기록	3~5월	5명	18명	4회
11	이토	뜨개질 소품 제작	3~5월	4명	11명	3회
12	햇살꽃	하브루타 자녀교육	3~5월	4명	12명	3회
13	보드락	보드게임 연구	3~5월	4명	18명	4회
14	내피부에 섬유	유기농 천연생활용품 만들기	4~5월	8명	16명	2회
15	보드퀸	보드게임 수업 연구	5월	4명	12명	3회
계				78명	516명	107회

I 담당 인력

담당업무	담당 부서/직위	비고
사업 슈퍼비전	센터장 1명	-
사업 슈퍼비전	사무국장 1명	-
사업총괄	가족돌봄팀/팀장 1명	-
사업기획, 진행 및 관리	가족돌봄팀/주임 1명	운남공동육아나눔터 사업담당자
사업기획 및 진행	가족돌봄팀/팀원 1명	신흥공동육아나눔터 사업담당자
사업기획 및 진행	가족돌봄팀/팀원 1명	운서공동육아나눔터 사업담당자

평가 및 결과

프로그램 성과

I 산출 평가

프로그램명	산출목표	평가도구	달성률	
2022년 (1~12월)	배워서 아이 주자	보드게임 지도사 자격증 교육 10회 실시	회당 출석부, 활동사진	100%
		cos 지도사 자격증 교육 10회 실시	회당 출석부, 활동사진	110%
		칼림바 지도사 교육 10회 실시	회당 출석부, 활동사진	100%
		한국사 지도사 교육 10회 실시	회당 출석부, 활동사진	100%
부모커뮤니티	부모 커뮤니티 10개 그룹 운영	회당 활동 일지, 활동사진	140%	
2023년 (1~5월)	배워서 아이 주자	보드게임 지도사 자격증 교육 10회 실시	회당 출석부, 활동사진	100%
		그래비트랙스 지도사 자격증 교육 10회 실시	회당 출석부, 활동사진	진행중
	부모커뮤니티	부모 커뮤니티 12개 그룹 운영	회당 활동일지, 활동사진	진행중

성과평가

성과목표	평가도구 및 방법												
부모의 자녀 돌봄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지표 : 프로그램 참여자의 부모 양육 효능감 점수 평가도구 및 방법 : 양육 효능감 설문지 사전/사후 비교 												
2022년 (1~12월)	■ 부모 양육 효능감 사전/사후 검사 결과 <table border="1"> <thead> <tr> <th>프로그램</th> <th>사전 점수</th> <th>사후 점수</th> <th>증감</th> </tr> </thead> <tbody> <tr> <td>엄마는 코딩 선생님(cos 지도사)</td> <td>49.7점(66.3%)</td> <td>58.5점(78%)</td> <td>8.8점(11.7%) 증가</td> </tr> <tr> <td>맘스토리(한국사 지도사)</td> <td>56.9점(75.9%)</td> <td>66점(88%)</td> <td>9.1점(12.1%) 증가</td> </tr> </tbody> </table>	프로그램	사전 점수	사후 점수	증감	엄마는 코딩 선생님(cos 지도사)	49.7점(66.3%)	58.5점(78%)	8.8점(11.7%) 증가	맘스토리(한국사 지도사)	56.9점(75.9%)	66점(88%)	9.1점(12.1%) 증가
	프로그램	사전 점수	사후 점수	증감									
	엄마는 코딩 선생님(cos 지도사)	49.7점(66.3%)	58.5점(78%)	8.8점(11.7%) 증가									
	맘스토리(한국사 지도사)	56.9점(75.9%)	66점(88%)	9.1점(12.1%) 증가									
	■ 참여자 만족도 <table border="1"> <thead> <tr> <th>프로그램</th> <th>만족도 점수</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보드게임 지도사</td> <td>5점(100%)</td> <td rowspan="4">'프로그램은 자녀 성장 및 돌봄에 도움이 되었다' 항목에서 '매우 그렇다', '그렇다'에 답한 참여자 비율 100%</td> </tr> <tr> <td>엄마는 코딩 선생님(cos 지도사)</td> <td>4.97점(99.4%)</td> </tr> <tr> <td>칼림바 지도사</td> <td>4.94점(98.8%)</td> </tr> <tr> <td>맘스토리(한국사 지도사)</td> <td>5점(100%)</td> </tr> </tbody> </table>	프로그램	만족도 점수	비고	보드게임 지도사	5점(100%)	'프로그램은 자녀 성장 및 돌봄에 도움이 되었다' 항목에서 '매우 그렇다', '그렇다'에 답한 참여자 비율 100%	엄마는 코딩 선생님(cos 지도사)	4.97점(99.4%)	칼림바 지도사	4.94점(98.8%)	맘스토리(한국사 지도사)	5점(100%)
	프로그램	만족도 점수	비고										
	보드게임 지도사	5점(100%)	'프로그램은 자녀 성장 및 돌봄에 도움이 되었다' 항목에서 '매우 그렇다', '그렇다'에 답한 참여자 비율 100%										
	엄마는 코딩 선생님(cos 지도사)	4.97점(99.4%)											
	칼림바 지도사	4.94점(98.8%)											
	맘스토리(한국사 지도사)	5점(100%)											
■ 참여자 자격증 취득 비율 : 총 37명 중 32명(86.5%) 자격증 취득 완료													
<table border="1"> <thead> <tr> <th>돌봄 네트워크 활성화</th> <th>평가 지표 : 부모 커뮤니티 그룹 및 모임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td> <td>평가도구 및 방법 : 활동 일지, 활동사진</td> </tr> </tbody> </table>	돌봄 네트워크 활성화	평가 지표 : 부모 커뮤니티 그룹 및 모임 횟수		평가도구 및 방법 : 활동 일지, 활동사진									
돌봄 네트워크 활성화	평가 지표 : 부모 커뮤니티 그룹 및 모임 횟수												
	평가도구 및 방법 : 활동 일지, 활동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부모 커뮤니티 그룹 총 14그룹으로 계획 대비 140% 달성 14개의 부모 커뮤니티 그룹이 총 216회, 1,210명 참여 부모 커뮤니티 활동으로 양육 효능감 향상 및 주체적 돌봄을 통한 자조 역량 강화 부모가 돌봄 서비스의 소비자가 아니라, 돌봄의 주체가 되는 돌봄 활동 전문가(부모 강사)로 성장 													
부모의 자녀 돌봄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지표 : 프로그램 참여자의 부모 양육 효능감 점수 평가도구 및 방법 : 양육 효능감 설문지 사전/사후 비교 												
2023년 (1~5월)	■ 부모 양육 효능감 사전/사후 검사 결과 <table border="1"> <thead> <tr> <th>프로그램</th> <th>사전 점수</th> <th>사후 점수</th> <th>증감</th> </tr> </thead> <tbody> <tr> <td>모두의 보드(보드게임 지도사)</td> <td>53.1점(70.8%)</td> <td>56.1점(74.8%)</td> <td>3점(4%) 증가</td> </tr> <tr> <td>그래비트랙스 지도사 교육</td> <td>51.9점(69.2%)</td> <td>진행중</td> <td>진행중</td> </tr> </tbody> </table>	프로그램	사전 점수	사후 점수	증감	모두의 보드(보드게임 지도사)	53.1점(70.8%)	56.1점(74.8%)	3점(4%) 증가	그래비트랙스 지도사 교육	51.9점(69.2%)	진행중	진행중
	프로그램	사전 점수	사후 점수	증감									
	모두의 보드(보드게임 지도사)	53.1점(70.8%)	56.1점(74.8%)	3점(4%) 증가									
	그래비트랙스 지도사 교육	51.9점(69.2%)	진행중	진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두의 보드'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만족도 조사 5점 척도/4.99점(99.8%) '모두의 보드' 참여자 10명 중, 총 10명(100%) 보드게임 지도사 2급 자격증 취득 완료 												
<table border="1"> <thead> <tr> <th>돌봄 네트워크 활성화</th> <th>평가 지표 : 부모 커뮤니티 그룹 및 모임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td> <td>평가도구 및 방법 : 활동 일지, 활동사진</td> </tr> </tbody> </table>	돌봄 네트워크 활성화	평가 지표 : 부모 커뮤니티 그룹 및 모임 횟수		평가도구 및 방법 : 활동 일지, 활동사진									
돌봄 네트워크 활성화	평가 지표 : 부모 커뮤니티 그룹 및 모임 횟수												
	평가도구 및 방법 : 활동 일지, 활동사진												
■ 프로그램 진행 중으로 추후 성과 평가 예정													

▣ 부모 커뮤니티 구성원 내·외부 강사활동 연계 성과

기관명	내용
중산 공동육아나눔터 돌봄교실	돌봄교실 자녀 프로그램(그림책, 보드게임) 강사활동
운남 공동육아나눔터	상시 프로그램(무지개 책놀이, 보드 위 세상) 강사활동
신흥 공동육아나눔터	상시 프로그램(그림책 꽃이 피었습니다, 다 모여보게) 강사활동
운서 공동육아나눔터	상시 프로그램(인형극, 날아라 파파보드, 사랑은 리본을 타고, 무지개 책놀이, 초록 친구) 강사활동
공항/용유/신흥/만석/하늘/운서 초등학교	그림책 수업 연계
인천동구가족센터	그림책 수업 연계
복성/연/백합 유치원	그림책 수업 연계
서대문/한중/주안 도서관 등	그림책 수업 연계
온누리 대한학교	그림책 수업 연계
미안마선교사 모임	그림책 수업 연계

▣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

공동육아나눔터의 궁극적 목적은 자녀 돌봄 품앗이 사업 활성화로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체 돌봄 문화를 회복하는 데 있다. 본 사업은 부모들이 품을 나누어 자녀를 양육하는 품앗이 활동을 자녀가 어릴 때부터 시작해 권태기를 맞고 있는 경우 또는 품앗이 활동이 안정화된 그룹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배워서 아이주자’ 프로그램을 통해 더 전문적인 자녀 양육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 커뮤니티’ 활동으로 참여 부모들 사이의 자발적인 상호 교류를 촉진, 돌봄 자원 관계망을 구축하여 공동체 활동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사업은 사업담당자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보다는 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자발적, 주체적인 자조모임 운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매년 부모들의 관심과 만족감이 높아지고 있어 지속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 프로그램의 향후 과제

2021년 아빠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배워서 아이 주자 코딩 코치 우리 아빠’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코딩스페셜리스트 자격증을 수료하였지만 지속적인 ‘부모 커뮤니티’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현재 육아에 관심이 있는 아빠 참여 부모 커뮤니티 ‘라떼파파’ 그룹이 아빠 육아 실천 모임으로 2022년부터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라떼파파’가 아빠 참여 부모 커뮤니티 우수사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응원과 지지가 필요하다. 또한 아빠들의 관심과 참여 욕구가 높고, 자녀 돌봄 기회에 노출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아빠 참여 ‘부모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부모 모두가 참여하는 자녀 돌봄 문화가 정착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맞벌이 가정 결혼이민자 직장맘 일·가정 양립 지원 “온라인으로 워라인 해요”

유혜진 서울중구가족센터

사업기간

2022년 10월 18일 ~ 2022년 11월 30일 (16회기)

필요성

한국 사회의 다문화가족 정책이 초기 적응 및 정착 단계를 지나, 전환의 시기 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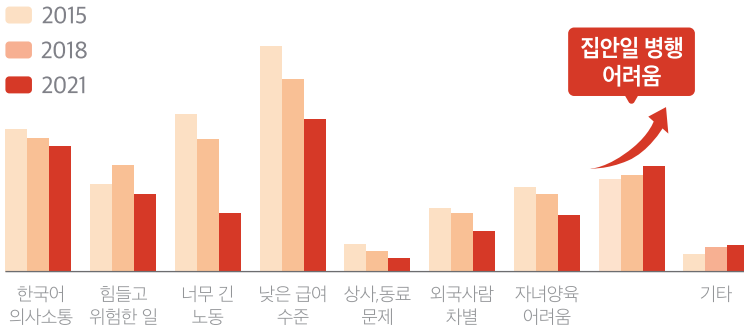
- ◆ ‘2021 여성가족부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현재 한국 사회 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은 입국 초기와 정착·적응 단계를 벗어나 15년 이상 장기 거주 비율이 39.9%로 급증하여 2018년 대비 12.3% 상승
- ◆ 한국생활에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이 8% 증가, 차별받은 경험은 14.6% 감소하는 등 한국생활 적응도가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
- ◆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2023~2027)에서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라는 비전 아래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정착 주기별 맞춤형 지원’ 발표

장기 거주 결혼이민자의 적응도는 향상되었으나, 일·가정 병행의 어려움은 증가

- ◆ ‘2021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2018년 대비 결혼이민자와 기타 귀화자 고용률이 감소하였으나 상용 근로 비율은 증가하여 고용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졌음을 확인. 그러나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여부 항목에서는 아직 45%가 ‘있다’고 응답
- ◆ 2015, 2018 조사와 비교하여 ‘직장생활의 어려움의 요인’으로 저임금과 긴 노동시간, 상사·동료와의 문제, 이민자의 특수성 문제(한국어, 차별 등) 응답은 감소하였으나, 일·가정 병행에 기인한 어려움은 오히려 증가 [그림1]

직장인 결혼이민자의 어려움 요인

(2015, 2018, 2021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 단위 %)



[그림1] 2021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중 직장인 결혼이민자가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서울중구가족센터]

장기 거주 결혼이민자의 욕구 변화 및 필요성 반영한 일·가정 양립 지원 필요

- ◆ 장기 거주자의 경우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다양한 기관을 통해 취업 프로그램이나 자조모임 등의 사업이 실시 중이나, 이미 안정적인 것으로 적응하여 직장 근무 중인 직장맘의 일·가정 양립 지원은 부족한 상황
- ◆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하위 요소를 일·가정 균형, 일·여가 균형, 일·개인생활 균형으로 구성하고, 맞벌이 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3가지 요소 수행에 따른 행복수준을 측정한 연구 결과, 일·가정 양립 수준과 행복수준은 비례하는 것으로 확인(김경미, 2017)
- ◆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의 가족 돌봄 역할이 가중되고, 사회 전반적인 경제 여건 악화 등 위기 상황 속에서 결혼이민자 직장맘은 많은 역할 부담 및 혼란, 사회적 지지 부족으로 인해 일·가정 불균형으로 인한 행복수준 유지에 상대적으로 취약 가능
- ◆ 일·가정 양립 어려움은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내 배우자, 자녀 등의 가족적 측면, 직장 및 지역사회 등 사회적 측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들의 일·가정의 양립 프로그램을 통한 삶의 행복수준 향상 지원 필요

경제 상업 중심지로서 맞벌이가 많고 결혼이민자 비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 반영

- ◆ 서울 중구는 서울시 내 경제·상업·문화 중심지로서 시청과 주요 정부기관, 기업, 패션 타운 등이 밀집하여, 경제활동인구 및 맞벌이가정이 많은 지역 특성 보유

- ◆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조사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서울 중구에 1,282가구 3,345명의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1,291명)이 거주 중이며, 주민등록인구 중 다문화가족 비율(2.54%)과 결혼이민자 비율(0.98%)이 서울시 자치구 중 4위 [그림2]

[그림2] 자치구별 주민등록인구 대비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비율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2023.01.)]



사업목적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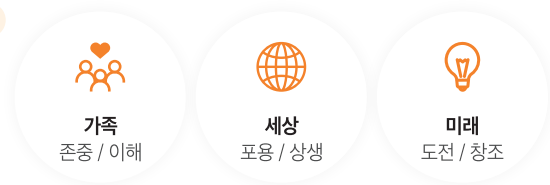
서울중구가족센터의 미션 및 비전, 핵심가치에 기반한 사업 목적과 목표 수립

- ◆ 나·가족·지역사회가 더불어서 함께 이루어가는 지역사회 모든 다양한 가족(맞벌이 가정 결혼이민자 직장맘과 그 가족)의 행복 실현을 위해, 가족·세상·미래를 잇는 행복 메이커로서 핵심가치 가족·세상·미래에 기반한 3가지의 목표 수립 [그림3]

미션 함께 만들어가는 중구 모든 가족의 행복 실현

비전 가족, 세상, 미래를 잇는 행복 메이커스

핵심가치



[그림3] 중장기 경영전략(비전, 미션, 핵심가치) [서울중구가족센터]

목적	성과목표	산출목표
결혼이민자 직장맘과 다문화 가족의 행복 실현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가족] 가족 간 이해와 지지 활동을 통한 가정 내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주말 활용 가족 동반 프로그램 4회기 이상 실시
		연인원 60명 이상 참여
		참여자 후기 중 '가족 활동 참여를 통한 가족 구성원의 지지 확대, 가족 간 역할 분담 등 가정 내 긍정적 변화' 관련 내용 3건 이상 수합
	[세상] 가족생활과 직장 생활 간 관리 정보 습득을 통한 일·가정 양립 수준 향상	가족·직장 생활 관련 정보 교육 10회기 이상 실시
		연인원 50명 이상 참여
		일·가정 양립 수준 사전·사후 변화 백분율 5% 이상 향상
[미래] 도전하는 삶을 위한 참여자 간 학습의 점검과 공유 기회 제공	학습의 점검과 공유를 위한 결혼이민자 참여자 대상 후속 모임 2회 이상 실시	
	프로그램 만족도 백분율 86% (4.3점/5점 만점) 이상	

기대효과

▶ 결혼이민자의 역량 증진 및 고충 해소를 통한 일·가정 양립의 균형적 삶 지원

- ◆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활동 중인 결혼이민자 여성의 일·가정 양립 및 삶의 균형도 점검과 가족생활·직장 생활 정보 습득, 관련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맞벌이 가정 다문화가족의 행복 수준 개선

▶ 직장맘의 여건과 코로나 상황 등 시의성 반응을 통해 모든 가족 행복 실현 노력

- ◆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화상회의 플랫폼과 서베이폼 활용 비대면 활동 추진
- ◆ 온라인의 강점과 직장맘 학습여건(평일 직장 점심시간·퇴근 후 저녁시간·주말 활용, 직장 또는 재택근무 중인 가정 내 공간 활용)을 고려한 일과 후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결혼이민자 직장맘에게 적합한 학습 환경 지원

▶ 기관의 중장기 미션과 비전에 기반한 2021~2023년 연속적 사업 전개를 통해, 중구 모든 가족의 행복 실현을 지원하는 가족 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 ◆ 지역사회 내 다양한 가족 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사회적 필요와 대상자 욕구를 반영한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정착단계 맞춤 사업 지속 추진

- ◆ 결혼이민자 직장맘과 가족 구성원의 역량 강화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하여 지역 사회 내 모든 다양한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가 가족·세상·미래를 잇는 행복 메이커스 역할 수행

사업 내용

I 차별화 방안

- ◆ 직장맘의 학습 여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및 집단교육이 쉽지 않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상회의 플랫폼(Zoom), 서베이폼 활용 비대면 교육 실시
- ◆ 참여자의 학습 선택권 확대 및 편의성 확보를 위한 정오 반/저녁 반 2개 반 개설
- ◆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인식 변화와 가족 문화 조성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가족 단위 주말 프로그램 추가 구성
- ◆ 사업 예산 확보 및 지역사회 가족 서비스 네트워크를 위한 외부 공모사업 연계

II 결혼이민자 직장맘 프로그램

- ◆ 대상 : 한국 거주 10년 이상 결혼이민자 직장맘
- ◆ 회기 : 총 12회기(정오/저녁 2개 반 개설, 각 6회기 운영)

차시	일정	내용		운영방법
1	[정오반] 10/26~11/30 매주 수요일 12:00~13:00	가족과 함께하는 나	- 행복한 삶과 균형 찾기, 일·가정 양립의 구성요소 - 직장맘의 딜레마: 일과 가정 사이 어려움 - 관계와 능력: 나의 유대감과 유능감 점수는?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교육 (ZOOM)
2			- 가족과의 상호작용: 시간과 활동의 양과 질 - 평소 가족 갈등의 주요 원인과 해결 방식 - 가족 간 대화 점검: 생산적 대화 vs 비생산적 대화	
3	[저녁반] 10/18~11/22 매주 화요일 19:00~21:00	세상과 함께하는 나	- 대한민국 직장 생활, 이런 것이 어려워요! - 프로 직장인을 위한 3가지 성공 Tip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자기관리능력)	
4			- 나의 일·가정 양립 제도 인식 정도 점검 - 개인, 가족, 직장 생활 등에 활용 가능한 제도와 혜택	
5		미래와 함께하는 나	- 10년 후, 20년 후 나의 비전 - 내일과 내 일을 위해, 꿈꾸고 도전하는 삶 - 계획된 우연 이론 / Here & Now 행복 충전 법	
6			- 소감 공유 및 변화 점검을 위한 후속 모임 - 지속 가능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TIP 공유 등	

주말 가족 동반 프로그램

대 상

정오 반/저녁 반 참여 결혼이민자와 가족 구성원(배우자, 자녀, 조부모 등)

차시	일정	내용		운영방법
1	11/19(토) 10:00~12:00	우리 가족 마음 듣기	- 가족 소개, 가족이 함께 만드는 팀 구호&별칭 - 가족 얼굴 그리기, 부모·자녀 커플 퀴즈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교육 (ZOOM)
2	11/19(토) 13:00~15:00		- 맞벌이 가정 이럴 때 속상해요(가족의 고민) - 우리 집 가사&돌봄은 누가 하고 있나요? - 함께 행복한 워라밸 시대, 우리 가족 소화행은?	
3	11/26(토) 10:00~12:00	우리 가족 응원하기	- 서로의 꿈 이야기(어릴 적 꿈, 변천사) 나누기 - 우리 가족 꿈끼 탐구생활: ㄱ 보드판 만들기	
4	11/26(토) 13:00~15:00		- 소원을 말해봐! 가족 소원 상자 만들기 -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삶의 다짐 - 서로의 꿈을 응원해요, 이렇게 노력할게요!!	

평가 및 결과

성과목표	성과지표	산출목표	추진실적	달성률
[가족] 가족 간 이해와 지지 활동을 통한 가정 내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운영회기	주말 활용 가족 활동 4회기 이상 실시	4회기	100%
	참여인원	연인원 60명 이상 참여	연인원 54명	90%
	성취도 및 변화 정도	참여자 후기 3건 이상 수합	3건	100%
[세상] 가족생활과 직장생활 관리 관련 정보 습득을 통한 일· 가정 양립 수준 향상	운영회기	결혼이민자 대상 교육 10회기 이상 실시	10회기	100%
	참여인원	연인원 50명 이상 참여	연인원 70명	140%
	성취도 및 변화 정도	일·가정 양립 수준 사전·사후 변화 5% 이상	6% 개선 (2.57점→2.41점)	120%
[미래] 도전하는 삶을 위한 참여자 간 학습 점검과 공유 기회 제공	운영회기	학습 점검과 공유를 위한 후속 모임 2회 이상 실시	2회기	100%
	프로그램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 4.3점(5점 만점) 이상 도출	4.83점	112%

▶ 참여자 만족도 : 전체 평균 4.83점(5점 만점 기준)

[결혼이민자 직장맘 프로그램] 4.9점 / [주말 가족 동반 프로그램] 4.7점

구분		평균 만족도	주제 내용	강사 평가	진행 시간	진행 과정	재참여 의사	참여 추천	비대면 운영의 적절성
결혼이민자 대상	정오반	4.9	5	5	4.8	5	4.8	5	4.8
	저녁반	4.9	4.8	5	4.8	4.8	5	5	5
가족 대상 주말활동		4.7	5	4.8	4.4	5	4.8	5	4.4
합 계		4.83	4.93	4.93	4.67	4.93	4.87	5	4.73

☞ 대부분 문항에서 4.8점 ~ 5점 사이의 우수한 만족도 도출. 다만 가족활동에서 '진행 시간 적절성'과 '비대면 운영의 적절성' 문항 응답이 4.4점으로 최하점을 기록함에 따라 참여자의 서술형 응답 확인 및 전화 모니터링 진행. 가족 단위의 교구(스토리 카드) 활용 활동임에 따라 대면을 선호하고, 2회기(4시간) 운영에 피로감이 있어 1회기(2시간)로 축소 운영을 희망하는 의견 확인함에 따라 추후 가족 단위 프로그램 추진 시 환류 예정

▶ 프로그램 참여 전·후 일·가정 양립수준 변화

일정	문항	평균		변화정도
		사전	사후	
일·가정 균형 (6)	1 직장 일이 너무 피곤해서 가족에게 신경 쓰기 힘들다	3.5	3.28	0.12점 ▼
	2 집에 있을 때도 직장 일을 생각할 때가 있다	4.13	3.75	0.38점 ▼
	3 직장 일이 많아 개인적 책임(육아, 가사활동 등) 다하기 어렵다	2.75	2.64	0.11점 ▼
	4 직장에서도 집에 가서 해야 할 일을 생각할 때가 많다	2.50	2.5	-
	5 개인적 책임(육아, 가사활동 등) 때문에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2.25	2.25	-
	6 집안일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직장에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없다	3.5	3.25	0.25점 ▼
일·여가 시간 균형 (5)	7 나는 직장 일로 인하여 여가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2.25	2.24	0.01점 ▼
	8 주말에는 피곤해서 여가활동을 하기가 힘들다	2	1.88	0.12점 ▼
	9 주중에는 직장 일로 인하여 여가활동이 불가능하다	1.88	1.63	0.25점 ▼
	10 직장 일로 인하여 여가생활이 어렵고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2.38	2.13	0.25점 ▼
일·개인 생활 균형 (8)	11 일과 여가생활을 서로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다	2	1.75	0.25점 ▼
	12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몸이 너무 피곤하여 개인생활을 하기가 힘들다	3	2.75	0.25점 ▼
	13 퇴근 후에는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2.38	2.13	0.25점 ▼
	14 일로 인하여 수면시간이 부족하다	3.63	3.5	0.13점 ▼
	15 직장 일로 인한 개인적인 삶을 즐기지 못하게 되어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2.13	2	0.13점 ▼
	16 평소애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	1.75	1.75	-
	17 나는 일에 치이다 보니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잊게 된다	2.5	2.38	0.12점 ▼
	18 나는 일과 자기 계발을 서로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다	1.75	1.63	0.12점 ▼
19 나는 일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힘들다	2.5	2.38	0.12점 ▼	
합 계		2.57	2.41	0.16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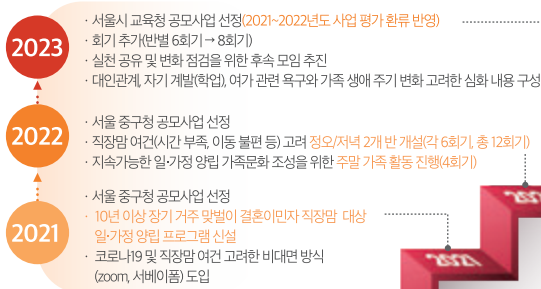
구분	평균	일·가정 양립 수준 변화		
		일·가정 균형	일·여가시간 균형	일·개인생활 균형
사전	2.57	3.1	2.1	2.5
사후	2.41	3	1.9	2.3
변화 정도	0.16	0.1점 ▼	0.2점 ▼	0.2점 ▼

- ☞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수준은 개인/가족의 행복수준과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연구 내용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과 행복수준에 관한 연구. 김경미. 2017) 반영한 척도 활용
- ☞ 일·가정 양립에 필수적인 일·가정·여가시간·개인생활 간 균형 수준 파악을 위한 3가지 영역 총 19가지 문항의 사전 사후 변화 측정에서 대부분 항목이 고르게 개선
- ☞ 특히 '집에 있을 때도 직장 일을 생각할 때가 있다' 문항이 가장 크게 개선. 프로그램 진행 시 가정 및 직장 내 다양한 역할 부담으로 인한 고민(애로사항) 토로와 일과 가정 간 분리의 필요성, 참여자 간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해 심적 부담감 해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
- ☞ '일·여가시간 균형' 영역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프로그램 진행 시에도 현재 여가생활 부재로 인한 고충과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가 활발함을 확인

Ⅱ 차년도 환류

: 가족 생애 주기와 욕구 변화를 반영한 개인 활동 강화 및 심화 내용 구성

- ◆ 대다수가 10~20년 정도의 장기 거주자로서 청소년기 이상 자녀를 둔 40~50대였으며, 가족 생애 주기 변화에 따라 가족 단위 활동보다는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여행, 운동, 취미활동) 관련 욕구 확인. 4회기의 가족활동을 삭제하고 자기 돌봄 및 구성원 간 소통 프로그램 등으로 전환하여 8회기로 확대 예정
- ◆ 이미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취업에 성공한 결혼이민자임에 따라, '직장 및 사회에서의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대학원 수학 및 학업 지속, 전문자격 취득 등)에 대한 고민과 집중도가 높았으며 적극적인 질의 모습 확인. 2023년도 사업 추진 시, 관련 주제 및 내용을 강화하고 전문강사 섭외에 반영 예정 [그림4]



[그림4] 2021~2023년도 사업 추진 및 운영 경과 [서울중구가족센터]



화성가족!! 지화자~~!! “지구를 위한 화성시공동육아나눔터의 자발적 실천”

권민혜 화성시가족센터

사업기간

2022년 1월 3일 ~ 2023년 12월 30일 (1,166회기)

필요성

■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 목표인 ‘지속가능한 발전’ 동참

2030까지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 목표인 지속가능 발전은 국제적인 약속이자 정책 도구로서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기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한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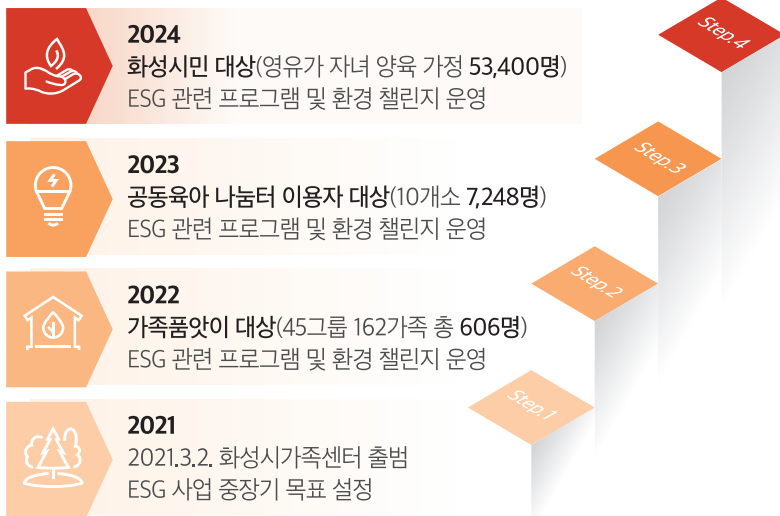
■ ESG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가족과 지역주민의 자발적 실천의 장 필요

2021년 화성시가족센터 출범과 더불어 ESG사업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한 가운데 화성시공동육아나눔터는 지속가능발전목표(ESG) 프로그램을 2022년 가족품앗이 대상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공동육아나눔터 참여자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사회 다양한 문제와 과제들을 가족 단위 → 품앗이 가족 단위 → 지역사회 단위로 확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 개인·가족 이기주의와 고립 해소 및 글로벌 가족으로의 발돋움

개인 또는 가족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의 문제들을 개인과 가족의 일로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여 글로벌 시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그 중심을 ESG의 핵심가치에 두고 연간 프로그램을 상호 연결하여 진행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업목적 및 목표



사업목적

화성시 전역의 위치한 화성시공동육아나눔터(10개소) 중심으로 ESG 실천을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가족의 성장과 더불어 마을,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하고 긍정적인 생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목표 1 참여자들의 자발적 실천을 통한 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 ① ESG 관련 교육 개소별 연 1회 이상
- ② ESG 관련 프로그램 및 환경 챌린지 연 5회 이상

목표 2 화성시공동육아나눔터(10개소) 기반의 자원순환 실천

- ① 권역별 장난감 병원 연 6회 이상
- ② 가족품앗이 주도 아나바다 장터 1회 진행

목표 3 지역주민 주도형 공유 생활 활성화

- ① 자원 재생·공유 및 취약계층 연중 상시 지원
- ②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연계

기대효과

- ◆ ESG 개념을 확립하고, 가족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 및 자원순환을 생활화한다.
- ◆ 마을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SG 실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공유한다.

사업 내용

사업일시 2022. 1. ~ 2023. 12.

사업대상 화성시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및 가족품앗이 회원

사업일정

구분	사업일정		진행내용	장소	회기	인원
E	환경채린지 / 캠페인	'22 4월	- 4월 22일 지구의 날 소등행사	각 가정	1	300
		'23 6월	-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 세계 환경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실시	각 가정	10	100
		'22 ~ '23. 8월	- 8월 22일 에너지의 날 (불을 끄고, 별을 켜다) 에너지 절약 캠페인	각 가정	1	300
	'23	7월	- 7월 3일 세계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 (장바구니 지급) 캠페인	각 가정	10	100
		9월	-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 폐건전지 수거 (지자체 진행 폐건전지 교환사업과 연계)	10개소	1	300
인식 개선	'22	4월	- 가족품앗이 대상 ESG 교육 (품앗이 리더 교육)	8개소	1	80
		5월	- 가족품앗이 대상 제로웨이스트 제품으로 일주일 살아보기 미션 실시 - 다같이 줍깅 : 환경보호 활동으로 집 주변 환경미화 활동 후 인증	8개소 6개소	1 1	450 300
	'22 ~ '23	11월	- 세계아동의 날 홍보 캠페인	10개소	2	600
			- UN아동인권선언 홍보 캠페인			
S	토이사이클	1 ~ 12월	- 장난감 대여사업	4개소	1,100	14,000
		6 ~ 7월	- 장난감 병원 운영 - 지점별 연 1회 장난감 병원 운영 (9월 개소 지점 장난감 거점병원 상시 운영)	10개소	10	150
		12월	- 장난감 기부사업 폐장난감 수리 후 국외 취약계층 지원	-	1	50

구분	사업일정	진행내용	장소	회기	인원
S 리사이클링	'23. 4월	- 플프마켓 (아나바다+문화체험+ESG 실천 약속)	본소	1	300
	'23. 10월	- 폐품 활용 활동 (폐장난감, 재활용품)한 정크아트	1	1	10
G 지역사회연계	연중	- 노인 일자리 연계 (어르신 파견 - 장난감 소독 및 정리)	10개소	1	25
	3 ~ 11월	- 책 읽어주는 날 (자원봉사자 월 1회 프로그램 진행)	2개소	3	15
	5 ~ 6월	- 유관기관 연계 (어린이집 + 다함께돌봄센터)	10개소	10	100
G 공유경제	2월	- 지역상생발전 - 사회적 협동조합 협약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진행(특별한 하루)	관내	10	500
	5월	- 취약계층 지원 - 아나바다 수익금으로 장난감 구입 및 다문화 가정에 기부	-	1	1

총 1,166회기 진행, 17,681명 참여

사업체계도

화성시 공동육아 나눔터 다가치 (다같이) ESG



평가 및 결과

구분	2022년	2023년
<목표 1> 자발적 실천을 통한 환경에 대한 인식개선		
1-1 ESG 관련 교육 개소별 연 1회 이상	- 가족품앗이 대상 세계 시민교육 연 1회 진행 136명 참여, 만족도 4.51점	- 9월 환경교육 프로그램 1회 이상 진행 예정
1-2 ESG 관련 프로그램 및 환경 챌린지 연 5회 이상	- 가족품앗이 대상 7개의 환경 챌린지 프로그램 목표 대비 140% 달성	- 4월 소등행사 캠페인 1회 진행 - 6월 세계 환경의 날 - 7월 장바구니 사용의 날 - 8월 에너지 절약의 날 - 9월 자원순환의 날 - 11월 세계 아동의 날 등 각 1회 캠페인 & 챌린지 진행 예정
<목표2> 화성시공동육아나눔터(10개소) 기반의 자원순환 실천		
2-1 권역별 장난감 병원 연 6회 이상	- 개소별 장난감 병원 6회 운영 100% 달성	- 6월 장난감 병원 6회 운영 예정
2-2 가족품앗이 주도 아나바다 장터 1회 진행	-	- 4월 가족품앗이 프로그램 '도심팍 그린 문화장터' 1회 진행
<목표3>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공유 생활 활성화		
3-1 자원 재생·공유 및 취약계층 연중 지원	-	- 2월 튀르키예 지진 사태 구호 물품 전달 1회 진행 - 5월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 장난감 구매 기부 1회 진행 - 11월 국외 취약계층 장난감 기부 1회 진행 예정
3-2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연계	-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연계 1회	-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버섯 농장, 서해랑 케이블카, 딸기농장 등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진행

■ 만족도 평가 및 이용자 의견

내용		인원/ 만족도	이용자 의견
인식 개선	- 가족팍아이 리더 교육 - ESG 실천방법	136/ 4.51	“막연하게 생각했던 세계 문제를 세계시민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짐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와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지 예시도 주셔서 그대로 아이와 함께 이야기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줍킹 동네 한 바퀴	317/ 4.84	“온 가족이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라 좋았고 줍킹 일주일 후에 6살 아이가 길거리 쓰레기를 보더니 또 참여하고 싶다고 하네요. 평소 자주 다니는 길을 내 손으로 깨끗하게 했다는 생각에 뿌듯합니다. 놀이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를 위한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는 교육적 프로그램이어서 좋았습니다.”
	가족팍아이 대상 제로웨이스트로 일주일 살아보기	546/ 4.77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일상에서 실천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천함으로써 가족 모두 환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자원 순환	도시에 그린 문화장터 - 아나바다 장터	323/ 4.76	“아이들에게 아나바다 장터에 대해 설명해 주고 준비하는 과정이 나름 신선하고 좋은 추억으로 남습니다. 지구의 날을 맞아 버려지는 장난감 재탄생, 폐건전지 수거, 지구의 날 소동행사 참여 서약 등 내용도 알차고 아이들과 지구의 날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기회가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공유 생활	지역상생발전 - 특별한 하루	600/ 4.89	“온 가족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좋았습니다. 맛있는 딸기도 먹고 동물도 만나는 즐거운 봄나들이였습니다. 화성시에 체험할 수 있는 농가가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 종종 찾아가 아이들과 체험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 자체 평가

- ◆ 2021년 가족센터 통합과 함께 중장기 사업 목표로 윤리경영에서 확대된 ESG 경영을 구성하여 출범하였고, 이후 포괄적인 삶의 가치들을 포함하는 ESG 핵심가치들을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사회 다양한 문제와 과제들을 가족단위, 마을 단위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 2022년 공동육아나눔터 가족품앗이를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 지구의 날 소등행사, 6월 환경의 날 그림 그리기 이벤트, 에너지의 날 소등 끄기, 제로웨이스트 미션 수행** 등을 연간 진행하여 지구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친화적 사고 및 실천 계기의 장을 마련하였음. 품앗이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챌린지 프로그램에 쉽고,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단위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 ◆ 2023년에는 ESG 관련 프로그램을 화성시공동육아나눔터의 모든 참여자로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챌린지 진행을 통해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형성하고자 함



생애 주기별 아버지 역할 지원 [요즘 아버지] 시리즈

손경여 사천시가족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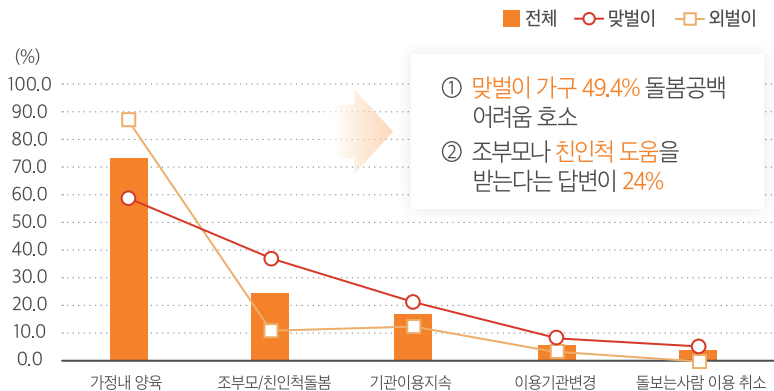
사업기간

2022년 3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16회기)

필요성

사회학적 배경

▶ 맞벌이 가구 돌봄 공백 해소, 조부모 교육의 필요성 대두



휴원 이후 자녀 양육 서비스 이용 실태 - 전체아동(만0~8세)

<출처 : 육아정책연구소 <https://repo.kicce.re.kr/>>

Ⅰ 가족 내 개인 가치 부각, 젠더 갈등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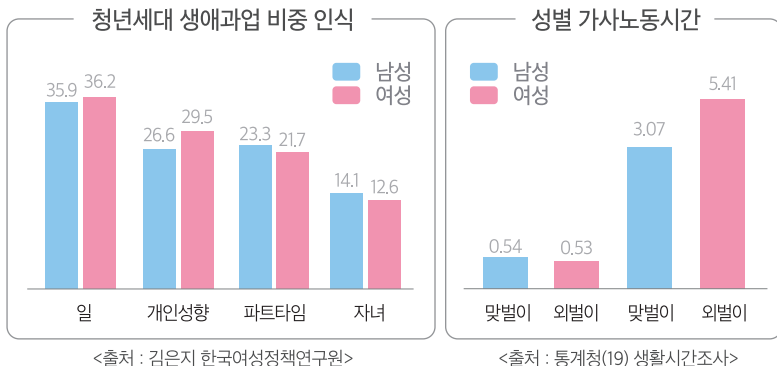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 정책환경

가족 내 개인 가치부각, 젠더갈등 지속

- ◆남녀 모두 일을 중시, 가족 내 성역할 인식은 평등을 지향하나, 가사/돌봄 분담에서의 불평등 여전, 남녀갈등 지속

*청년세대남녀 모두 과업 1순위가 '일'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1일 평균): 여 3시간 7분, 남 54분



Ⅰ 성인 자녀와 부모관계 개선을 위한 소통 프로그램 필요

- ◆대부분 모계와의 친밀감 더 높음
-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노부모와 성인 자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음

<출처 : 성인중기가족체계, 성인자녀와 부모관계 일부 발체>

지역적 특성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강화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강화에 대해서는 ‘아버지 교육’의 필요도 평균이 3.9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부모교육’ 3.92점,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 3.86점,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제공’ 3.83점 순으로 나타남

일(직장)·가정 조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일(직장)·가정 조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산이 19.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 18.7%, ‘일 및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인식 확산’ 14.4%, ‘경력 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12.4%, ‘남성들의 육아 가사 참여 지원’ 11.4%, ‘초과 근무 시간이 단축’ 10.9%, ‘가족친화 기업 문화 확산’ 10.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기타’가 0.4%로 가장 낮게 나타남

중·장년기 가족을 위한 사업 강화

중·장년기 가족을 위한 사업 강화에 대한 필요도를 살펴보면, ‘배우자 이해, 의사 소통교육’의 필요도 평균이 3.9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재무교육, 은퇴교육’ 3.87점, ‘중년 남성 프로그램’ 3.71점, ‘중·장년기 부부학교’ 3.67점 순으로 응답함 (2021년 사천시 가족실태조사 및 가족서비스 요구도 조사) 보고서 참조

사업목적 및 목표

사업목적

- ◆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녀와의 친밀감 및 아버지 양육 효능감 증진
- ◆ 격대교육을 통하여 조부들의 역할 강화 및 자존감 향상
- ◆ 중년 남성의 가사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 ◆ 부자지간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친밀감 증진과 소통의 계기 마련

사업목표

- ◆ 프랜차이즈 5회기, 굿쪽같은 내 손주 3회기, 주부의 로망 6회기, 3070 부자캠프 2회기 총 16회기 진행

- ◆ 다문화가족 50%, 비다문화가족 50% 비율로 대상자 모집
- ◆ 만족도조사 5점 만점 척도에 4.5점 이상 달성
- ◆ 생애 주기별 아버지들의 역할 강화 및 가족의 건강성 증진

기대효과

- ▶ 세대별 아버지의 자신감 및 자존감 향상
- ▶ 부모 자녀 간 친밀감 및 가족 건강성 증진에 기여
- ▶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가족 간의 관계 개선
- ▶ 삶의 변화에 적응. 자립을 통해 자기효능감 향상
- ▶ 성인 자녀와 아버지 간 친밀감 증진 및 즐거운 추억을 선물
- ▶ 세대별 서로의 삶과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기회 제공

사업 내용

① [요즘 아버지] 시리즈1_프랜대디

회기	일정	대상	장소	내용	비고
1	3. 27.(일) 10:00~12:00	초등 고학년 ~ 중학생 사춘기 자녀를 둔 가족 10가정	센터 201호	• 서로의 마음 알기 - 인사 및 친해지기 - 아빠의 고민, 나의 고민 나누기	경남 가족학교 연계
2	4. 3.(일) 10:00~12:00			• 질문 대화법으로 소통하기 - 사춘기, 생각에 봄이 오는 시기 -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	하브 루타 교육
3	4. 10.(일) 10:00~12:00			• 공부!!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 -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 아빠 공부법, 나의 공부법	
4	4. 17.(일) 10:00~12:00			• 하브루타머니십 - 돈이란 무엇일까? - 아빠의 돈 교육	
5	4. 24.(일) 10:00~12:00			• 아빠의 비전 나의 비전 - 아빠의 꿈을 공유한다. - 자녀의 꿈을 찾아본다.	

② [요즘 아버지] 시리즈2_금쪽같은 내 손주

회기	일정	대상	장소	내용	비고
1	4. 15.(금) 10:00~12:00	4~12세 손자녀를 둔 할아버지 및 할머니 10명	센터 20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옛날과 다른 손자녀 양육법 - 가족 간의 역할 이해 및 아동 발달의 이해 - 아동의 발달에 맞는 책 읽어 주기 및 놀이 방법 배워보기 	개별 상담 필요시 상담팀 연계
2	4. 22.(금) 10:00~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이 되는 칭찬 vs 약이 되는 칭찬 - 사례를 통한 손주 돌보기 전략 짜기 	
3	4. 29.(금) 10:00~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서갈등 - 주 양육자와의 갈등 해소법 	

③ [요즘 아버지] 시리즈3_주父의 로망

회기	일정	대상	장소	내용	비고
1	5. 6.(금) 19:00~21:00	30~ 70대 살림에 관심 있는 중·장년 아버지 12명	맛드림 요리 학원	•로제 닭갈비 파스타	요리
2	5. 13.(금) 19:00~21:00			•칠리 바비큐 폭잡	
3	5. 20.(금) 19:00~21:00			•레몬크림새우	
4	5. 27.(금) 19:00~21:00			•치즈떡볶이	
5	6. 3.(금) 19:00~21:00		센터 201호	•처음 온 손님도 찾기 쉬운 주방 정리	수납
6	6. 10.(금) 19:00~21:00			•정리의 달인이 될 수 있는 옷장 정리	

④ [요즘 아버지] 시리즈4_3070 부자캠프

일정	대상	장소	시간	내용
10/1 (토)	사천시관내 30~70대 아들과 아버지 10쌍 (아버지와 아들2명 중 1명이 사천 거주 시 참여가능)	전남 여수 일원	9:00~10:30	이동(센터 - 여수)
			10:30~12:00	*바다 산책 in 오동도 미션 1: 바다를 배경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인증샷 전송
			12:00~13:00	점심 식사

일정	대상	장소	시간	내용
10/1 (토)	사천시관내 30~70대 이들과 아버지 10쌍 (아버지와 아들2명 중 1명이 사천 거주시 참여가능)	전남 여수 일원	13:00~13:30	이동(오동도 - 이순신 광장)
			13:30~15:30	*전지적 부자 시점 : 이순신 광장 투어 미션 2 : 아버지와 아들 맞집 투어 인증샷 전송
			15:30~16:00	이동(이순신 광장 - 라마다프라자 여수)
			16:00~17:30	체크인 및 휴식
			17:30~19:30	이동 및 저녁식사
19:30~20:40			*아들~ 힐링을 부탁해 : 빅오쇼 관람 미션 3 :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하는 1달 메시지 전송	
20:40~			숙소 이동, 휴식 및 취침	
10/2 (일)			8:30~10:00	기상, 체크아웃 아침식사
			10:00~10:30	이동(숙소 - 아쿠아리움)
			10:30~12:30	*평생 남을 추억 : 아쿠아리움 체험 미션 4 : 여행후기 제출, 커플컵 배부, 만족도조사
	12:30~14:00	점심 식사		
	14:00~15:30	이동(여수 - 센터)		

평가 및 결과

I 양적 평가

구분	계획	추진실적	달성율
진행회기	16회기	16회기	100%
연인원	230명	204명	89%
만족도	4.5점	4.76점	106%

*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연인원 미달성

II 질적 평가 및 결과

- ◆ 프랜대디 : 사춘기 자녀들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계기 마련. 아버지로서의 자신감 향상
- ◆ 금쪽같은 내 손주 : 손자녀 육아에 대한 고민 및 스트레스 해소. 손자녀 양육 효능감 향상
- ◆ 주부의 로망 : 중년 남성들의 변화하는 삶에 적응·자립 기회 제공.
가정 내 양성평등 분위기 확산
- ◆ 3070부자캠프 : 부자기간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 마련.
건강한 가족 분위기 조성



결혼이민자 강점 개발 프로젝트 “다문화알(면) 쓸(모있는) 잡(JOB)대학”

정다운 달서구가족센터

사업기간

2022년 4월 26일 ~ 2022년 11월 15일 (102회기)

필요성

다문화가족의 언어적, 경제적 어려움 호소

다문화가족은 한국생활의 주된 어려움을 언어 문제(22.9%), 경제적 어려움(21.0%)으로 손꼽고 있으며 결혼이민자·귀화자는 일자리 소개(3.27점/5점 기준), 한국 사회 적응교육(3.10/5점)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고용 안정성을 위한 역량개발 필요

결혼이민자의 취업상태를 살펴보면, 직종의 경우 단순노무 종사자(29.9%)가 가장 많으며, 이어 서비스 종사자(23.9%),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13.6%)로 나타남. 취업 직종은 저임금, 사회적 인식이 낮은 단순 노무, 서비스에 주로 분포하여 취업역량 개발 및 미래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

사회적 관계 회복 위한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 및 활동 지원의 경우 2.6%에 불과하여 결혼이민자·귀화자 가족이 받는 교육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임

지난 1년간 각종 모임·활동 참여 경험 비율은 2015년 대비 전체적으로 다소 감소함. 이는 체류 기간이 장기화되고 한국어 능력은 향상되었지만, 사회적 관계는 개선되지 못한 채 오히려 소외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를 보여줌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사업목적 및 목표

경제적 자립 및 사회적 참여 통한 결혼이민자 주체적 삶 지원

- ◆ 결혼이민자 취업 역량 강화 및 자긍심 고취
 - 결혼이민자 강점 파악 및 개발
 - 전문교육 및 인문학적 소양 습득
 - 결혼이민자의 자발성 및 성취감 획득
- ◆ 결혼이민자 맞춤형 일자리 개발
 - 전문 컨설팅 통한 효과적 취업전략 구축
 -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망 확대
 - 긍정적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
 - 동일 학과 학생 간 소속감 및 친밀감 증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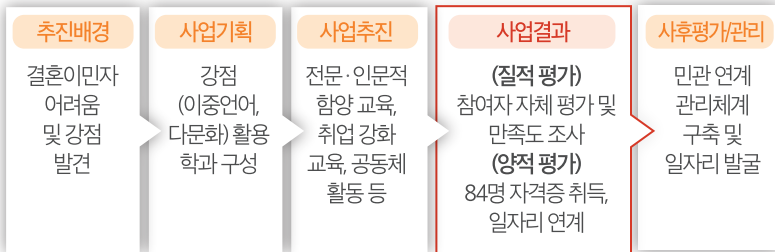
- ▶ 결혼이민자 취업 역량 강화 및 자존감 향상
- ▶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및 활동성 향상
- ▶ 사회적 관계망 통한 심리적 건강성 회복
- ▶ 지역사회 내 긍정적 다문화 인식개선 도모
- ▶ 다양성 존중 사회로의 변화에 기여

사업 내용

사업개요

- 사업 대상** 취업욕구가 있는 결혼이민자 48명(총 1,330명), 전문강사 4명
- 사업 구성** 대학과정 통한 사업의 전문성과 체계성 구축 및 원스톱 서비스 지원
- (동기 및 성취감 형성) 입학식 및 졸업식
 - (강점 활용 전문교육) 3개 분야 전공수업
 - (취업 역량 강화) 취업컨설팅 및 취업캠프
 - (사회성 향상) 조별 실습, 지역사회 내 인식개선 활동
 - (한국 사회 적응) 한국민화 교양수업, 부모교육, 소비자교육 등
 - (민관 관리체계 구축) 취업 정보 제공 및 취업처 발굴 지원

사업 운영



1) 결혼이민자 강점 활용 학과 운영

- 결혼이민자 강점(이중언어 사용, 다문화가족)을 활용한 3개 분야 학과 개설 및 학과별 자격증 2가지 취득을 통한 취업 역량 강화

학과명	강점	취득 자격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과	언어적 강점	기초 통번역 과정,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
생애개발상담학과	출신 배경의 유사성	다문화심리상담사, 아동심리상담사, 자기주도학습코칭지도사
아동교육학과	공동육아	놀이교육지도사, 방과후 교육지도사

2) 취업 역량 강화 캠프 실시

- 매력적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실전 모의면접, 퍼스널 컬러 진단 및 케어 등 취업 기초 교육 제공. 취업 준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및 자신감 회복에 도움을 주어 4.67점/5.00점의 높은 만족도를 얻음

3) 다양한 그룹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 **다문화 인식개선 활동** : 팀원 간 다회기 교류 및 긍정적 에너지를 주고받았으며, 축제와 연계한 퍼포먼스를 통해 지역사회 내 다문화 사회 도입 등 유의미한 메시지를 전달하였음
- **민화전시회** : 학과별로 서로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역주민에게 결혼이민자의 한국 문화 습득의 노력을 알리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임
- **조별 실습** : 놀이교육지도사 자격 취득자 간 그룹을 구성하여 지식 공유의 장의 마련 하였으며, 활발한 사회적 활동을 위한 동기부여 기회 제공함

4) 내외적 관리체계 구축

① 전문적 및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 대학교수 추천 통한 전문강사 채용,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업환경 조성
- 학과별 회장, 부회장 선출을 통한 모범적 역할 부여 및 참여자 주도형 분위기 조성
- 반별 출석부 통한 출석 관리, 장기 결석자 유선연락 통한 수업 참여 독려

② 외부 자원 연계 사업의 양적·질적 향상

- 전공교육을 통한 취업 역량 강화 외에 소비자교육중앙회 연계 소비자교육, 타사업 연계 부모교육 특강과 같이 다양한 실생활 교육을 제공하여 결혼이민자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도움
- 계명문화대학교 연계한 학과 설명회 통해 연속적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

③ 민관 협력체계 조성

- 여성인력개발센터 업무협약, 달서구가족센터 사업 인력 취업 정보 제공

④ 사후 관리체계 구축

- 기존 운영되었던 SNS 활용한 소통 창구 유지
-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일자리 개발 지원
- 2023년 2년 차 사업의 연속적 운영

평가 및 결과

체계적 대학과정 통한 결혼이민자 전문적 역량개발

- ◆ 자격 취득부터 실습 및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진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결혼 이민자의 전문성 함양. 평균 4.80점/5.00점의 높은 만족도 달성

학과명	졸업 현황	진출 분야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과	18명/22명 (82%)	(통번역) 통역사, 번역사 등
생애개발상담학과	13명/13명 (100%)	(상담) 코디네이터, 사례관리사 등
아동교육학과	11명/13명 (85%)	(놀이지도)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품앗이 등

- ◆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처 발굴 및 근로활동 연계로 지역사회 내 활동성을 높임
- ◆ 전문지식 및 취업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임

결혼이민자 신규 취업처 및 맞춤형 일자리 발굴

- ◆ 통번역 기초과정 수강 학생 번역 일자리 계약
- ◆ 통번역 기초과정 수강 학생 대구가정법원 전문상담위원 추천
- ◆ 센터 전문 사업 인력 발굴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됨
(통역풀, 다문화코디네이터, 이중언어강사 등)

결혼이민자 주체적 삶 설계 통한 긍정적 자아상 확립

- ◆ 사전·사후 자아존중감 척도검사 결과, 참여자 76%가 사전 대비 사후 향상된 점수 또는 동일한 점수를 보였음.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및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결혼 이민자의 자신감 및 자존감 향상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됨

Ⅰ 대인관계 및 사회적 관계 발달

- ◆ 다문화가족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언어적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에게 통번역 지원 및 상담 등 기회를 가짐
- ◆ 학과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출신국, 거주지, 나이 등 공통점을 발견하여 더욱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음





1인 가구 환경특강 및 에코 챌린지 “동일이의 초록생활”

오이슬 동대문구가족센터

사업기간

2022년 2월 23일 ~ 2022년 8월 31일 (4건 13회기)

필요성

Ⅰ 급속도로 증가하는 1인 가구 현황

- ◆ 2021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의 비중은 2021년 33.4%인 716만 6천 가구로 전체 가구 10가구 중 3가구는 1인 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35.6%, 2050년에는 39.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 광역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 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인 가구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Ⅱ 1인 가구 친환경 및 분리배출 관련 교육의 필요성 증가

- ◆ 최근 기후 위기, 대기·해양·토양·수질 오염, 동식물 오염 등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이에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환경보호 프로그램, 쓰레기 재활용과 분리수거, 친환경 제품, 지속 가능한 소비** 등이 각광받고 있음
- ◆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소포장 상품, 배달 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폐기물과 분리수거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2020년 서울디지털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의 하루 평균 일회용품 배출량은 30개로 다인 가구(13개) 보다 인당 3.32배 많았으며, 분리수거를 안 한 채 내놓는 쓰레기도 많은 상황임

1인 가구 환경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고찰

- ◆ 이에 센터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빈도가 높은 1인 가구의 일상생활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 인식개선과 환경보호의 필요성, 실생활에서 분리수거법, 쓰레기 재활용법에 대한 교육을 기획하였으며, 친환경 활동에 대한 1인 가구의 관심과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에코 챌린지, 업사이클링 체험, 리필 스테이션 등을 함께 운영하고자 함

사업목적 및 목표

사업목적

환경교육과 체험활동을 통해 1인 가구의 일상생활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 가치를 확산하며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제공하여 이웃 간 나눔 및 교류를 증진함

사업목표

목표 1. 1인 가구 환경교육 및 체험활동을 통한 일상생활 역량 강화

- 1-1. 환경보호 필요성, 분리수거 방법 등 친환경 교육 4건 3회기 운영
- 1-2. 일상생활에 적용 가능한 친환경 체험활동 4건 3회기 운영
- 1-3. 실인원 40명, 연인원 120명 이상 참여

목표 2. 지속 가능한 소비를 주제로 한 1인 가구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 2-1. 친환경 활동을 주제로 한 온라인 소통 창구 개설
- 2-2. 1인 가구가 이용 가능한 친환경 공유 공간 운영
- 2-3. 이용자 만족도 4.5점(5점 척도) 이상 달성

기대효과

- ◆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환경보호의 필요성, 재활용과 분리배출, 제로 웨이스트 등 친환경 활동의 중요성을 교육하여 지속 가능한 소비 가치를 확산시킴
- ◆ 에코 챌린지 및 분리배출 방법, 업사이클링 등 일상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친환경 활동을 경험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
- ◆ 리필 스테이션 공간 운영, 에코 챌린지 활동 공유를 위한 온라인 소통 창구 등을 운영 하여 친환경을 주제로 한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내용

사업 대상 : 동대문구 생활권 1인 가구

구분	산출 근거	대상자 수
일반 집단	동대문구 거주 가구 수	168,219가구
표적 집단	동대문구 생활권 1인 가구	65,290가구
클라이언트 집단	표적 집단 중 서비스 신청 1인 가구	56가구

사업세부내용

① 사업 구성표

환경보호 필요성 일상에서의 환경보호 적극적인 환경보호 지속적인 친환경 활동



② 사업 진행 결과

구분	시기	유형	주제	인원	만족도	비고
1건	2월	교육 및 체험	- 친환경 시대에서 필환경 시대로	20명	4.79점	비대면
2건	3월		- 손쉽게 배우는 분리배출 방법	56명	4.63점	비대면
3건	6월		- 일상생활에서의 제로웨이스트 - 업사이클링(새활용) 3종 체험	44명	4.88점	대면
4건	8월		- 에코 챌린지 및 리필 스테이션 이용	44명	4.66점	비대면

③ 회기별 세부내용

회기	유형	주요 내용	준비사항				
1 회기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1인 가구, 친환경 시대에서 필환경 시대로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의 일상생활 쓰레기 발생 현황 - 환경문제의 심각성 인지(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 - 기후변화에서 기후 위기로의 전환 ■ 기대성과 : 1인 가구가 발생시키는 환경문제를 인지하고 해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 인식 제고 	참가자 출석부, 만족도 조사지, 현수막, 볼펜 등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폐의류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의류(청바지)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 페트병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 기대성과 : 실제 업사이클링 용품을 접해보고, 체험해 봄으로써 친환경 물품에 대한 이해 증가 ■ 비고 : 에코 챌린지 참여 공지 및 패키지 배부 (수행 예시 사진 및 미수행 시 키트 반납) 	폐청바지, 가위, 바늘, 실, 에코 패키지 등				
2 회기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손쉽게 배우는 1인 가구 분리배출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도 할 수 있는 올바른 분리배출법 - 쓰레기 '재사용'과 '재활용'의 차이 - '재활용'을 넘어 '새활용'으로 	참가자 출석부, 만족도 조사지, 현수막, 볼펜 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재사용</td> <td>한번 사용한 물품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재활용</td> <td>못 쓰게 된 자원을 다른 곳에 쓰거나 다른 것으로 만들어 다시 이용하는 것</td> </tr> </table>		재사용	한번 사용한 물품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	재활용	못 쓰게 된 자원을 다른 곳에 쓰거나 다른 것으로 만들어 다시 이용하는 것
		재사용		한번 사용한 물품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			
재활용	못 쓰게 된 자원을 다른 곳에 쓰거나 다른 것으로 만들어 다시 이용하는 것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새활용</td> <td>재활용할 수 있는 옷이나 의류 소재 따위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가치를 높이는 일</td> </tr> </table>	새활용	재활용할 수 있는 옷이나 의류 소재 따위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가치를 높이는 일					
새활용	재활용할 수 있는 옷이나 의류 소재 따위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가치를 높이는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성과 : 일상생활과 밀접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배출 교육을 통한 1인 가구의 생활 역량 강화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생활용품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말목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생활용품 소개 - 양말목 '냄비 받침' 만들기 ■ 기대성과 : 일상용품인 양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체험을 통해 친환경에 대한 친밀감 증가 	양말목 키트, 관련 자료 등				

회기	유형	주요 내용	준비사항
3 회 기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우리도 할 수 있다! 제로웨이스트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 소포장 용품 소개 및 쓰레기 발생 문제 - 다양한 제로웨이스트 운영사례 소개 - 일상에서의 제로웨이스트 실천, 리필 스테이션 이용 ■ 기대성과 : 일상생활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로 성장 	참가자 출석부, 만족도 조사지, 현수막, 볼펜 등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자투리 가족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투리 가족 공예 소개 - 자투리 가족으로 카드지갑 만들기 ■ 기대성과 : 다양한 물품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활동을 접하며 친환경 활동 관련 호기심 증대 	자투리 가족, 실, 바늘, 가위 등
4 회 기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자발적으로 일상에서 친환경 활동하기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키지 활용 및 리필 스테이션 이용 인증샷 업로드 - 에코 챌린지 활동 내역 공유 및 우수 참여자 시상 - '친환경 활동' 참여 소감 나누기 ■ 기대성과 : 일상에서 실천했던 친환경 활동 소감을 함께 공유하며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유도 	참가자 출석부, 만족도 조사지, 리필 스테이션 설치 등

사업추진전략

① 체계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단계별 전략 수립

순서	단계	사업 추진전략
1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1인 가구 지원 사업 환류 방안, 이용자 요구도 조사 결과 분석 - 동대문구 지역 인적·물적 자원 활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자원 관리 계획 : 외부 교육 강사 관리 및 모니터링 · 물적 자원 관리 계획 : 동대문구청, 동대문오랑 등 자원 연계 - 네트워킹 : (주)프로젝트 연, 자연과학문화 플레이센터 -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코로나19 확산 예방 계획 포함)
2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대상자 모집 - 홍보물 제작 : 동영상, 현수막, 배너, 리플릿, 포스터, 카드 뉴스 등 · 오프라인 홍보 : 홍보지 제작 후 센터 내 홍보지 게시 및 동대문구 유관기관, 관내 종합대학 발송

순서	단계	사업 추진전략
2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홍보 : 센터 홈페이지, 패밀리서울, 1인 가구 포털, SNS(인스타그램, 블로그), 관내 대학교 커뮤니티 등 홍보지 게시 - 홍보 연계 · 사전 홍보 연계 : 센터 동영상 상영, 홍보물(리플릿, 포스터) 배포 · 사후 홍보 연계 : 월별 프로그램 안내지 배부, 신규 프로그램 문자 안내, 프로그램 후기 홈페이지 및 블로그 게시, 이용 후기 공모 등
3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사전 안내 · 대상자 문자 사전 안내 문자 발송 및 당일 전화 안내 · ZOOM 사용 방법 안내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진행 - 프로그램 준비 · 강의 장소 및 강사 섭외 · 친환경 에코 패키지 포장 및 사전 배포 · 프로젝트, 조명, 음향기기, 화상캠, 마이크, 헤드셋, 온라인 플랫폼 등 기자재 설치 및 방역 상태 점검
4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진행 · 준비물 : 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 용액, 컴퓨터, 현수막, 출석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사진 및 영상 촬영 동의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지 (구글 설문), 교육자료, 볼펜, 카메라 등 - 사진 촬영 및 프로그램 일지 작성, 회기별 피드백 회의 진행
5	점검 ·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평가·비교·분석 · 정기점검 : 프로그램일지, 사업 평가서 관리, 실무진 평가회의 등 · 정량평가 : 참여 인원, 이용자 만족도 점수 등 · 정성평가 : 평가회의 결과, 슈퍼비전, 이용자 의견(참여 후기) 등 - 이용자 후기 분석 및 환류 반영하여 차년도 개선방안 도출

② 인적·물적 자원 연계

구분	연계기관	상세내역
인적자원	서울특별시	운영 보조 인력 지원
	자연과학문화 플레이센터	친환경 교육 강사 연계
물적자원	서울특별시	예산 지원
	동대문구청	프로그램 홍보
	서울청년센터 동대문오랑	프로그램 홍보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로그램 홍보

③ 안전사고(문제),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구분	준비 내용
안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대면/비대면 프로그램 운영방식 변경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물품(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확보 - 소화기, 구급함 등 안전물품 상시 구비 및 응급상황 매뉴얼 확보 - 프로그램실 소화기, 피난안내도 비치 점검 - 긴급상황 발생 시 지역 내 연계기관으로 연계(비상 연락망 가동)
인력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이력서 및 자격증 수령, 범죄경력조회 실시 - 코로나19 유증상 여부 확인 및 점검 - 프로그램 시작 전 이용자, 실무자 대상 사전 안전교육 실시

평가 및 결과

사업성과

① 양적 성과

사업목표	세부 목표	사업 결과	달성률(%)
1인 가구 환경교육 및 체험활동을 통한 일상생활 역량 강화	환경보호 필요성, 분리수거 방법 등 친환경 교육 4건, 3회기 운영	친환경 교육 및 프로그램 4건 13회기 달성	108% 달성
	일상생활에 적용 가능한 친환경 체험활동 4건 3회기 운영		
	실인원 40명, 연인원 120명 이상 참여	실인원 56명, 연인원 164명 달성	140% 달성
지속 가능한 소비를 주제로 한 1인 가구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친환경 활동을 주제로 한 온라인 소통 창구 개설	에코 챌린지 활동을 위한 온라인 소통 창구 개설	달성
	1인 가구가 이용가능한 친환경 공유공간 운영	1인 가구 리필스테이션 설치 및 운영	달성
	이용자 만족도 4.5점(5점척도)이상 달성	이용자 만족도 4.77점(5점척도)달성	106% 달성

② 질적 성과

- ◆ 2022년 변경된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진행하여 1인 가구의 친환경 생활 역량을 강화함
- ◆ 1인 가구 혼자서도 실생활에서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에코 챌린지로 선정하여 쉽고 재미있게 환경을 지킬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변화에 기여함
- ◆ 에코 챌린지 활동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고 활용하여 1인 가구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도록 하고, 친환경을 주제로 한 사회적 교류를 증진하였음

③ 참여자 주요 반응

- ◆ 김 OO(30세) “친환경적인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새활용에 대해 알게 된 점을 실생활에서 환경을 위해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 ◆ 이 OO(45세) “업사이클링 체험을 통해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덕분에 환경보호에 관심이 생겼고, 제로웨이스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 ◆ 한 OO(58세) “환경이 점점 오염되어가고 있는 걸 몸소 느끼며 친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분리수거 방법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던 분리배출 분류나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

① 프로그램 적절성

- ◆ 매년 변경되는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 및 쓰레기 재사용 방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1인 가구의 생활 역량을 강화함
- ◆ 환경보호 및 친환경 소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친환경 교육과 업사이클링 체험을 함께 구성하여, 환경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 가치를 확산시킴

② 운영 효율성

- ◆ 서울특별시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자원 마련이 가능하였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음. 이를 바탕으로 환경교육과 다양한 업사이클링 활동 진행이 가능한 강사를 섭외하여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구성함.
- ◆ 또한 매번 프로그램 시간에 맞추어 참여가 어려운 1인 가구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교육 이외에 에코 챌린지를 기획하였고, 이를 통해 친환경 활동을 실제 1인 가구의 일상에서 구현해 냄

③ 사업 효과성

- ◆ 일상생활에 적용 가능 한 내용으로 환경교육을 구성하고, 다양한 실습(체험)과 에코 챌린지, 리필 스테이션 운영 등을 통해 1인 가구의 일상생활에서 환경보호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
- ◆ 온라인 소통 공간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 등을 활용한 정보제공, 질의응답 및 에코 챌린지 활동 공유를 통해 참여자 간 지속적인 관계 형성 기반을 마련함

④ 향후 과제 및 기타 의견

- ◆ 1인 가구 환경교육 및 업사이클링 체험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쓰레기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물물교환 마켓, 리필 스테이션을 상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활성화하여 진행해 보고자 함





결혼이민자 동아리 지원 사업

“난타 동아리 덩~딱 덩 딱!”

강은진 통영시가족센터

사업기간

2022년 7월 1일 ~ 2022년 12월 14일(24회기)

2023년 3월 7일 ~ 진행중(26회기 진행)

필요성

장기 거주 기간에 따른 결혼이민자 역량 발휘 기회 제공

“난타를 배우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싶었고, 무미건조한 내 생활이 풍부해졌어요!”

2022년 동아리 지원 사업에 참여한 난타동아리 참여자는 친구, 언니, 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지만 난타를 배우고 무대에 오르는 경험을 통해 뿌듯하고 성취감을 느꼈다며 소감을 밝혔다. 난타동아리 참여자 10명 모두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장기 거주 결혼이민자였고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결혼이민자의 국내 거주 기간 15년 이상 비율은 39.9%로 18년(27.6%) 대비 12.3% 증가했고, 30세 이상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거주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 생활의 어려움과 차별 경험이 감소하고 사회적 관계는 확대되는 등 한국생활 적응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센터에서는 적응과 관련된 지원보다는 장기 거주 결혼이민자들의 개인 역량을 강화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지원하고자 한다.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기여자로 사회적 정체성 확립

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각자의 재능과 능력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계기

결혼이민자들은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서 적응도가 높아지고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모국보다 더 편하게 느낀다.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여 센터 내 프로그램에 봉사활동을 자원할 정도로 적응 초기에 서비스를 이용하던 이용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여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결혼이민자들의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경험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자신감을 회복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1) 본 센터에서는 난타를 배워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하여 결혼이민자가 소속감과 자신감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이 생기면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으로 기대해본다.

1)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지역사회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지역사회학회(2018)

■ 난타를 통한 한국과 지역사회 문화에 대한 경험 및 이해도 향상

2021년 난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와 신규 참여자로 구성된 난타 동아리 참여자는 난타 수업에서 사용하는 음원(강원 아리랑, 진도 아리랑 등)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요와 전통 음악에 대해 알게 되었다. 난타가 매개가 되어 음원뿐 아니라 참여자들이 모여 소통하는 시간이 많아져 한국과 지역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사업목적 및 목표

사업목적

결혼이민자가 스스로 본인의 정착 과정을 설계하고 지역사회의 능동적이고 자립적인 일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

성과목표

- 1) 새롭게 배우기를 시도하여 자신의 능력을 향상한다.
- 2) 동아리 활동 중 지역사회 내 나눔을 통해 보람을 느낀다.

산출목표

- 1) 회기 당 참여자 80% 이상 참여
- 2) 재능기부 또는 나눔 활동 2회 이상 진행
- 3) 동아리 활동 진행 중 또는 활동 후 자조모임 2회 이상 진행

기대효과

- ◆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향상해나감으로써 자아존중감과 생활 전반의 만족도를 높인다.
- ◆ 재능을 기부하거나 자신이 직접 만든 물품을 지역사회에 나눔을 하며 지역사회 기여자로서 안정적인 지역사회통합을 이룬다.

사업 내용

2022년 사업 세부내용

구분	일시	참여인원	내용	세부내용	비고
1	7. 1.(금) 13:00~15:00	9명	첫인사 및 난타 소개	마음 나누기, 인사장단, 난타란?, 채잡는 방법, 복의 위치, 기본 태도 설명	'아리랑 국악원' 학원 에서 진행
2	7. 8.(금) 13:00~15:00	8명	기차장단 별달거리장단	기차장단 / 별달거리 장단 5단계까지 연습	
3	7. 15.(금) 13:00~15:00	10명	장단 익히기	3.3.7 장단, 3.7.3 장단 익히기 강원 아리랑 노래 맞춰 장단 익히기	
4	7. 22.(금) 13:00~15:00	9명	장단 익히기	7.3.3 장단 익히기 4박자 리듬 강세 및 양손 타법 익히기 짚이야 노래 맞춰 장단 익히기	
5	7. 29.(금) 13:00~15:00	7명	장단 익히기	3.3.7 3.7.3 7.3.3 장단 익히기 별달거리 장단의 변형 가락 익히기	
6	8. 5.(금) 13:00~15:00	9명	장단 익히기	별달거리 장단의 변형 가락 익히기 짚이야 노래 맞춰 장단 익히기	
7	8. 12.(금) 13:00~15:00	9명	짚이야 최종 연습	짚이야 총연습 (가락 및 퍼포먼스)	
8	8. 16.(화) 13:00~15:00	9명	예선 영상 촬영	총연습 후 짚이야 영상 촬영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페스티벌 경연 대회 예선 영상 촬영)	
9	8. 23.(화) 13:00~15:00	8명	장단 익히기	2개의 복으로 별달거리 장단의 변형 가락 익히기	
10	8. 30.(화) 13:00~15:00	10명	장단 익히기	별달거리 장단 익히기 강원 아리랑 노래 맞춰 장단 익히기	
11	9. 8.(목) 13:00~15:00	8명	경연 대회 준비	별달거리 장단 익히기 짚이야-강원 아리랑 이어 연습하기	
12	9. 13.(화) 13:00~15:00	10명	경연 대회 준비	입장-무대 경연-퇴장 순서대로 반복 연습하기	
13	9. 20.(화) 13:00~15:00	10명	경연 대회 준비	입퇴장 음악 추가하여 입장-무대 경연-퇴장 연습하기	
14	10. 7.(금) 13:00~15:00	10명	가락 익히기	설운도 추억속으로 음원으로 1번~4번 가락 익히며 연습하기	
15	10. 21.(금) 13:00~15:00	10명	가락 익히기	1번~4번 가락 복습하고 추가되는 가락 연습하기	

구분	일시	참여인원	내용	세부내용	비고
16	10. 28.(금) 13:00~15:00	10명	3곡 연습하기	추억 속으로-짘이아-강원 아리랑 3곡 이어서 연습하기	'아리랑 국악원' 학원에서 진행
17	11. 1.(화) 13:00~15:00	10명	추억 속으로 반복 연습	강악을 맞춰 연습하기 속도를 달리하여 연습하기	
18	11. 8.(화) 13:00~15:00	9명	방향을 바꿔 연습하기	평소에 대형 거울을 보고 연습했으나 방향을 바꿔 연습하기	
19	11. 15.(화) 13:00~15:00	9명	방향, 입장 방법 바꿔가며 연습하기	자리 배치를 2줄, 3줄 바꿔가며 연습 하고 입장 방법을 바꿔가며 연습하기	
20	11. 22.(화) 13:00~15:00	8명	의상 입고 연습하기	무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2명-3명-4명(3줄)로 연습하기 입장-무대 경연-퇴장 연습하기	
21	11. 29.(화) 13:00~15:00	9명	공연 리허설	위/아래 의상을 모두 입고 연습하기 공연 리허설하기	
22	12. 6.(화) 13:00~15:00	9명	공연 리허설	공연 장소, 시간, 행사 진행 순서 등 공유하고 공연 리허설하기	
23	12. 7.(수) 19:30~20:45	9명	공연 1	센터 내 프로그램 (결혼이민여성 송년의 밤) 연계하여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공연함.	웨딩 스토리
24	12. 14.(수) 18:10~18:25	9명	공연 2	통영국제교류협회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족 초청 교류행사에서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공연함.	통영 베이 리조트
합계	총 24회기 실시 / 실인원 10명, 연인원 218명 참여				

2023년 사업 세부내용

구분	일시	참여인원	내용	세부내용	비고
1	3. 7.(화) 13:00~15:00	9명	첫인사 및 계획 변경	장구 배우기를 희망하여 논의 후 장구 수업 → 난타 수업 진행하기로 함 고고 장구에 대한 이해, 폴카장단 익히기	1명 참여 중단
2	3. 14.(화) 13:00~15:00	9명	폴카 장단 복습	폴카 장단 익히기, 노래에 맞춰 연습	
3	3. 21.(화) 13:00~15:00	8명	공연 예선 연습	봉숫골 꽃나들이 축제 버스킹 공연팀 예선 신청, 난타 공연 준비로 난타 연습	
4	3. 28.(화) 13:00~15:00	9명	공연 연습	봉숫골 꽃나들이 축제 버스킹 공연팀 예선 심사 합격으로 공연 준비	

구분	일시	참여인원	내용	세부내용	비고
5	3. 30.(목) 10:00~12:00	8명	공연 준비 자조 모임	공연 준비로 인한 자조모임 (의상 착용하고 연습)	자조 모임
6	3. 31.(금) 10:00~12:00	7명	공연 준비 자조 모임	공연 준비로 인한 자조모임 (의상 착용하고 연습)	자조 모임
7	4. 1.(토) 10:00~12:00	9명	공연 리허설	공연 준비로 인한 자조모임 및 공연 전 학원에서 자체 리허설	자조 모임
8	4. 1.(토) 12:00~13:30	9명	공연	제18회 봉숭골 꽃 나들이 버스킹 공연팀으로 참여하여 공연 진행	봉숭골 공연주차장
9	4. 4.(화) 13:00~15:00	9명	폴카 장단 익히기	다시 장구 수업으로 진행 폴카 장단 익히고 노래에 맞춰 연습	
10	4. 11.(화) 13:00~15:00	9명	폴카 장단 2	폴카 장단 2를 강원 아리랑 노래에 맞춰 장단 연습	
11	4. 14.(금) 10:00~12:00	8명	공연 준비 자조 모임	4. 19.(수) 새마을의 날 행사 공연 확정, 공연 준비로 인한 자조모임	자조모임 신규 참여자명모집
12	4. 18.(화) 13:00~15:00	10명	공연 연습	공연 준비로 인한 난타 연습	
13	4. 19.(수) 08:30~10:00	10명	공연	53주년 새마을의 날 기념식 공연	총무 체육관
14	4. 25.(화) 13:00~15:00	10명	폴카 장단 복습	폴카 장단 복습, 짚레꽃 노래로 연습	
15	4. 28.(금) 09:00~11:00	9명	공연 준비 자조 모임	5. 20.(토) 공연 확정 공연 준비로 인한 자조모임	자조 모임
16	5. 2.(화) 13:00~15:00	10명	공연 준비	이전 공연들과는 달리 공연은 난타 공연 + 장구 공연	
17	5. 9.(화) 13:00~15:00	8명	공연 준비	공연으로 인한 공연 준비	
18	5. 16.(화) 13:00~15:00	9명	공연 준비	공연으로 인한 공연 준비 편이아(난타) - 짚레꽃(장구) 진행	
19	5. 17.(수) 09:30~12:00	8명	공연 준비 자조 모임	공연 준비로 인한 자조모임	자조 모임
20	5. 19.(금) 09:30~12:00	8명	공연 준비 자조 모임	공연 최종 리허설	자조 모임
21	5. 20.(토) 09:00~11:00	9명	공연	공연 리허설, 공연 진행	내죽도 수변공원
22	5. 23.(화) 13:00~15:00	9명	장구 1단계 익히기	장구 1단계 배우고 반복 연습	

구분	일시	참여인원	내용	세부내용	비고
23	5. 26.(금) 10:00~12:00	8명	자조 모임	장구 1단계 반복 연습	자조 모임
24	5. 30.(화) 13:00~15:00	9명	강원 아리랑	강원도 아리랑 장구 가락 익히기	
25	6. 9.(금) 10:00~12:00	8명	자조 모임	지난 회기에 배운 장구 가락 연습	자조 모임
26	6. 13.(화) 13:00~15:00	9명	장구 6단계 익히기	진도 아리랑 장구 가락 익히기	
합계	수업 20회기로 계획했으나 자조모임이 활성화되어 회기 수 증가됨. 현재까지 총 26회기 진행. 실인원 10명 / 연인원 228명				

평가 및 결과

- ◆ 2022년 동아리 활동은 친밀감 향상, 스트레스 해소를 목표로 진행하여 목표 달성, (아래 만족도 조사 서술 참고) 또한 참여자들의 열정과 역량 강화로 지속성 요구, 2023년 지속하여 진행. 센터 대표 결혼이민자 동아리로 자리매김
- ◆ 2022년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페스티벌 행사 중 ‘동아리 경연 대회 별★수’ 참여. 예선 심사 후 본선에 진출하여 최우수상 수상
- ◆ 2022년에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공연을 진행하였고, 2023년에는 봉사활동과 더불어 공연비를 받고 진행하는 공연에도 참여. 공연 무대 경험이 늘어나고 공연 의뢰 문의도 있어 참여자들의 자신감과 성취감 향상
- ◆ 2023년 계획된 수업 외 자조모임 활성화로 계획된 회기 수보다 회기 수 증가
- ◆ 2022년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자 만족도 조사 서술 내용
 - 난타를 배우면서 친구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생기고 너무 좋았어요. 코로나 시절에 무미건조한 생활을 풍부하게 되고 정말 재미있어요!
 - 너무 재미나고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난타를 치는 시간은 아무 생각도 없어 집니다.
 - 신나게 배우고 친구도 만나요.
 - 스트레스도 풀리고 여가활동으로 너무 좋아요.
 - 너무 재미있고 전통 노래도 배우고 친구들을 만나 좋습니다.
 - 너무 재미있었고 다음에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업 시간이 즐겁고 기다려졌습니다.
 - 선생님께서도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재미있어요.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하는 소중한 가족 “소소가족”

정희정 계양구가족센터

사업기간

2022년 1월 1일 ~ 2023년 5월 13일

필요성

■ 가족희망드림지원사업의 중심 ‘가족사례관리’

본 사업은 가족센터 가족 돌봄 영역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경제적·심리적·정서적 문제로 자녀 양육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취약·위기가족을 대상으로 클라이언트의 복합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족의 건강성 증진과 더불어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여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센터가 ‘가족’이라는 단위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정책 전달 체계라고 할 때, 그 안에서 진행되는 가족희망드림지원사업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례관리가 개인 단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단위로 하여 개입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족의 전체성, 상호의존성, 관계 중심성과 같은 가족체계를 뼈대로 두고 통합적인 접근 및 서비스 제공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박정윤, 2019)

■ ‘가족’ 중점의 통합 서비스를 위한 맞춤 사업 기획

2022년 가족희망드림지원사업을 운영한 결과, 사례 관리팀(4명)이 1년간 118가구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각 가정에 주 2회 이상 방문 지원하였고, 내·외부 자원 연계를 모두 포함한 서비스 지원이 총 2,665회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가족 사례관리와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100가구 이상의 취약 위기가족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에 **사례관리 대상 가구의 욕구에 맞는 개별 개입이 가족의 역량 강화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에 '22년 하반기 사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각 사례관리 대상자의 개별 욕구사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신체 건강·정신건강·가족관계·사회적 관계·경제·교육·직업·주거 총 8가지 영역에 대한 개별 욕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신체 건강	스트레스 및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	경제적 빈곤
정신건강	스트레스	경제적 빈곤	가족부양 부담
가족관계	성격차이	자녀양육 갈등	가족양육 부담
사회적 관계	소심한 성격	대인기피	적응력 부족
경제	실직	일시적 질병	신용불량, 파산
교육	학습의지 부족	사교육의 어려움	언어 문제
직업	건강 문제	자녀양육 부담	정보 부족
주거	냉·난방 열악	주방시설 열악	사생활 공간 부족

※ 각 욕구 영역별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만족도 3점 이하 응답에 대한 이유

이에 앞서 언급했던 가족 사례관리의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토대로 위 욕구조사 결과를 통해 도출된 개별 가구의 어려움과 욕구를 종합하여, 사업 내용과 프로그램 기획에 반영하고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사례관리 대상 가정의 주요 욕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목적 및 목표

사업목적

지역 내 취약 위기 가구의 복합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클라이언트와의 접촉, 대면 상담과 직접 및 간접 서비스 제공

성과목표

1) 이용자의 욕구(needs)를 파악하여,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2)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가족기능을 회복함**으로써 클라이언트와 가정의 자립 역량 강화
- 3) 가정 폭력, 이혼 등 긴급 위기 상황을 직면한 개인 및 가족의 정신적 외상(트라우마) 회복 및 심리 안정 도모
- 4) **지역사회 자원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접근성 확장 및 사회적 기능 향상 도모

기대효과

1. 취약·위기가정의 복합적인 어려움과 욕구에 대한 집중·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을 통해 가족 역량 및 기능을 강화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자립을 도모할 수 있다.
2.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내부 자원과 지역사회 내 외부 서비스 연계를 진행함으로써, 다각면으로 사례관리를 개입할 수 있고 각 클라이언트의 개별 욕구를 해소할 수 있다.

사업 내용

사업 내 주요 서비스

- 1) 미취학(5~7세) 자녀, 초·중등학생 자녀 대상 학습 지원 서비스
- 2)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대상 긴급 돌봄, 정리 정돈 등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 3) 위기 상황을 직면한 가정 대상 가정방문상담, 회복 지원 서비스, 전문상담기관 연계 서비스
- 4) 가족문화, 교육, 나들이 등 가족 프로그램 지원
- 5)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조모임 지원
- 6) 그밖에 센터 내 타사업 서비스 연계 및 외부 자원 연계

가족 맞춤형 서비스 : 가족, 이용자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 1) 서비스를 희망하는 이용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파악
- 2) 파악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논의하고 계획하여 상호 합의한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진행 체계



I 가족 맞춤 사례관리 세부 운영 내용

가. 사업의 전문성 및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 운영 기획

가족희망드림지원사업의 기반이 되는 ‘사례관리’ 서비스는 상담, 사정,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이용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전문성이 곧 이용자의 만족도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다. 때문에 본 기관에서는 이를 중점으로 사업을 운영 기획하였다.

1) 우리 기관만의 사례관리 학회 인증 교육

- 사업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사례관리 학회 인증의 기초교육, 심화 가정교육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사업의 기반이 되는 사례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론과 역량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

2) 실제 사례 발표 슈퍼비전 실시

- 기관의 실제 사례를 발표하여 전문가의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슈퍼비전 진행
- 사례관리 과정을 보완하고 자기발전을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매월 정기 진행

3) 타 교육과의 차별성 있는 사례관리 소진 예방 교육 실시

- 3년 차 이상의 사례관리 실무자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심리적 소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전문가가 진행하는 소진 예방 슈퍼비전을 실시
- 소진을 겪는 실무자의 사기를 증진하고 소진된 마음 회복 도모

4)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 실시

- 사례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운영해 온 슈퍼비전을 관내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 형태로 변형하여 운영
- 실제 유관기관 간 함께 개입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 공동 사례관리 케이스에 대한 실제 발표와 슈퍼비전을 진행

나. 타 기관과 차별성 있는 사례관리 서비스 구조화 구축

기본적으로 가족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지만, 사업의 특성상 세부 서비스의 구체적인 체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기관 내부적으로 사업 운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본 기관만의 장치와 서비스 구조를 확립하였다.

1) 계양구가족센터의 가족희망드림지원사업 자체 사례관리 매뉴얼 제작

- 교육과 스터디 과정을 경험하면서,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체계화 작업 실시
- 사업을 수행하는 실무자들 간의 논의 과정을 통하여 서비스 과정에 필요한 욕구 총괄표, 계획표, 점검표, 사례관리 계약서 등의 기관 자체 사례관리 서식 제작
- 사례관리 업무 수행 담당자 간의 초기 면담 방식 통일화하여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에 기여

2) 외부 자원의 목록화(데이터베이스화)

- 개별 가족의 욕구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외부 자원망을 개발
- 실무자들 간의 협업을 통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외부 자원의 목록을 제작하여 업무 효과성에 기여
- 자체적으로 사례관리 이용자에게 연계할 수 있는 외부 자원을 수집하여 영역별(의료, 교육, 경제, 심리, 생계, 주거 등 7가지) 세분화하고 범주, 내용, 연계 방법 등을 명시한 후, 웹 시트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함. 해당 데이터를 담당자들 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

다. 가족희망드림지원사업의 '사례관리' 체계 표준화의 기틀 마련

가족센터에서는 가족희망드림지원사업 외에도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다문화 사례관리, 청소년자립지원패키지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사례관리'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 별도의 통일성 있는 '사례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였다.

1) 정기 내부 사례회의 운영

- 월 2회, 2주에 1회씩 정기적인 내부 사례회의 체계를 마련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이용 가정에 적재적소에 자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 사례회의를 통하여 요청 및 의뢰된 사례관리 이용 가정에 대한 서비스 개입 적합도와 개입 방향 등에 대한 심층 논의 진행

2) 주간 사례회의 실시

- 동료 슈퍼비전 활성화를 위한 주간 사례회의 실시
- 담당자 간의 사례 공유, 이용자별 맞춤형 서비스 심층 관리 및 계획 설정의 어려움 공유 및 논의 및 긴급 상황에 대한 수시 회의 진행
- 실무자 간의 조인과 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동료 슈퍼비전 체계 확립

3) 가계도 제작 프로그램 활용

- 효율적인 사례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능적인 작업을 축소
- 가계도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서비스 계획과 제공에 대한 과정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4) 기관 내 자체 스터디 조직 결성

-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들 간의 자율적인 스터디를 구성
- 사례관리 서비스 체계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목표 설정 훈련, 동료 슈퍼비전 등을 진행

라.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기반 형성

가족희망드림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역유관기관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하며, 사례관리 가정에 대한 다양하고 원활한 자원 연계를 위해 지역 내 기관의 자리매김과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에 본 기관에서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1)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간 교류 활성화

- 개별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것들 중 하나로 지역 내 자원을 어려움 없이 이용자에게 연계할 수 있는 역량으로 판단
- 지역 내 유관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본 사업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진행하고 방문한 기관의 다양한 사업과 서비스에 대하여 직접 묻고 알아보는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확대

2) 지역유관기관협의체

- 본 사업 내 기본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협의체를 통하여 경찰서, 드림스타트 등의 관공서를 포함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민간복지시설, 그리고 한부모가족회, 어린이재단 등의 사단법인 및 재단까지 다양한 유형의 기관을 포함하여 구성

3) 민·관통합사례회의 참여

- 관내 민·관통합사례회의, 솔루션 회의 등의 참여를 통한 지역 내 가족 사례관리 핵심 기관으로 발돋움
- 정신건강 지역 케어 회의 등에 참여하며 관내 특수한 성질을 지닌 사례관리 가정에 대한 협의 지속 진행

평가 및 결과

양적 평가

가. 국정평가 기준 200% 이상의 달성을 실현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총 실인원 318명(118가정)의 이용자에게 사례관리 서비스를 개입하였으며, 사례관리 대상 118가정에 대하여 총 2,665회기의 실제 직·간접 서비스를 개입하였음
- 일반 사례관리 가정 수로 책정하는 국정평가(정량지표) 기준, 231% 이상을 달성하는 결과를 나타냄
- 2022년 한 해 동안 사례관리 가정에 대한 교육·문화·돌봄 프로그램 등을 총 82회 운영하였으며, 사회적 관계를 위한 자조모임을 총 32회 운영하였음

나. 가족기능 및 위기도 변화의 효과성 제고

- 일반 사례관리 종결 가정(39가정)에 대한 가족기능 사전·사후 척도 조사 결과, 가족 기능 향상 가정 수는 22가정, 약 56%의 비율로 과반이 넘는 수치를 나타냄

- 긴급 위기 사례관리 종결 가정(11가정)에 대한 위기도 사전·사후 척도 조사 결과 8가정의 위기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도탈락 가정(3가정)을 제외하고 남은 모든 가정의 위기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100%의 위기도 감소율**로 볼 수 있음

질적 평가

가. 가족 맞춤 서비스 지원을 통한 높은 만족도 달성

- 사례관리 맞춤형 서비스의 전문성 향상과 구조화를 통하여, 각 이용자의 실생활에 대한 직접적 도움을 지원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이 현실적인 긍정적 만족도가 도출되었음
-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아 어른과 눈을 맞추게 되었고, 성적도 많이 향상되어 좋았다.”, “자녀의 긴장이 완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집중력을 높여주셔서 좋았다.”, “자녀의 부족한 학습을 도와줄 수 있어 좋았고, 실제로 성적도 향상되어 감사했다.”, “자녀의 등교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대신 도와주셔서 좋았다.”, “긴급하게 상담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비용 걱정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안심이 되었다.”

나. 사례관리 욕구 해소 및 목표 달성에 따른 개별 효과 성취

- 사례관리 구조화 작업을 통해, 이용자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계획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입할 수 있었음

자체 평가

- 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있어,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은 사례관리 서비스의 올바르고 적절한 운영이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기관과 실무자는 사례관리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 기본적으로 사업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외에도 사례관리를 운영하기에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실제로 보완해야 하는 내용에 대한 체계화 및 구조화 작업을 수행하였음
- 이를 통해 본 기관만의 차별성 있는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음.
- 첫째, 본 기관만의 '사례관리 전문화 과정 교육'을 운영하여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족희망드림지원사업, 다문화사례관리사업, 청소년자립지원패키지 등)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었음
- 둘째, '사례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본 기관만의 사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례관리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에 통일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음
- 셋째, 사례관리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내부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외부 자원 목록화'를 진행함으로써,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기관만의 고유한 자원망을 형성할 수 있었음
- 그 밖에도 이루어 낸 사례관리의 전문화·체계화 과정은 본 사업에서 이뤄낸 양적·질적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음
- 계양구가족센터에서는 2019년부터 본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성 높게 수행하기 위하여 수많은 시행 착오를 거쳐왔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기관만의 사업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에 '가족희망드림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을 때, 본 기관의 사업 운영 체계와 방향성은 결과의 효율성 및 효과성 등을 근거로 하여, 타 기관에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023년 가족서비스 우수수기 및 사례집



발간등록번호	2023-KIHF-211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발행인	전주원 상임이사(직무대행)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1, 24층
전화	02-3479-7600
팩스	02-3479-7789
홈페이지	www.kihf.or.kr
인쇄 및 디자인	(주)옛나우

비매품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용·발행하거나 무단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2023년
가족서비스
우수수기 및
사례집

